

성장소설 ‘THE HOUSE ON MANGO STREET’ 번역본을 내서 간디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제 출 자: 황석연

지도교사: 김수진

초록

이 논문은 기존에 정식 한국어 번역본이 존재하는 영어 원문을 재번역하여 더 읽기 쉽고, 재미있는 번역문을 만들기 위한 논문이다. 본인의 언어 능력과 언어 이해도, 그리고 독해 능력과 번역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성장소설인 『THE HOUSE ON MANGO STREET』를 기존 번역본 보다 높은 품질로 재탄생시켜 간디인들이 쉽게 접하고 한번쯤 읽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연구의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비중을 차지한 것은 번역 작업이다. 가장 고뇌해야하고 신중해야 하는 작업이었고, 가장 힘든 작업이었다. 번역 작업을 3차례에 걸쳐 끝마친 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어느 정도 수정작업을 거쳤다. 그리고 간디인, 전문가 평가를 받았다. 간디인 평가 결과는 만족스럽게 나왔으나 전문가 평가에서는 고칠 점을 지적 받았다. 기초적 공부가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논문으로 완성된 작품에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퇴고 작업을 거친 다음 책으로 만들어낼 생각이다. 제작된 나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I. 서론	1) 전문가 섭외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2) 인터뷰
2. 연구 방법	6. 삽화
	7. 평가
	1) 전문가 평가
II. 본론	2) 간디인 평가
1. 번역의 정의	
2. 번역의 종류, 방법	III. 결론
1) 내가 사용한 방법	1. 연구의 성과, 한계
3. THE HOUSE ON MANGO STREET	2. 향후방향
1) 선정의 과정과 이유	3. 개인 총평
2) 작가소개	
3) 줄거리	<감사의 글>
4. 번역작업	<참고 문헌>
1) 1차 번역	<부록>
2) 2차 번역	
3) 3차 번역	
5. 전문가 인터뷰	

I. 서론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1) 연구의 동기

처음에는 ‘원서 번역으로 간디인들의 영어 흥미도 높이기’라는 주제로 논문을 시작했다. 당시의 연구 동기는 아래와 같았다.

예전부터 여러 언어를 잘 하고 싶은 욕구가 늘 있었다.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
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고 영어로 나오는 자막 없는 동영상이나 영어
문서 같은걸 볼 수 없는 게 늘 불편했다. 그러나 늘 흥미가 붙지 않아 실패했다.

원래부터 번역에 흥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영어 번역은 영어에 흥미를 붙
이기에 좋은 동기가 될 것 같았다. 나는 원래 우리말로 글쓰기에는 흥미가 있었
고,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영문원서를 번역하여 책을
만드는 것을 선택했다.

하지만 본인의 나태, 불찰로 인해 여름방학이 끝나고부터 번역을 시작하게 되어 시
간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 자신이 영어에 대해 별로 흥
미가 샘솟지 않았다. 그러나 작업 중이던 작품에는 애정이 생겨 원래 목표 보다 더욱
높은 품질로 완성해 보고 싶었다.

비록 이미 정식 번역본이 출간된 작품이지만 내가 그 번역본을 읽어봤을 때 개인적
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역자에게 미안하지만 그곳 문화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
고 의역을 했지만 본문의 느낌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같다. 게다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들어가는 말, 소개 글은 아예 생략되었다. 그래서 나의 새로운 번역으로 그
보다 더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1) 연구의 목적

『THE HOUSE ON MANGO STREET』는 산드라 시스네로스라는 멕시코계 미국 이
민자 작가의 첫 번째 작품이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유사한 환경을 작품 속에 담아내
었고, 주인공도 모티브가 자신인 것으로 추정되며, 어린 시절 일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성장 소설이다. 주인공인 에스페란자의 나이는 우리 학교 학생들 또래이고 그 시기의
감정과 갈등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다양하고 많은 일을 겪으며 성장하는 성장 소설
인 만큼 청소년기에 모두 한번쯤 읽어 봤으면 좋겠다. 나 자신도 이 논문을 진행하면
서 영어 능력, 독해 능력, 번역 능력, 작품의 이해도 등의 정신적 성장을 목표로 한

다. 작품의 새로운 삽화도 추가하며 기존 것과 다른, ‘더 좋은’ 번역본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에 대한 여부는 전문가 평가, 간디인 평가 등이 있겠다.

1. 연구 방법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인 영어능력과 번역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기 위해 관련서적을 읽는다. 그 후 바로 실전 번역에 들어가서 영어 능력 향상, 독해 능력 향상 등의 개인적 성장을 겪으며 차근차근 기존 정식 번역본 보다 더 읽기 쉽고, 완성도 높은 번역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 다음 전문가 평가, 간디인 평가를 받아 연구의 성과를 확인한다. 그리고 후에 책을 만들어 도서관에 비치하여 간디인들이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II. 본론

1. 번역의 정의

번역의 1차적인 목적은 원문과 번역문이 동등한 관계, 즉, 똑같은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학을 토대로 번역에 접근한 학자들은 번역을 전적으로 언어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였으며 대체로 '원문과 등가의 텍스트를 생산해 내는 것'으로 번역 작업을 정의하였다. '등가(等價, equivalence)' 개념은 여러 학자들이 번역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지만, 학자별로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었다. 등가라 함은 말 그대로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의미이다. 번역이란 원문과 다른 언어로 동일한 가치를 가진 글을 생산해 내는 것이라고 정의된 것이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등가 개념을 제시하였다. 원문과 번역문 간의 언어 형식의 일치 를 의미하는 형식적 등가, 원문과 번역문이 독자로부터 동일한 효과를 유발해야 한다는 의미의 역동적 등가 등이다. 그러나 번역된 글이 ‘등가적’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때문에 번역사가 ‘등가인 것으로 판단한’, ‘등가인 것으로 추정한다’가 맞는 표현일 것이다.¹⁾

이 논문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번역의 가치는 등가이다. 등가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번역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논문 과정 중에 번역 전문가 오필선 선생님²⁾을 만나 번역에 관한 인터뷰를 했는데 ‘번역이란 탐정 일’이라고 정의하신 것이 유독 공감 되었다. 번역이란 탐정처럼 ‘이것이 과연 동등한 등

1) 출처: 이향(2014), 『번역이란 무엇인가』, 파주: 살림

2) 서울 성미산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고 계시며, 2015년 2월까지 제천 간디학교에서 교사로 계셨다.

가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본인이 스스로 내린 번역의 정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번역은 탐정 일’이라는 오필선 선생님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2. 번역의 종류, 방법

먼저 번역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³⁾ 직역과 의역. 대부분의 번역가들은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된다. 직역이란, 말 그대로 원서에 충실하게 동등한 의미를 그대로 풀이해 놓은 것을 말하고, 의역이란 번역가가 재량껏 자신의 언어로 읽기 쉽게 원문에 있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없는 요소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사실상 판단할 수 없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학자 사보리는 좋은 번역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⁴⁾

1. 번역은 원문의 단어를 드러내야 한다.
2. 번역은 원문의 사상을 드러내야 한다.
3. 번역은 원작처럼 읽어야 한다.
4. 번역은 번역처럼 읽어야 한다.
5. 번역은 원작의 문체를 반영해야 한다.
6. 번역은 번역의 문체를 가져야 한다.
7. 번역은 원작과 동시대의 것으로 읽어야 한다.
8. 번역은 번역과 동시대의 것으로 읽어야 한다.
9. 번역은 원문에 덧붙이거나 생략해도 상관없다.
10. 번역은 원문에 덧붙이거나 생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11. 운문의 번역은 산문이어야 한다.
12. 운문의 번역은 운문이어야 한다.

1) 내가 사용한 방법

위 1번~12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모순을 알아차릴 수 있다. 위에 명시된 것과 같이 사실상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번역계에 이런 말이 있다. ‘아름답지만 부정확한 여인’⁵⁾ 바로 의역을 가리키는 말인데, 번역가가 기존의 언어를 새로운 언어로

3) 나는 기존에 번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항 작가의 ‘번역이란 무엇인가’ 책을 보고 기초 지식을 익혔다. 그 책은 짧은 분량이었지만, 처음 번역이라는 개념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양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4) 이항(2014), 『번역이란 무엇인가』, 파주: 살림 - 30페이지에서 재인용.

5) 출처: 이항(2014), 『번역이란 무엇인가』, 파주: 살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문장에 다양한 요소를 집어넣어 읽기에는 편하지만 원문에 충실하지 못한 작품을 뜻한다. 만약 그런 방식을 거부하고 원문에 충실하게 모든 번역 작업을 직역으로만 처리한다면 전체적인 문장이 딱딱해지고 독자가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나의 번역 역시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당연히 원문의 내용을 살리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번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했으나 번역의 구조상 ‘완벽’은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의역을 주로 사용했다. 내 논문의 목적 중 하나가 ‘읽기 쉬운 책 만들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장을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등가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평균적으로 의역을 많이 사용했지만 그렇다고 직역한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원문의 느낌을 꼭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부분은 다음과 같이 직역으로 처리했다.

원문:

Marin's boyfriend is in Puerto Rico. She shows us his letters and makes us promise not to tell anybody they're getting married when she goes back to P.R.

나의 번역본:

마린의 남자친구는 푸에르토리코에 있다. 그녀는 그가 보낸 편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푸에르토리코로 돌아가면 그때 그와 결혼할 거라는 걸 알려주며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만들었다.⁶⁾

원문:

They are the only ones who understand me. I am the only one who understands them. Four skinny trees with skinny necks and pointy elbows like me.

나의 번역본:

그 나무들이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다. 나 역시 그 나무들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다. 가느다란 목과, 나처럼 뾰족한 팔꿈치를 가진 네 그루의 나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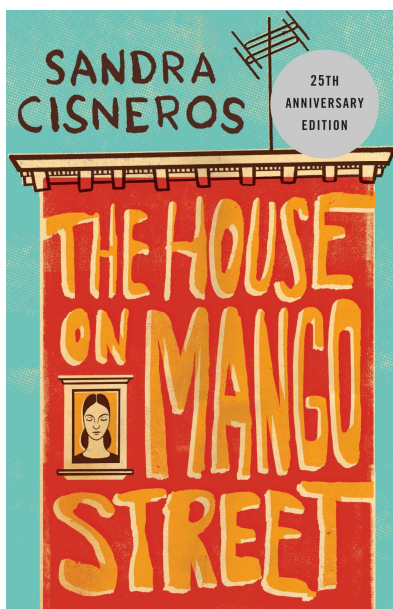
이런 식의 문장들은 직역으로 풀어놓아도 이해가 어렵지 않아서 굳이 의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문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직역을 했다.

6) 나의 번역본 『망고 스트리트의 집』 - 12페이지

7) 나의 번역본 『망고 스트리트의 집』 - 38페이지

번역을 하면서 망설인 적이 많았다. ‘이 부분은 직역으로 쪽 옮겨놓을까?’ ‘여기는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을 넣어야 하나?’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았고, 갈림길도 많았다.

3. THE HOUSE ON MANGO STREET



『THE HOUSE ON MANGO STREET』 원작

1) 선정의 과정과 이유

논문 주제를 번역으로 결정한 뒤 바로 번역할 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식 한국어 번역본이 없는 영어 원작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내 마음에도 들고 한국어 번역본이 없는 작품이란 정말 찾기 힘들었다. 한번은, 괜찮아 보이는 책을 하나 찾은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예상치도 못한 제목으로 한국어 번역본이 나와 있었다. 결국 포기하고 한국어 번역본이 있더라도 대중적으로 생소한 작품으로 탐색 범위를 좁혔고, 『THE HOUSE ON MANGO STREET』를 접하게 되었다.

작품의 내용은 우리 학교 학생들 또래의 치카나⁸⁾ 소녀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가난하고 암울한 마을 망고 스트리트에서 성장해 나가는 성장소설이다. 그 시기에 감정이나 갈등의 묘사가 뛰어나서 청소년기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간디인들이 꼭 한 번씩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첫눈에 봤을 때에도 흔쾌히 손을 뻗을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서적으로 완성하고 싶었다. 물론 정식 한국어 번역본이 존재하는 작품이다. 하지만 그 번역본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 뛰어나지 못하다. 그 역자는 멕시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았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지역 문화권에 단어를 각주도 없이 서술해놓은 것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기존 번역본에 아예

8) 멕시코계 미국 이민자를 말한다.

포함되지 않은 들어가는 말 - ‘나만의 집’까지 완역해서 새롭고 읽기 쉬운 ‘망고 스트리트의 집’으로 재탄생시키기로 결정했다.

2) 작가소개



『THE HOUSE ON MANGO STREET』를 쓸 당시의 모습



2018년 현재 모습

Sandra Cisneros (산드라 시스네로스)

1954년 시카고의 멕시코 거주 지역에서 태어났다. 2차 대전 직후의 프랑스 같은 황폐한 빈민가에서 자란 그녀는 텅 빈 주차장, 화염이 쓸고간 낡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점차 내성적인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로올라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대안 학교에서 낙제생들을 가르치며 체험한 멕시코 이주민 사회의 실상과 자신의 경험을 융해시켜, 첫 작품 [망고 스트리트]를 출간했다. 출간 직후 비평가들의 찬사와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며 도비 파이사노 작가협회의 후원으로 샌 안토니오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장만하고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 지금까지 여러 편의 시와 소설을 발표하며 미국의 라틴 이주민, 소외된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작품으로는 소설 [WOMAN HOLLERING CREEK AND OTHER STORIES] [CAMELO]가 있고 시집 [MY WICKED WICKED WAYS] [LOOSE WOMAN] 등이 있다.⁹⁾

3) 줄거리

앞서 말했듯 ‘THE HOUSE ON MANGO STREET’는 치카나 소녀가 주인공인 성장 소설이다. 작품에 전체적인 맥락이 있는 것은 아니다. 44개의 단편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어서 책의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앞뒤 흐름을 알지 못해도 독자가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이다. 44개의 이야기 중 어떤 이야기는 한 장이 채 안 되고, 어떤 이야기는 3장이 넘는 것도 있다. 어떤 이야기는 배드엔딩이고, 어떤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큰 틀은 ‘나만의 집’이다. 주인공 에스페란사의 꿈은 자신이 위치한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집을 갖는 것이다.

9) 출처: Cisneros, Sandra(2007), 『망고 스트리트』 권혁 옮김, 서울: 돌출새김 - 작가 소개란

“평범한 곳은 안 된다. 아파트 뒷골목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동 주택도 안 되고, 아빠의 집도 안 된다.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집...”¹⁰⁾

내가 번역한 ‘나만의 집’이라는 에피소드의 첫 문장이다. 이외에도 작중에서 ‘나만의 집’이 수없이 언급된다. 에스페란사의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큰 기대를 안고 이사 온 망고 스트리트의 집은 자신이 꿈꿔왔던 집과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집이었다. 에스페란사는 누군가 집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자랑스럽게 가리킬 수 있는 집을 원했다. 하지만 망고 스트리트 자체가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의 빈민가이고, 에스페란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장소다. 그래서 에스페란사는 자신의 신분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망고 스트리트에 소속되지 않고 다른 도시로 떠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에스페란사에게 어느 날 신비로운 세 명의 나이 든 여성들이 찾아와서는 말한다.

“언젠간 여길 떠나더라도 꼭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걸 명심하렴.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곳에 남겨질, 지금의 너처럼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소리야. 인생은 둥근 원과 같아서 늘 돌고 도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는 언제나 에스페란사 일 거고, 언제나 망고 스트리트의 일부분 일 거거든. 그걸 지워버릴 수는 없을 거야. 너 자신이 누구인지만은 잊을 수 없을 거야.”¹¹⁾

에스페란사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깨달게 된다. 그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훗날 망고 스트리트를 떠나더라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리라 결심한다.

4. 번역작업

내 논문의 꽃인 번역작업이다. 위에도 명시했듯 번역을 하면서 고민해야 할 점이 정말 많았다. 선택의 갈림길에도 여러 번 섰다. 개인 능력으로 뜻풀이가 불가능한 부분도 많아서 전자 번역기도 참 많이 돌렸다.

일단 번역을 하면서 고민 끝에 기존 번역본과 차별화시키고 최종 채택한 몇 가지 문단들을 예문으로 아래에 제출해 보겠다.

1번 문단

10) 나의 번역본 『망고 스트리트의 집』 - 57페이지

11) 나의 번역본 『망고 스트리트의 집』 - 55페이지

원문:

Then he starts it up and all sorts of things start happening. It's like all of a sudden he let go a million moths all over the dusty furniture and swan-neck shadows and in our bones. It's like drops of water. Or like marimbas only with a funny little plucked sound to it like if you were running your fingers across the teeth of a metal comb.

권혁 역자¹²⁾의 번역본:

잠시 후에 아저씨가 뮤직박스를 작동시키자 순식간에 온갖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아저씨가 먼지 쌓인 가구들 위로, 굽어 있는 우리들의 그림자 위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수백만 마리의 나비들을 갑자기 날려 보내는 듯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같기도 있다. 그러다가 쇠로 만든 머리빗을 손가락으로 훑을 때처럼, 작고 재미난 소리만 나도록 마림바를 연주하는 듯한 소리도 났다.

나의 번역본:

하지만 아저씨가 그것을 작동시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마치 그가 갑자기 백만 마리의 나방을 가게에 풀어놓은 것 같은 소리가 나며 수많은 백조의 그림자들이 벽에 비쳤다. 뺏속에서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듯한 소리도 났다. 그리고 마림바¹⁾의 재미있는 소리와 금속 머리빗을 손가락으로 튕길 때 나는 소리도 났다.¹³⁾

1) 실로폰의 일종으로 나무 건반들이 피아노처럼 배열되어 있으며 울림이 좋은 타악기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 정식 번역본에는 아예 없던 말을 끼워 넣은 것 (굽어 있는 우리들의 그림자 위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도 있고, 작가가 적어놓은 말을 아예 빼먹은 것도 있다 (작가는 분명 '백조'(swan)을 언급했다. 하지만 권혁 역자의 번역본에서는 백조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그게 적절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조치일 수 있지만 저 문단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딱히 저런 말을 넣어봤자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작과의

12) 기존 출간된 번역본의 역자다. 아주대 영문과 졸업. 출판과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역서로 『게티스버그 연설 272 단어의 비밀(Lincoln at Gettysburg)』,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What Jesus Meant)』, 『예수의 네 가지 얼굴(What the Gospels Meant)』, 『망고 스트리트(The House on Mango Street)』, 『월플라워(The perks of being a wallflower)』, 존 스타인벡의 『진주(The Pearl)』, 『사랑을 잃고 살아남는 법(How to Survive the Loss of Love)』 『미디어 씹어먹기』, 『엄마 이야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등이 있다. (출처: YES 24.com - 작가소개)

13) 나의 번역본 『망고 스트리트의 집』 - 9페이지

등가도 무시해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 ‘마림바’라는 악기는 별도의 설명 없이는 일반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각주를 추가했다.

2번 문단

원문:

I like coffee, I like tea.

I like the boys and the boys like me.

Yes, no, maybe so. Yes, no, maybe so.

권혁 역자의 번역본:

커피가 좋아. 홍차도 좋아.

그 남자애들이 좋아. 그 애들도 날 좋아해.

진짜로 그럴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나의 번역본:

나는 커피가 좋아. 나는 차도 좋아.

남자애들이 좋아. 개네들도 나를 좋아해.

맞아, 아니야, 아마도. 맞아, 아니야, 아마도.¹⁴⁾

문장의 의미에만 정말 충실 한다면 기존 정식 번역본의 문장을 선호할 수 있겠지만 원문의 ‘Yes, no, maybe so.’라는 짧고 간결한 문장을 저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싫었고,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문장이 조금 엉뚱하더라도 짧고 간결하게 ‘맞아, 아니야, 아마도.’로 번역했다.

3번 문단

원문:

but I believe she doesn't come out because she is afraid to speak English, and maybe this is so since she only knows eight words. She knows to say: *He not here* for when the landlord comes, *No speak English* if anybody comes, and *Holy smokes*. I don't know where she learned this, but I heard her say it one time and it surprised me.

14) 나의 번역본 『망고 스트리트의 집』 - 24페이지

권혁 역자의 번역본:

그렇지만 나는 그녀가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건 순전히 영어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정말이지 그럴지도 모른다. 그녀가 아는 영어 단어는 딱 여덟 개뿐이었다. 집주인이 찾아오면, “그는(He), 없다(not), 여기(Here)”라고 말했다. 어쩌다 누구라도 찾아오면, “못한다(No speak), 영어(English)”라고 말했다. 그리고 “큰일났다(Holy smokes)”라는 말도 했다. 그 말은 어디서 배운 걸까. 아무튼 딱 한 번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내 눈은 휘둥그레졌다.

나의 번역본:

하지만 내 생각에 그녀가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영어를 전혀 못 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인 것 같다. 아마 그녀가 아는 영어 표현은 이 3개뿐 일 것이다. “He not here(그는 여기 없어요)” 이걸 집주인이 찾아갔을 때 썼다. “No speak English (영어 못해요)” 이걸 누구라도 낯선 사람이 찾아가면 썼다. 그리고 “Holy smokes(맙소사)” 대체 그녀가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그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¹⁵⁾

원문에는 ‘3개의 표현’이 아닌 ‘8개의 단어’라고 적혀있다. 기존 정식 번역본은 원문을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8개의 단어보다는 3개의 표현이라는 문장이 영어를 모르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장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내 번역 방식이 평균적으로 의역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나만의 방식이 강하게 묻어난다.

예문은 이정도로 끝내겠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기존 정식 번역본과 차별화를 주었다.

1) 1차 번역 (8월 27일 ~ 9월 15일)

먼저 원서를 한번 완독하고 방학이 끝난 후에 1차 번역을 시작했다. 확실히 늦은 출발이었다. 방학 중에 논문 활동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개학 후부터 정말 많은 시간을 논문에 투자해야 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지라 경험이 부족해서 뭘 하든 오래 걸렸다. 이런 작업이 처음이라 엉뚱한 곳에서 헤매기도 하고 원서 뜻풀이가 어려워 뜻풀이에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다. 타자도 느려서 전체적인 번역 작업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아마 논문 기간 중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정말 힘겹게 의지를 불태웠던 기억이 난다. 물론 1차 번역의 결과물은 2차, 3차 번역을 진행하면서 대규모로 수정해야할 품질이었지만 영어원문 상태에서 동등한 등가를 추구하며 한글로 변신시킨다는 작업 자체가 내겐 처음이었고, 노하우 같은 것도 없었기에 매우

15) 나의 번역본 『망고 스트리트의 집』 - 39페이지

힘들었다.

2) 2차 번역 (9월 16일 ~ 10월 1일)

1차 번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2차 번역을 시작했다. 2차 번역 때는 사실상 오역 지적이나 다른 작업은 거의 하지 않고 문장 다듬기에만 전념했다. 오역은 3차에서 깊게 살펴볼 생각이었다. 2차 번역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1차 번역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1차 번역의 결과물은 정말 형편없는 품질이었다.

3) 3차 번역 (10월 1일 ~ 10월 6일)

마지막으로 3차 번역이다. 3차 번역에서는 2차에서 거의 신경 쓰지 못한 오역에 대한 검사를 깊게 진행했다. 예상대로 오역은 매우 많이 발견 되었다. 정말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해야 번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3차 번역 기간에 멕시코 문화에 대한 공부도 꽤 되었다. 원문에 나오는 멕시코 문화 고유의 단어들은 꼭 인터넷으로 찾아봐야만 제대로 된 뜻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키백과 등을 이용해서 고유의 뜻을 찾고, 번역문에 옮길 때에는 보통 고유 명사로 표기하고 각주를 달아 의미를 적었다. 기간은 가장 짧았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시기인 것 같다. 원래 4차 번역까지 가져가 보려고 했으나, 작품 전시까지 시간상의 여유가 모자라서 심혈을 기울인 3차 번역으로 모든 번역과정을 마무리 했다. 이 기간에는 정말 온종일 남는 시간을 여기에 쏟아 부었던 것 같다. 특히나 어려웠던 건 기존에 한국어 번역본이 존재하지 않는 'Introduction'(들어가는 말, 소개 글)이었다. 내가 번역을 해 놓고도 이게 과연 동등한 등가인지 장시간 고뇌해야했다. 번역이란 정말 뛰어난 두뇌와 많은 시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5. 전문가 인터뷰

1) 전문가 섭외

담당교사 수진쌤의 추천으로 예전에 제천간디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셨던 오피션 선생님, 일명 필쌤을 섭외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인터뷰와 함께 원문과의 대조를 통한 전체적인 번역문의 평가까지 부탁드리려고 했으나, 현재 성미산학교라는 곳에서 교사 일을 하고 계셔서 그 정도의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10월 10일 열린 수요일을 이용해 서울에 있는 성미산학교에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

2) 인터뷰

아침에 학교에서 출발해서 점심시간에 만나 뵈었다. 한눈에 보아도 할 일이 많아 보이셨는데 내가 먼 곳에서 왔다고 하며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다. 아래는 필쌤의 자기소개이다.

오필선

200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제천 간디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2017년부터 성미산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전공은 영어교육, 교육활동에 힘을 보태고자 교육인 양육에 관한 책들을 틈틈이 번역하고 있다. 지금까지 번역, 출판한 책은 교육관련 서적 『수상한 학교』(2010), 『길들여지는 아이들』(2014), 『홈 그라운드』(2016), 『아이를 망친다는 말에 겁먹지 마세요』(2017)으로 총 4권이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오필선’ 검색 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인터뷰 내용이다. ‘문’은 나의 질문이고, ‘답’은 필썸의 답변이다.

문:

‘번역’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또는 그에 대한 신념이나 철학이 있으신가요?

답:

번역은 탐정일과 비슷한 작업이다. 번역자가 원문의 모든 내용을 완벽히 파악하고 번역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번역이란 원문의 문맥을 파악해야하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요소를 덧붙여야하는 일도 생기며, 절대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번역가가 원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문을 만든다면 독자들 역시 그 번역문을 이해할 수가 없다. 때문에 탐정과 같은 느낌으로 원문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파사 주인 같은 일이기도하다. 우선 창작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옮기려는 언어권에 관습이나 문화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옮기는 것은 좋지만, 창작을 해서는 안 된다. 읽기 쉽게 옮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자의 해설을 두드러지지 않게 삽입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보름내지 한 달까지도 모르는 뜻을 찾아보는 일도 생긴다. 그런 과정 후에 주석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다. 독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요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발명가와는 다르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가가 하지 않은 말을 번역가가 창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경계해야할 부분이다.

문:

번역은 크게 볼 때 직역과 의역. 두 종류가 대표적인데 혹시 더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답:

번역이라는 것은 직역도 아니고 의역도 아니다. 직역은 번역투, 원문에 충실하게, 원문을 해치지 않고 말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고, 의역은 읽기 쉽게 번역가가 요소

들을 집어넣는 것이다. 일단 번역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영어능력이 50%라면 나머지 50%는 우리말에 대한 이해다. 우리말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한다. 전공 도서 같은 것들의 번역본이 읽기 어려운 이유는 보통 번역가의 우리말 공부 부족인 경우가 가장 흔하다. 보통 그런 전문 서적은 그 분야의 학자나 교수들이 작업하는데 전문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우리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따라서 읽기 어려운 글이 나온다. 본인도 우리말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말의 구조, 등등 기초적인 공부를 하였다. 그런 공부 과정 없이 번역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전문 분야의 서적을 번역가가 번역을 하고 상세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감수 받는 것도 좋다.

문:

번역을 언제 처음 접하고 시작하게 되셨나요? 번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답:

계기는 아까 언급한대로 2002년에 대안학교 교사를 시작했을 때는 대안학교들의 초창기라서 교육 기반이나 기초가 확실하지 않았다. 대안교육 운동에 기여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게 번역으로 이어졌다. 처음 번역을 한 것은 2014년이다.

번역을 하더라도 원서를 읽는 것에 재미를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은 전공이 영어교육이라 영문 서적 읽기에 대한 습관을 들였다. 그러다가 우연히 2002,3년쯤에 처음으로 영문소설을 읽었다. 해리포터시리즈와, 다빈치코드, 반지의 제왕 같은 베스트셀러들이었다. 그런 재미있는 책들 중심으로 읽으니 원서 읽기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전공이 영어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해야 했다. 그래서 영어책을 계속 읽게 되었고, 책 전체에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고 번역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보게 되었다. 번역에 앞서 우리말도 함께 공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에 첫 번역본을 내었다. 장희숙 선생님의 민들레 출판사에서 ‘길들여지는 아이들’을 출판했다. 어린이집 등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다.

문:

혹시 번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이 뭐가 있으신가요?

답:

큰 사건사고는 없고 늘 조심하는 것은 오역이다. 작가의 글을 잘못 파악해서 엉뚱한 번역을 하지는 않을까 항상 조심하고 있다. 가령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마주하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원어민들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문맥을 파악한 다음 글을 쓴다. 언젠가 다빈치 코드 사건이 있었다. 번역 계에서는 나름 유명한 사건이다. 예전에 다빈치코드의 첫 정식 한국어 번역본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었다.

영어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라니까 영어도 배울겸 우리말 번역본과 원서 대조를 해가며 읽었는데 상당양의 오역이 드러났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었던 그 번역본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번역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책이 베스트셀러보다는 좀 일반적인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보통 베스트셀러에는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니 오역이 드러나기 쉽기 때문이다. 본인은 교육 분야의 번역을 다룬다. 보통 그런 교육서적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힘들고, 오역이 잘 검출되지 않는다. 혹시나 본인의 서적에 오역이 존재한다면 그저 드러나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문:

번역을 하시면서 생긴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조언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

아직까지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 굳이 따지자면 어려운 문장, 이해가 안 되는 문장에 직면했을 때 외국인들에게 묻는 정도이다. 너희 나이는 아직 영어를 배워나가고, 현실에서 재미있게 접해야할 때인데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면 번역은 이번 논문이 끝날 때까지만 다루고, 영어를 유창하게 다룰 수 있을 때 다시 번역계로 왔으면 한다. 영문 해석을 한다 던지 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통 번역까지 온다면 재미있는 글 읽기가 힘들다. 읽기에서의 유창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긴 분량의 텍스트를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데, 해석이나 번역으로 다가가다 보면 지겹고, 일로서 다가오기 쉽다. 무엇보다 재미가 중요할 것이다.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측이다. 긴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사전을 찾지 않는 것이다. 문맥을 짐작해가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마치 탐정과 같은 것이다. 본인도 모르는 단어가 많지만 웬만하면 추측을 해가며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재미를 위한 읽기를 할 때 사전을 일일이 찾게 되면 쉽게 지친다.

문:

소통이 가능한 언어가 몇 개나 되시나요?

답:

그냥 영어와 한국어다.

문:

영어를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배우셨나요? 현재의 영어 능력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답:

본인의 능력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읽기는 좀 되는데 말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인 소

통 정도만 가능하다. 본인 세대에 한계일 수도 있다. 본인 세대는 일반학교에서 문법, 또는 암기 위주로 배워서 대화를 유창하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드물다. 첫 영어공부는 일반학교에서 영어 과목으로 배운 것이고, 대학에서 영문학을 배웠다. 따로 외국에 유학경험은 없다.

여기까지 인터뷰 내용이다. 다른 방면에서 도움을 받은 것도 있는데, 바로 오역지적이다.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번역한 문단이 3개정도 있어서 필썸에게 영어 원문과 함께 보여드렸다. 예상대로 3개 모두 오역인 것 같았다. 앞뒤 문맥을 알지 못하시는데도 꼼꼼하게 살펴보며 지적해주셨다. 아래에 오역으로 밝혀진 3개의 문단의 원문과, 기존 번역버전, 그리고 수정버전을 첨부하겠다.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 바뀐 부분이다.

1번 문단

원문:

Her father calls every week to say, "*Mija*, when are you coming home?" What does her mother say about all this? She puts her hands on her hips and boasts, "She gets it from me." When the father is in the room, the mother just shrugs and says, "What can I do?" The mother doesn't object. She knows what it is to live a life filled with regrets, and she doesn't want her daughter to live that life too. She always supported the daughter's projects, so long as She went to school.

기존버전:

아빠는 매주 내게 전화를 걸었다. “애야. 언제쯤 집에 돌아오는 거니?” 우리 엄마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냐고? 나는 엄마의 골반에 두 손을 얹고 아빠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 “엄마는 내 편이이에요.” 아빠가 엄마를 설득하려고 해보았지만, 엄마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하고 말했을 뿐이었다. 내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 엄마는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딸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았다. 내가 학교에만 다닌다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 돼 주었다.

수정버전:

아빠는 매주 내게 전화를 걸었다. “애야. 언제쯤 집에 돌아오는 거니?” 우리 엄마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냐고? 엄마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말했다. “난 그 애 편이이에요.” 아빠와 한 방에 있을 때 엄마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하고 말할 뿐이었다. 내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 엄마

는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딸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았다. 내가 학교에만 다닌다면 엄마는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었다.¹⁶⁾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정확한 의미로 풀어주셔서 쉽게 깨우치고 수정할 수 있었다.

2번 문단

원문:

The woman I once wrote the first three stories of *house* in one weekend at Iowa. But because I wasn't in the fiction workshop, they wouldn't count toward my MFA thesis. I didn't argue; my thesis advisor reminded me too much of my father. I worked on these little stories on the side for comfort when I wasn't writing poetry for credit.

기존버전:

‘망고 스트리트의 집’의 처음 세 가지 이야기는 주말에 아이오와에서 썼다. 하지만 소설 워크숍에는 가지 않았다. 워크숍에서 개인 활동을 아무리 해봤자 내 석사학위 논문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못마땅하기는 했지만 별로 격하게 항의하지는 않았다. 내 논문 고문은 아빠와 정말 닮은 사람이었다. 어쨌든 나는 그런 신용을 위해 쓰는 글은 전혀 쓰고 싶지 않았다.

수정버전:

‘망고 스트리트의 집’의 처음 세 가지 이야기는 주말에 아이오와에서 썼다. 하지만 소설 워크숍에는 가지 않았다. 워크숍에서 개인 활동을 아무리 해봤자 내 석사학위 논문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못마땅하기는 했지만 별로 격하게 항의하지는 않았다. 내 논문 고문은 아빠와 정말 닮은 사람이었다. 어쨌든 나는 그런 신용을 위해 쓰는 글을 쓰지 않을 때에는 꾸준히 짤막한 이야기들을 썼다.¹⁷⁾

이 부분도 약간의 오역이 있었던 것 같다. 최대한 원문의 가치를 따르도록 수정했다.

3번 문단

16) 나의 번역본 『망고 스트리트의 집』 - 들어가는 말 3페이지

17) 나의 번역본 『망고 스트리트의 집』 - 들어가는 말 4페이지

원문:

I couldn't trust my own voice, Norma. People saw a little girl when they looked at me and heard a little girl's voice when I spoke. Because I was unsure of my own adult voice and often censored myself, I made up another voice, Esperanza's, to be my voice and ask the things I needed answer to myself - "Which way?" I didn't know exactly, but I knew which routes I didn't want to take - Sally, Rafaela, Ruthie - women whose lives were white crosses on the roadside.

기존버전:

노마. 나는 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할 때 마치 어린 여자아이가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했죠. 나의 목소리는 성숙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항상 그걸 신경 써야 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소리를 내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에스페란사의 목소리였죠. 내 목소리와 에스페란사의 목소리 사이에서 고민하던 나는 결국 나의 진짜 목소리를 버리는 것은 내가 쓰고 있는 글 속 샬리, 라파엘라, 루시 같은 인물들을 무덤 속으로 파 넣는 꼴이라는 것을 알았죠. 늦게나마 깨달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수정버전:

노마. 나는 나의 목소리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할 때 마치 어린 여자아이가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했죠. 나의 목소리는 불안전했고, 때문에 항상 그걸 신경 써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냈어요. 바로 에스페란사의 목소리였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나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어요. 확실히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불행한 캐릭터 샬리, 라파엘라, 루시처럼 살게 되는지 알고 있었고, 그녀들에 의해 생긴 길가의 하얀 십자가²⁾의 일부가 되지 않았죠.¹⁸⁾

2) 주로 미국 도로에 사고 다발지역에서 볼 수 있다. 사고가 잦으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쓰인다. 위에서 쓰인 의미는 작가 자신이 만들어낸 불행한 캐릭터 샬리, 라파엘라, 루시의 인생을 '사고'로 묘사하고, 자신은 그 캐릭터들처럼 사고, 즉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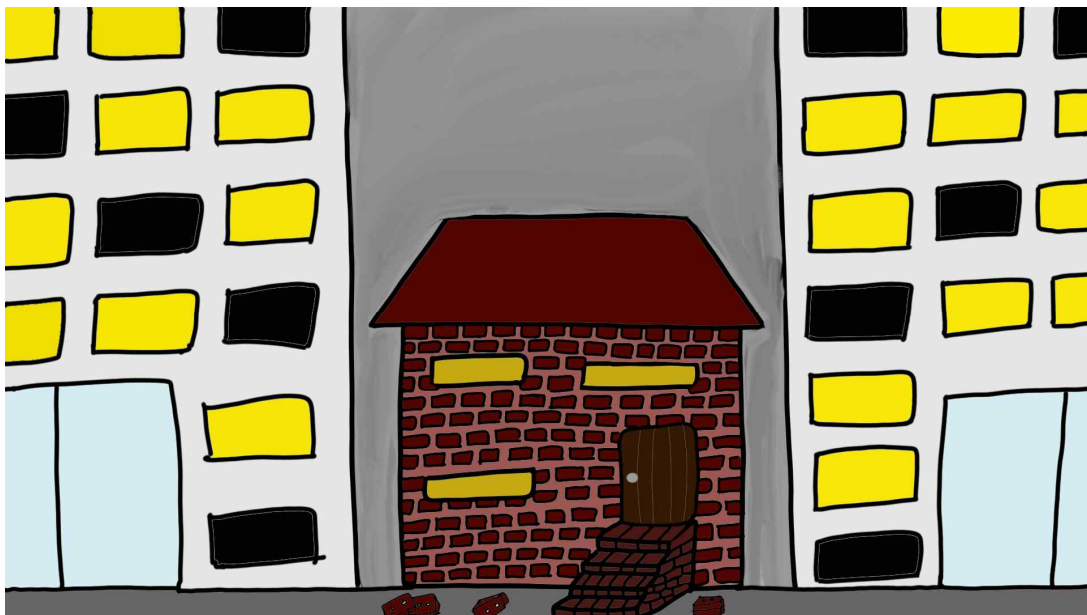
이 부분은 필썸께서 오역인 것 같다고 말만하셨지 확실한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하셨는데 학교에 돌아왔을 때 정호쌤에게 도움을 받았다.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던 '하얀 십자가'의 의미를 찾아주셨다.

18) 나의 번역본 『망고 스트리트의 집』 - 들어가는 말 7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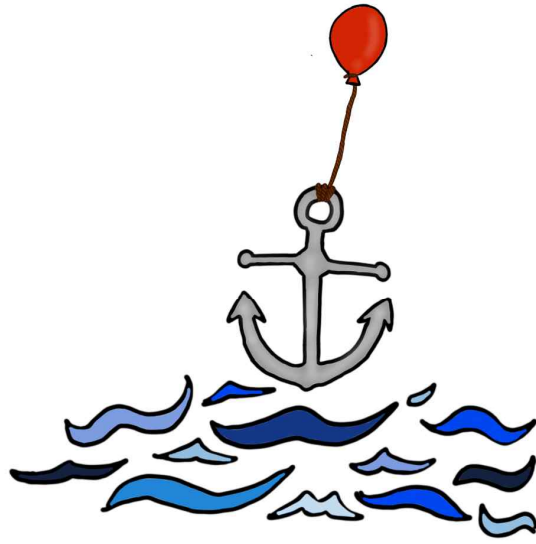
필쌈은 그 외에도 전체적인 번역본을 쭉 훑어보시더니 각주를 좀 줄일 것을 추천해주셨고, 번역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칭찬해주셨다.

6.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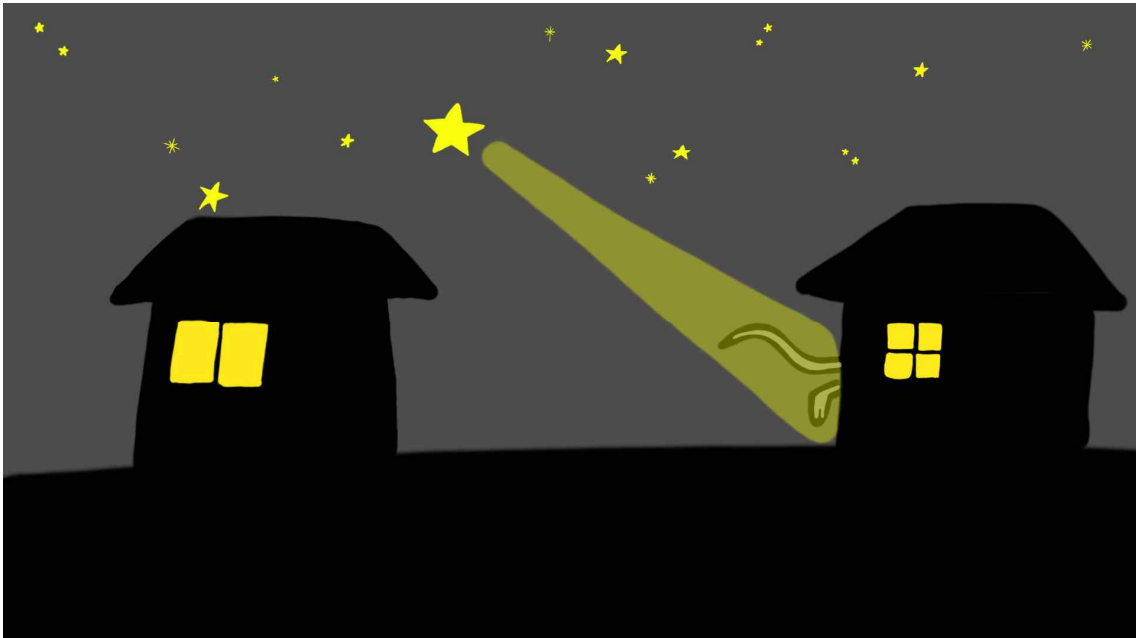
기존 정식 번역본과의 차별화를 위해 선택한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삽화이다. 작품에 새로운 요소도 추가하고 읽는 재미도 더하기 위해 삽화를 첨가했다. 처음에는 내가 직접 삽화까지 작업할 가능성도 생각해 보았지만, 번역작업이나 본문작성과 병행하기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런 분야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따로 삽화가를 섭외했다. 처음에는 미리강 선생님에게 기숙사 사감 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부탁해달라고 요청해놓았었는데 다음날인 10월 8일에 아예 모든 삽화를 전체 작업해 줄 사람을 한명 주선해 주셨다. 바로 2학년 안희 학생이다. 안희 학생의 그림들을 보니 내 마음에도 들고, 내 작품에 알맞을 것 같았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섭외하여 내 작품에 들어갈 삽화 요청서를 전달했다. 내가 생각해놓은 그림들을 구체화시켜 상세하게 설명해놓은 요청서였다. 일단 ‘망고 스트리트의 작별인사’에 첨부될 삽화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삽화에 인물은 그려 넣지 않도록 부탁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소설책의 장점중 하나가 바로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상상해 나가는 재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들어가는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삽화는 풍경이나 사물 위주로 부탁했다. 그리고 5일 후인 10월 13일에 총 8개의 삽화를 전달받았다. 요청한 내용 그대로 마음에 드는 삽화를 받았다. 작품에 들어가게 된 삽화 최종 본을 아래에 첨부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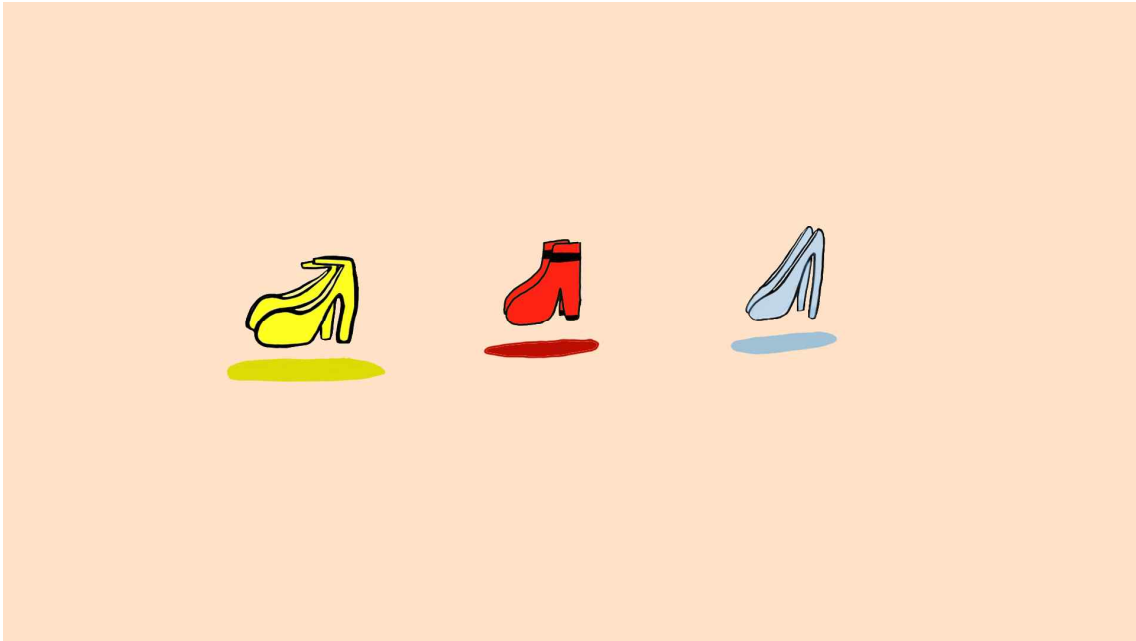
<그림 1> - ‘망고 스트리트의 집’ 에피소드 (2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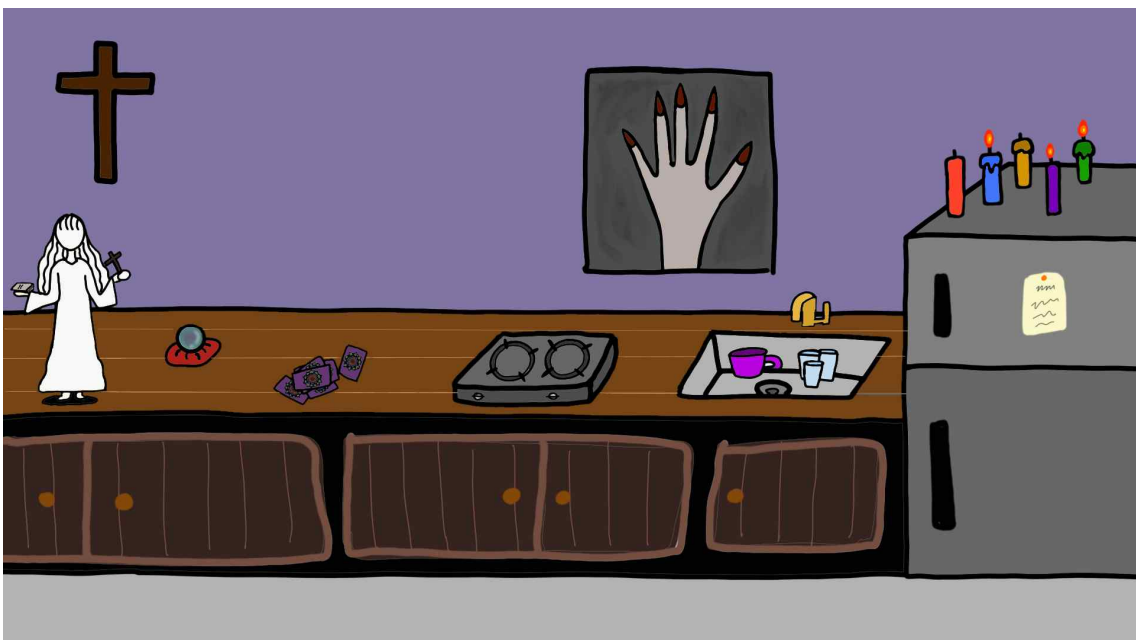
<그림 2> -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에피소드 (4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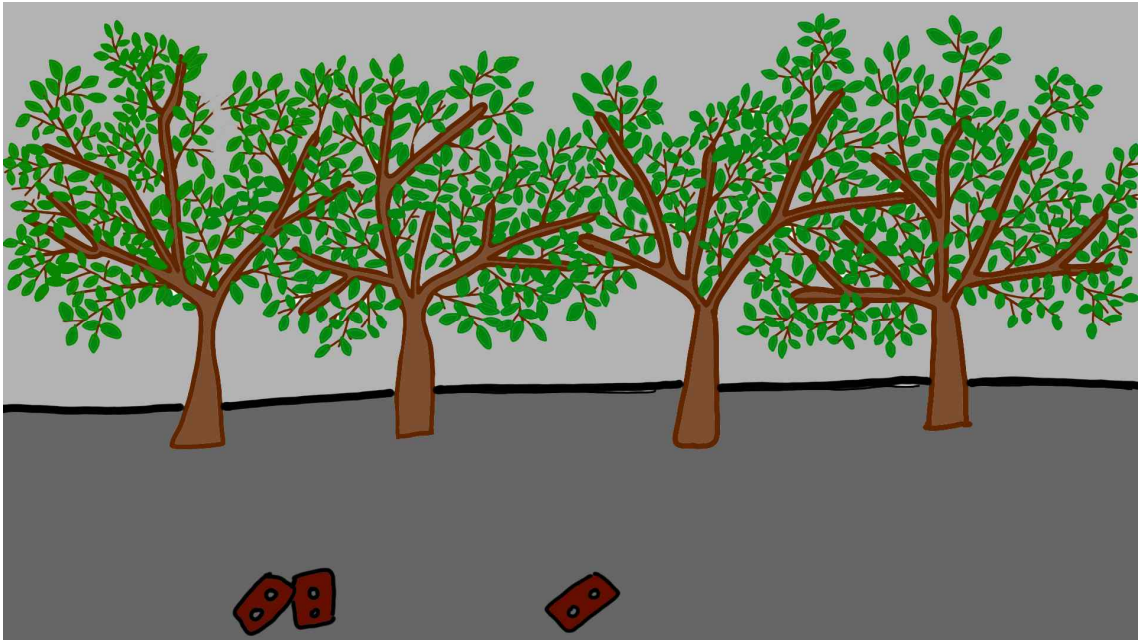
<그림 3> - '앨리시어, 쥐를 보다' 에피소드 (15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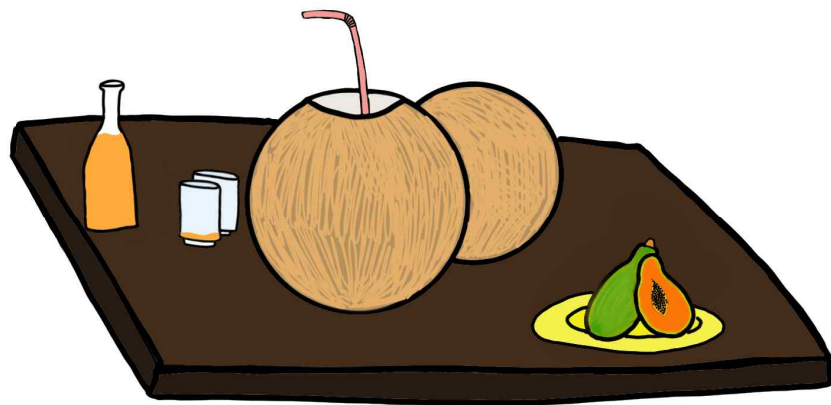
<그림 4> - '발이 작은 가족' 에피소드 (20페이지)



<그림 8 > - '엘레니타와 카드, 손바닥, 물' 에피소드 (32페이지)



<그림 6> - '가느다란 나무 네그루' 에피소드 (38페이지)



<그림 7> - '라파엘라의 화요일' 에피소드 (41페이지)



<그림 8> - '망고 스트리트의 작별인사' 에피소드 (58페이지)

7. 평가

1) 전문가 평가

막바지에 전문가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고민하다가 도움을 좀 받고자 병곤쌤을 찾아갔더니 바로 전문가 한분을 주선해주셨다. 전문 번역가 이병렬 선생님이었다. 아래는 이병렬 선생님의 프로필이다.

1963년에 태어나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시사영어사 월간지 시사영어연구 편집장, 안그래픽스 편집주간을 거쳐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리커넥션』, 『예수는 결혼하지 않았다』, 『와인의 달인 로버트 몬다비』,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 외 다수가 있다.

번역문 전체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에는 분량 상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번역문에 앞부분 일부를 잘라서 원문과 함께 보내드렸다. 최근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서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어서 내 번역문을 평가해주셨다. 평가 내용은 이러하다.

번역 논문 평가 의견서

망고 스트리트의 집

번역자: 황석연

중학생이 논문 과제로 이 번역물을 완성한 황석연 학생에게 우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멕시코계 미국인 여성작가가 쓴 장편(掌篇) 소설집을 간디학교 남학생이 논문 과제로 선택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으리라 짐작합니다.

번역가로서 이 번역 작업을 평가하면서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지만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꼼꼼히 대조해 읽으면서 원문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이고 우리말 표현 능력은 어느 수준인지 판단하려고 애썼습니다.

전부 다 읽고 판단한 시간이 부족하여 ‘들어가는 말’과 ‘망고 스트리트의 집’을 읽고 평가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원문 파악 능력입니다. 아직은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출발어인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착어인 한국어에서 맥락적으로 오해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온갖 오해와 역측을 하게 됩니다. 상황을 유추하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의미를 재구성해서 자신의 말로 풀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번역이므로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영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공부가 더 필요한 단계입니다.

둘째, 우리말 표현 부분입니다. 영문을 논리적 연결이 잘 안 되는 문장으로 끊어서 번역하다 보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인과 결과, 사건의 전후 관계가 뒤틀리지 않게 순서대로 번역하는 연습을 좀 더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번역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학습하시면 큰 발전이 기대됩니다.

셋째, 가독성 부분입니다. 아직은 번역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가독성이 좋기는 어렵습니다. 번역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문학 작품을 많이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작가를 찾아서 그 작가의 글쓰기 스타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논문 과제로 출판하는 번역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드리지 못하고 너무 야박하게 비판하는 평가서를 드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저의 평가를 약으로 삼아서 재

미있는 작품을 많이 읽으면서 영어 원서가 술술 읽히는 수준의 독해력을 키우고
우리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리말 표현력을 키워서 훌륭한 번역가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7일

평가자: 이병렬

전체적으로 고칠 점들을 지적 받았다. 우선 절대 이병렬 선생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의 미숙했던 부분을 예리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병렬 선
생님의 평가를 보고 계획이 조금 바뀌었다. 이 상태로 바로 책으로 만들기에는 무리
가 있다고 판단하여 책을 만들기 전에 선생님의 조언을 토대로 원문을 파악하고 이해
해 가면서 4차 되고 작업을 거치려고 한다.

2) 간디인 평가

완성된 번역문의 일부분을 1층 복도에 전시하면서 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가독성과 재미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평가 받았다. 총 27개의 평가를 수령했
다. 아래는 설문 결과이다.

1.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이 어떤가요?

마음에 든다 10명 괜찮다 14명 별로다 2명 형편없다 0명

1.2 (별로다, 형편없다를 선택한 분들만) 아래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적어주세
요.

투투 끊기는 듯한 맥락

2.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가요?

그렇다 20명 중간1명 그렇지 못하다 4명

2.1 (그렇지 못 하다는 선택한 분들만) 아래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세
요.

문맥이 어색하다, 이야기가 갑자기 끝나고 갑자기 시작하는 느낌,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 자세한 각주를 원한다.

글이 재미가 있나요?

매우 재밌다 10명 재밌다 10명 그럭저럭 6명 재미없다 1명

간디인 평가에서는 다행히 전체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혹평을 적은 간디인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간디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읽은 것 같아 일단 안심이었다. 간디인 평가를 좋게 받았으니 책을 제작할 발판은 마련된 것 같다.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4차 퇴고 작업을 거쳐서 더 완벽한 번역본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III. 결론

1. 연구의 성과, 한계

이 논문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는 일단 개인적인 성장이다. 영어능력, 독해능력, 번역능력과 우리말 글쓰기능력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되었고, 영어 공부에 대한 호감도 생겼다. 그리고 이병렬 선생님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번 더 퇴고 작업을 거친 번역본을 책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바로 책으로 낼 수 있었다라면 훨씬 편했겠지만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번역본을 바로 책으로 낼 수는 없었다. 기존 출간된 번역본 보다 더 나은 번역본을 만들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평가를 적어준 간디인들 대부분이 읽기 쉽고 재미있다고 적어주어서 한 번 더 퇴고를 거친 다음 바로 책을 제작해도 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책을 내서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고 싶다. 연구의 한계라면 기초 공부의 부족함이었던 것 같다. 기초 공부가 부족했던 탓에 뜻풀이와 번역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최종 완성된 번역본에서도 전체적인 문제 지적을 받았다.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공부를 나름대로 해보았지만 시간상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아쉬움이 남는다.

2. 향후 방향

일단 이병렬 선생님이 적어주신 평가를 바탕으로 퇴고 작업을 실행할 생각이다. 문제가 있는 작품을 바로 책으로 만들기 보다는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퇴고를 거치기로

했다. 평가를 보내주시고 나서 번역문을 어떤 식으로 고치면 좋을지 예문을 보내주셔서 그걸 보고 감을 잡았다. 신중하게 원문을 파악하고 의미를 하나하나 살피가며 이병렬 선생님의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여 더 품질 높은 번역본으로 완성할 생각이다. 본인 부친의 동업자 분이 책 만드는 일에 전문가인데 자기한테 맡겨 보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을 하셔서 흔쾌히 수락했다. 퇴고 작업이 끝나면 번역본을 보내드리려고 한다. 책으로 나온 번역본은 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이다.

논문이 끝나고, 책을 내고 나서는 전문가 필썸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동안 번역에는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한다. 나처럼 영어를 막 배우고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기에는 번역보다는 재미있는 영문 소설 같은 것을 읽는 게 좋다고 하셨다. 어렵고, 힘들고, 계속 사전을 찾아봐야하는 일이 생기면 영어가 일로서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에 재미있고 쉬운 소설 같은 것을 먼저 접할 것을 추천해 주셨다. 그래서 최대한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그런 식으로 줄곧 영어를 접해가다가 원문을 술술 읽을 수 있고,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때 다시 번역의 세계로 돌아와 보려고 한다.

3. 개인 총평

이 논문은 내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다. 정말 오랫동안 이 논문 과정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논문을 쓰면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헤쳐 나가면서 나 자신이 성장했다는 게 느껴져 정말 뿌듯하다. 논문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작업이 번역 작업이다. 번역 작업은 정말 힘들었다. 고민과 고뇌의 연속이었다. 모르는 단어는 또 얼마나 많던지 찾아보고, 또 찾아보았다. 1, 2, 3차 번역을 거쳐서 최종 번역본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생각해보면 현기증이 날 것 같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나는 확실히 성장했다. 논문의 목적 중 하나가 개인적 성장이었는데 영어능력, 독해능력, 번역능력에서 우리말 글쓰기 능력까지 정말 많은 능력이 향상된 것 같다. 나의 번역본이 완벽하지는 못하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고쳐야할 부분들도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 낸 번역본 치고는 이만하면 괜찮게 나온 것 같고, 나의 번역본이 담긴 책을 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매우 뿌듯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다른 언어에 대한 학구욕도 생겨서 앞으로는 영어뿐만 아닌 다른 언어들도 더 탐구하고, 배우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나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오랫동안 여러 세대의 간디인들이 두고두고 완성된 내 책을 재미있게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사의 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꾸준히 격려해준 가족, 항상 흔쾌히 전산실 공적사용을 허락해준 태훈이형과 여러 전장들, 내 논문을 위해 필요 이상의 고생을 하신 수진쌤, 흔쾌히 도움주신 전문가 필쌤과 이병렬 선생님, 작품 평가해준 수많은 간디인들, 힘들게 멋진 삽화 그려준 희, 어떤 이유로든 찾아갈 때마다 뭐든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정호쌤, 전문가 섭외 도와주신 병곤쌤, 열심히 피드백 해준 은정쌤, 책 만들어주시기로 한 임승보 실장님, 작품 평가 설문지에 편지 써준 익명친구, 눈이 침침하면서도 내 본문을 검토해준 한결이형, 도서관에 내 책 등록해주시기로 한 덕래쌤 등 모두 감사합니다!! 수진쌤한테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능률영어교육연구소(2006), 『친절한 영문법 스트레스 없는 영어문법책』, 서울: 능률교육

이향(2014), 『번역이란 무엇인가』, 파주: 살림

조원미(2013), 『번역, 이럴 땐 이렇게 분야별 상황별 주제별 영어 번역 강의』, 서울: 이다새

Cisneros, Sandra(2008), 『THE HOUSE ON MANGO STREET』, 미국: Vintage Books

Cisneros, Sandra(2007), 『망고 스트리트』 권혁 옮김, 서울: 돌출새김

<부록>

논문일지

4.22

오늘까지 계획서를 내야하였다. 어제 새벽까지 계획서를 써서 믿기 힘든 수준으로 힘들고 피곤했다. 수진t가 지도교사 의견도 적어주고 계획서에서 수정하면 좋겠다는 부분도 적어주었다. 4시 반이 논문수업이어서 그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밥 먹고 열심히 작성했다. 수업을 들으며 참고문헌까지 적고 기숙사에서 제목까지 정하여 카페에 올렸다. 이제 ppt만들어야한다. 힘들다. 많이

4.23

어제 계획서를 다 썼다. 오늘은 믿기 힘들 정도로 일정이 꽉 차있고 숨 막히는 하루여서 논문 관련 행위는 한계없다. 내일 ppt만들거다. 인생이 많이 힘들어졌다.

4.24

3.4교시에 ppt를 만들었다. 계획서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수진t에게 미안하다. 갈라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 사과는 했다. 그러나 화가 풀리시지 않아 계획서 발표 때 자기이름을 빼달라고 하셨다. 마음이 많이 무거운 하루였다. 내일이 계획서 발표인데 마음이 너무 착잡하다, 밥도 굶어서 배도 고프다. 내일 받을 질문 세레가 두렵기만 하다.

4.25

결국 발표를 했다. 1,2교시가 발표였는데 상당히 긴장되었다. 강당에서 뭘 한다고 소강당에서 진행했다. 수진t가 조금은 화가 풀리셨는지 그냥 자기이름을 넣어도 된다고 했지만 정호쌤에게 가보니 이미 늦은 것 이었다. 그래서 발표는 가벼운 변명으로 시작했다. 끔찍한 질문폭격은 다행히 별로 안 맞은 듯하다. 피드백은 많이 받았다. 번역을 하려면 우리말도 함께 공부해 보는 게 좋겠다는 것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해 보는 건 어떨겠냐는 것도 있었다. 이제 책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논문에 들어가야겠다.

4.30

또 한번 바쁜 월요일이었다. 논문을 쓰기위해 관련서적을 비는 시간마다 틈틈이 조금씩 읽었다. 그러나 너무나 피곤했기에 보다가 계속 졸고 말았다. 앞으로 잠과도 자주 싸워야 할 것 같다.

5.2

열린 수요일이었다, 아침에 정호쌤이 3학년을 모아서 작품논문의 인정기준(?)에 대해 설명했었다. 수진쌤한테 발표 때 받았던 피드백도 받아왔다. 생각보다 어려운 주제를 잡아버려서 시간을 잘 써야 할 것 같다. 시간낭비만 하다가는 주제 바꾸게 생겼다. 오늘은 3교시와 묵학 내내 책을 읽으며 영문법을 공부했다, 힘들지만 나름 지식은 쌓였다.

5.3

오늘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책만 읽었다. 조금씩 영문법의 지식이 쌓이는 것 같다. 시간분배도 해야겠다.

5.14

가정학습을 다녀왔다. 책부터 모두 읽어야 할 터인데 진도가 안 나가서 초조하다. 책을 조금 읽었다.

5.15

몸이 좀 안 좋아서 조금 늦게 내려왔다. 책을 읽었다. 너무 매일 책을 읽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 논문을 쓰기 전에 지식은 필수적이니까. 영문법이 어려워서 책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

5.16

열린 수요일이어서 좀 각오하고 책을 읽으려 했으나 도서관이 너무 시끄러웠다. 도서관 외에 다른 장소에서 읽으려 해도 너무나 더운 날이었다. 난 차라리 시원하고 시끄러운 도서관을 선택했다. 물론 시끄러워서 집중력이 흐트러져 많이 못 읽었다. 논문을 쓰기위해 다 읽어야 할 책이 많은데.. 영문법 책이 너무 어려워서 막히고 있다. 밤에 기숙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까지 공부방에서 더 읽었다. 목적어에 대해 읽었는데 목적어. 너무 어려웠다. 머리가 아팠다. 논문쓰기엔 너무 더운 날씨다. (진심으로 더워졌다. 많이)

7.1

와 오랜만에 논문 일지구만. 드디어 무빙이 끝나고 학교에 왔다. 이제 내일부터 논문에 몰두 하겠다.

7.2

책을 읽는다. 어려운 영문법 책을 읽다가 아무래도 답답해서 비교적 얇은 번역 이론서를 본다. 거의 다 읽었다. 마찬가지로 어렵기는 하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애초에 책을 좀 꽤 읽고 써야하는 논문이라.. 크흑.. 책 열심히 읽겠다. 월드컵 보고 싶다..

7.4

목학에 책을 좀 읽어서 '번역이란 무엇인가'를 다 읽었다.

꽤나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이론서였다.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영문법을 공부해야한다. 피곤하다..

7.5

오늘은 상당히 더웠다. 반에서 거대한 선풍기를 틀어놓고 영문법 책을 읽으며 가볍게 공부를 했다.

7.6

오늘은 목학에 남아서 영문법 책을 좀 읽었다. 정호쌤과 만나서 논문 현황을 말해주고 피드백을 받았다. 번역할 원서를 좀 빨리 읽는게 좋겠다고 하셨다. 조금 조금해졌다.

7.8

오늘은 1시까지 잤다. 요기를 하고 '번역이란 무엇인가' 의 핵심들을 적어서 정리했다. 논문에 상당한 도움이 될 듯하다. 집에 가고프다..

7.9

오늘은 공식 일정이 꽤 많았다. 4교시에 house on mango street 원서를 잃어 버려서 너무나 심란 했었는데 덕래쌤이 찾아주셨다. 너무 감사했다. 목학에 원서를 읽었다.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덕래쌤이 도와주셨다. 구세주에 가까우시다. 원서 읽기는 나름 재미있다.

7.10

오늘은 오전일과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오후에 좀 잤다. 4교시쯤 일어나서 영문법 책이랑 원서를 좀 읽었다. 원서는 생각보다 상당한 난이도여서 당황스럽다. 읽는데 오래 걸린다. 목학때 원서를 읽다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호쌤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상당히 상세하게 알려주셨다. 감사했다. 오늘 드디어 러시아 4강이다.

7.11

오후에 교실에서 영문법 책을 좀 읽고 목학에 원서를 조금 읽었다. 진도를 서둘러 빼야 할듯하다.

7.12

오늘도 어제와 같다. 오후에 영문법, 목학에 원서이다. 생각보다 진도가 더더서 걱정이 좀 된다. 원서를 빨리 완독 해야겠다ㅠ 곧 방학이다. 방학에 전문가도 만나고 번역작업까지 들어갈 생각인데 확실히 시간이 얼마 없다. 분발할 것을 마음먹겠다.

7.16

방학을 해서 집에 왔다. 일단 방학 동안은 원서 읽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확실한 계획은 아니지만 8월 8일까지 원서를 모두 읽는게 일단의 목표이다. 8월초에 여행이 잡혀있어서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다.

7.19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원서를 읽었다. 보니까 도서관에 망고스트리트 번역본이 있었다. 생각해보니 그걸 놓고 같이 읽으면 원서를 읽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 같았다. 근데 뭔가 내 논문에 있어서 문제가 될 행동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빌려다가 읽었다. 확실히 조금은 수월해졌다.

7.25

원서를 하루에 할당량을 정해놓고 읽으려는데 쉽지 않다. 지금은 29일 여행준비 때문에 신경 쓸 것들이 있어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여행 다녀와서 8일까지 5일동안 뽁세게 좀 해야겠

다.

8.6

심란한 일이다.. 너무 의욕이 없다. 내일은 축농증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간다. 방학동안 전문가 평가도 받아야 되고 할게 많다.

8.7

축농증 수술을 받느라 입원해있는 동안 원서를 좀 읽어볼까 했지만 한쪽팔에 링거를 꽂고 있어서 포기했다. 핸드폰으로 뭐라도 좀 찾아볼걸 그랬다.

8.10

다시 본격적으로 원서를 읽었다. 그나저나 이럴수가.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다니. 사실 원서읽기는 8월8일까지는 마칠 예정이었으나 15일까지로 늘렸다. 그때까지는 기필코 마치고 전문가 인터뷰로 넘어가야겠다. 방학에 뭘 좀 많이 하려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놀았다..

8.11

원서를 읽었다. 힘들다. 답다.

8.12

낮에 원서를 읽었다.. 슬슬 영어가 늘고 있다.

8.13

새벽에 잠이 안와서 또 좀 원서를 읽었다. 일지에 원서 원서 원서만 언급하니 지겹다. 이제 막판이다. 15일에 예정대로 끝낼 수 있을 듯싶다.

8.16

으음.. 슬프지만 전문가 평가를 방학 내에 못 받을듯하다.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약속을 잡을 수가 없을 듯하다. 원서는 때문에 나는 게을러지고 말았다. 아직 원서를 다 못 읽었다. 머리는 논문을 써야만 한다고 외치는데 몸은 따르지 않는다..

8.21

어리석게도 오늘 원서를 다 읽었다. 정말 게으른 방학을 보낸 것 같아 상당히 후회스럽다. 난 대체 왜 그런거지.. 전문가 평가 없이 번역을 시작해도 될지 모르겠다. 방학동안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

8.26

결국 개학을 하여 학교에 왔다. 방학동안 확실히 어리석었던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부터가 중요할 듯하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8.27

전날 밤에 잠을 설치는 바람에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자고 말았다. 그래서 밤에 기숙사에서 본

격적인 번역 작업에 들어가 보았다. 한번 쪽 읽었던 내용이라 나름 순조로웠다.

8.28

오늘은 묵학에 번역을 좀 했다. 일단 1차적으로 직역으로 간단하게 쪽 해보고 2차로 하나 하나 뜯어 고치면서 해볼 생각이다. 오늘 정호쌤이 3학년을 모아서 9월 7일 또는 9월 14일에 논문 세미나를 하는데 원하는 곳에 선착순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난 일단 14일에 들어갔다. 간단한 발표도 해야 되는 모양이라 준비 좀 해야겠다.

8.29

오늘은 하루 종일 꽤나 열심히 했다. 학교에서도 조금의 번역작업과 참고문헌을 읽었고 기숙사에 좀 빠르게 올라와서 쉬다가 수첩에다가 대충 직역해놓은 것들을 한컴 파일로 옮기면서 다듬었다. 상당히 힘들다.

8.30

오늘도 하루 종일 번역을 했다. 묵학에 비가 왔는데 번역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올라갈 때에는 그쳐 있었다. 번역이란게 생각보다 할만하다. 발 번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열심히 해보겠다.

8.31

드디어 주말의 시작이다. 오늘은 저녁 먹고 올라와서 번역을 좀 했다. 진도를 좀 빠르게 쪽 빼고 싶은데 쉽지 않다. 주말에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9.1

오늘은 아점을 기숙사에서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까지 기숙사에 있었다. 그동안 한 2시간은 번역을 한 것 같다. 주말에 놀고 싶은 마음을 억제 하는 게 힘들었다. 간단한 소감이라도 들어보고 싶어서 수진쌤한테 지금까지 한 거를 보내보았다.

9.2

조금 아쉬운 하루였다. 오늘은 아점을 내려가서 먹고 덕산 나가서 저녁에 먹을 라면을 사서 기숙사로 바로 돌아왔다. 그러나 탄 짓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번역은 1시간 정도 한 것 같다. 열심히 하겠다.. 내일은 드디어 공포의 월요일이다. 망했다.

9.3

끔찍하기 짝이 없는 공포의 월요일을 보냈다. 묵학까지 학교에 남아서 번역을 했다. 번역 진짜 겁나 어렵다.

9.4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번역한 걸 수진쌤한테 보여 주었더니 너무 잘했다며 내가 했다는 걸 믿지 않았다.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게다가 선생이 학생을 안 믿다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증명하느라 고생 좀 했지만 그래도 안 믿는 척을 한다. 오늘은 기숙사 간담회가 있어서 번역을 취침에 좀 했다. 15일까지 번역을 다 하기로 했다. 너무 힘들다.

9.5

열린 수요일 이어서 1,2,3교시에 모두 번역을 하고 4교시에는 책임수행 노작을 했다. 너무나 피곤하다. 15일까지 번역을 다 하려면 하루에 3에피소드는 해야 하는데 힘들다. 새벽 2시 반 까지 번역을 했다.;

9.7

오늘은 논문 수업을 들었다. 오늘 애들이 ppt를 만들어서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나도 다음 주에 발표를 해야 해서 끔찍했다. 중간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본문을 안 써서 심란하다. 오늘 집에 왔다. 집에서마저 논문을 겁나 써야한다. 죽겠다. 진짜. 피눈물이 나올 것 같다.

9.9

집에 갔다가 돌아왔다. 취침에 공부방에서 번역 작업을 좀 했다. 많이 피곤하다. 15일까지 할 수 있을지 조금 불안하다.

9.10

어김없이 돌아온 공포의 월요일이었다. 낮 시간 동안은 2교시만이 유일하게 비는 시간이었는데 그마저도 전산실에서 수업을 해서 논문을 못 썼다. 그래서 묵학에 남아서 계속 쓰다가 10시 채워서 기숙사에 올라가고 취침에도 지금 새벽 2시30분까지 하고 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9.11

낮 시간에도 시간이 간간히 남아서 전산실에 쳐 박혀서 번역을 했다. 몸이 거부했다. 묵학에도 역시나 번역만 겁나 하다가 10시를 채워서 올라갔고 당연스럽게 지금 취침에도 3시까지 하고 있다.. 어지럽고 도무지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아서 결국 자란다.

9.12

열린 수요일이어서 그냥 번역을 진짜 주구장창 했다. 그뿐이다. 당연히 몸은 거부했다. 지난날과 똑같다. 10시 채워서 올라오고 취침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2시30분 취침이다. 오늘 원서의 44개 에피소드는 모두 1차 번역을 마쳤다. 이제 남은 건 인트로덕션(소개 글, 들어가는 말) 뿐이다. 15일까지 가능할지 아무래도 좀 걱정이다.

9.13

낮 시간에는 시간이 비지 않았다. 당연히 묵학과 취침을 활용했다. 슬슬 결승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상당히 힘내야할 듯하다.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 심지어 배도 고프다.

9.14

오늘 했으니 하루 남았다. 내일이 넘어가기 전에만 완성하면 된다. 1차 번역일 뿐인데 이 모양으로 힘들다니.. 와.. 하루 남았다. 죽겠다 진짜 뇌가 발효되고 있다.. 진짜.. 하루만 더 힘내겠다! 오늘은 금요일이라 오후부터 자기 전까지 무진장 해댔다.

9.15

이건 뭐.. 'I did it'(해냈어!)이다. 그냥.. 해냈다. 정말 뿌듯했다. 수진쌤한테 순대국도 얻어먹게 되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제 첫걸음 인 것이었다. 맙소사.. 이 기세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야말로 달리고 또 달리겠다. 오늘은 맘 편히 푹 잘 수 있겠다.

9.16

음.. 오늘은 중간발표 준비를 하였다. 조금 느지막히 내려가서 중간발표 ppt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산실에서 한 30분? 정도 2차 번역을 해보았다. 2차 번역으로 들어오니 처음에는 뿌듯하다가 또다시 어마어마한 양에 압도 되고 말았다. 취침에도 역시 2차 번역을 조금 하다가 자른다. 1시다. 모든 걸 게을리 하지 않겠다.

9.17

오늘은 낮에는 점심시간에만 전산실에서 2차 번역을 했다. 묵학에도 조금 했는데 기휘가 자꾸 귀찮게 해서 많이 못했다. 확실히 이런 건 좀 위험하다. 진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내일이 중간발표인데 별로 시감이 안 난다. 왜 인걸까. 아무튼 내일 중간발표도 무사히 끝내고 계속 정진 하련다.

9.18

와우 중간발표가 무사히 끝났다. 질문 폭격이 약간 두려웠는데 거의 뭐 다 막아냈다. 근데 병곤쌤이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질문이나 피드백을 주시던데 나한테만 아무 말도 안 하신 것 같다. 약간 서운했지만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정신승리 해야겠다. 내일까지 에피소드는 모두 2차 번역을 끝내야 할 듯한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조금만 일찍 자겠다. 그래봤자 1시다. 내일 열린 수요일이니 겁나 해야겠다.

9.19

열린 수요일이어서 꽤 많이 진도를 나갔다. 일단 취침시간 초반에 모든 에피소드는 2차 번역을 마쳤다. 하지만 아직 강적 인트로덕션이 남아있다. 그건 진짜 강적이다. 오늘 수진쌤이 밥사주기로 해놓고 까먹었다. 분노가 끓어올랐다. 내일 저녁에 함께 가기로 했다.

9.22

추석 가정학습으로 집에 왔다. 일단 가정학습 기간 중에 할 일은 2차 번역 완성하기, 본문쓰기 정도로 생각 중이다. 부모님한테 글에 대한 간단한 피드백도 받아볼 예정이다.

9.24

확실히 집에 있으니 논문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논문 끝난 후에 가정학습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 2차 번역을 조금씩 하고는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손에 안 잡힌다.

9.26

으.. 역시 집중이 안 된다. 하지만 게임을 켜놓고라도 게임 한판 하고 논문 들어가서 글 몇줄 쓰고 다시 게임 한판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학교 가서 고생 좀 할 듯하다..

9.27

2차 번역의 인트로덕션이 반 넘게 진행 되었다. 가정학습 기간에 본문에는 손을 대기 힘들 것 같다. 본문은 작품 완성 후에 죽도록 써야겠다.

10.1

학교에 돌아왔다. 일단 18일까지는 죽을 각오로 논문에만 집중해야겠다. 일단 2차 번역은 끝났고, 3차 번역이 한창 진행 중이다. 목학시간과 취침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번역을 했다. 매우 힘들지만 여부가 있겠는가. 정말 1차 통과하고 싶다.

10.2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걱정이다. 일단 메모장에 적어놓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나열해 보겠다. 4차번역, 필썸한테 연락해서 시간잡기(전문가 인터뷰를 이분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필썸 인터뷰 할 때 사용할 질문 만들기, 작품 전시하기, 정호썸이나 병곤썸에게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물어볼 짧은 문장 추리기, 미리강방에 삽화 요청하기(수진썸과 의논해서 결정한 건데 미리강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책에 들어갈 삽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다.) 작가의 말 쓰기, 간디인 평가 방법 생각해서 평가 받기, 책 의뢰하기, 본문쓰기 등 18일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 된다. 주제가 너무 어려운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게을렀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논문이란 매우 힘든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10.3

열린 수요일이라 장시간 논문에 몰입했다. 일단 3차 번역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만 한다. 작품 발표가 이틀 남았다. 정말이지 매우 심적으로 혼란스럽다. 논문이란 정말 상당한 시련이었다. 3차 번역이 20%정도 남았다. 하지만 내일은 1,2,3,4교시 모두 일정이 있다. 그야말로 끔찍함 그 자체다. 진짜 너무 끔찍하다. 대체 왜 3학년이 작업장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작업장은 확실히 논문에게 매우 큰 걸림돌이다. 정말장난 아니게 힘들다. 작업장 좀 3학년 안 시켰으면 좋겠다.

10.4

오늘은 최대한 3차 번역을 마쳐보려고 노력했으나 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현재 시각 새벽 3시 19분. 그러나 마치지 못했다. 손이 막 부르르 떨린다. 정신이 혼미하다. 아 그리고 오늘 필썸에게 연락을 했다. 다음 주 수요일, 10월 10일에 뵙기로 했다.

10.5

내일이 작품 전시다. 겨우겨우 꾸역꾸역 전시할 수 있을 정도만 만들어서 냈다. 매우 힘든 여정인 것 만큼은 분명하다. 내일을 위해 오늘은 조금 일찍 자야겠다. 그래봤자 1시다. 본문을 좀 빨리 써야 할 것 같은데 작품이 너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심각하다.

10.6

가을축제의 날이자 논문 작품 전시를 하는 날이었다. 내려가서 아침도 거르고 최종적으로 전시 준비를 가다듬었다. 10시부터 전시가 시작되었고, 작품 설명도 했다. 중요한 것은 평가 및

피드백이었다. 그것을 거의 그대로 간디인 평가에 넣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평가나 피드백을 작성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작품 옆에다 놓았는데 작품 수거 시간에 가보니 생각보다는 적은 양에 평가가 달려있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태이다. 물론 양은 적지만 적지 않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도 있다. 내일은 작품에 추가 될 역자의 말을 좀 써야겠다.

10.8

많은 일이 있었다. 일단 미리강에게 미리강 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삽화를 부탁해달라고 해놓았더니 아예 삽화가를 한명 주선해 주셨다. 바로 안희양이다. 그려놓은 그림을 보니 매우 마음에 들어서 그냥 바로 부탁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두 완성해주겠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다. 그리고 전문가 평가가 너무나 시급했다. 필썸은 간단한 부분만 봐 주실 수 있다고 하셨고, 정호쌤 역시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바쁘신 걸 알면서도 병곤쌤을 찾아갔다. 그랬더니 흔쾌히 전문가 한분을 소개해주시고는 모두 똑딱 해결해 주셨다. 이병렬이라는 분인데 그분에게 내가 번역한 문서와 원문을 보내드렸다. 17일까지 평가를 보내 주신다고 하니 조금 늦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10.9

내일 전문가인 필썸을 만나러간다. 아침에 출발해서 막차로 들어오게 될 것 같다. 오늘은 남은 시간들을 이용해 본문을 채웠다. 본문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아서 매우 다행이다. 조금만 늦었으면 또 새벽 3시까지 난리칠 뻔했다.

10.10

오늘 서울까지 가서 필썸을 만나고 왔다. 준비해간 인터뷰를 만족스럽게 진행했다. 전체적인 글을 훑어보시더니 번역투가 별로 안 보인다고 칭찬해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이동시간이 정말 길었고 만남은 2시간 정도 가졌던 것 같다. 모두 계획대로 되어서 만족스러운 하루였다. 필썸과의 만남은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해놓았다.

10.11

너무나 피곤한 하루였다. 체력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오늘은 본문을 계속 다듬었다. 수진쌤한테도 찾아가 가벼운 조언을 들었다. 그리고 목학 때에 간디인 평가를 위한 전시물과 설문지를 만광에 비치했다. 제발 평가 좀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일 집에 가서 작품도 최종 의뢰를 넣을 생각이다. 논문도 이제 막바지다. 제발 조금만 더 버티자..

10.16

워우. 본문을 거의 완성했다. 결론만 집어넣으면 된다. 며칠 동안 일지를 안 써서 쓸 일들이 좀 쌓였다. 일단 아빠의 동업자 분이신 임실장님이 내 번역본을 책으로 내주겠다고 먼저 제안 하셔서 흔쾌히 수락하고 문서를 보내드렸다. 22일까지 학교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 기대가 된다. 그리고 간디인 평가도 받고 있다. 작품의 일부분을 전시한 다음 설문지 형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내일까지 취합해서 본문에 넣어야겠다. 이제 본문 제출이 이를 남았다. 정말 멀고 험난하고 고달팠던 일정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마무리 진짜 좀 잘하자..! 1차하자!!!!

작품 '망고 스트리트의 집'

The House on Mango Street

망고 스트리트의 집

Sandra Cisneros

산드라 시스네로스

A las Mujeres

To the Women

모든 여성들에게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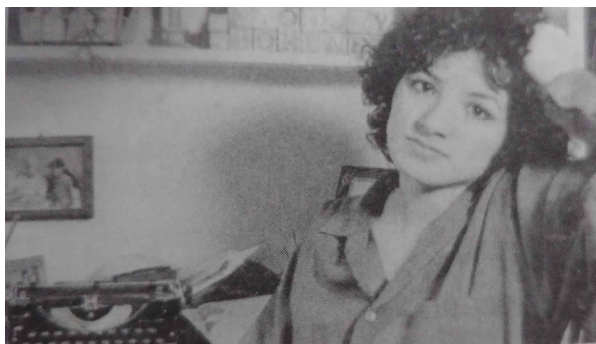
들어가는 말 - 나만의 집

망고 스트리트의 집
머리카락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나의 이름
고양이들의 여왕 캐시
우리의 좋은날
웃음소리
길 아저씨의 가게
메메 올티스
루이와 그 사촌들
마린
낮선 사람들
아이가 너무 많은 바르가스 아줌마
엘리시어, 쥐를 보다.
다리우스와
구름들
조금씩 커져가는 장난
발이 작은 가족
쌀 샌드위치
새들슈즈
엉덩이들
첫 번째 일자리
어둠속에서 힘겹게 일어나는 아빠
태생부터 나쁘다
엘레니타와 카드, 손바닥, 물
제랄도
에드나 아줌마의 딸 루시
남쪽에서 온 얼
사이어
가느다란 나무 네그루
영어 못해요
라파엘라의 화요일
샬리
미네르바는 시를 쓴다.
다락방에 부랑자들
아름다움과 잔인함똑똑한 쿠키

샬리의 이야기
원숭이 정원
빨간 왕관
장미장판
세 자매
앨리시어와 나
나만의 집
망고 스트리트의 작별인사

역자의 말

들어가는 말 - 나만의 집



이 사진 속 젊은 여성이 바로 '망고 스트리트의 집'을 쓸 당시의 나다. 사진 속 장소는 우리 가족이 저 아파트에 살 당시 나의 사무실이었는데 아이들의 침실 한쪽 구석이었다. 그 방은 언제 떨어져 나갔는지 문이 아예 없었고, 그 집에 있던 네모꼴 펜트리(식료품 저장실)보다 아주 조금 넓었다. 그 집에 있어서 한 줄기 빛은 현관문 앞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복도 계단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웃들이 오고 가며 나누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사진 속 나는 저 장소가 내 작업실인양 앉아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글을 쓸 때마다 항상 부엌에 갔다. 안타깝게도 집안에 난방이 되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1980년이였다. 그 아파트가 있던 곳은 시카고 변두리 벅타운이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살던 곳은 정확히 파울리나 거리 1814N번지에 있는 아파트 2층이었다. 그 아파트는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에 학교와 집이 너무 멀어서 이용하던 곳이었다. 한번은 넬슨 알그렌(미국의 작가)이 그 동네를 방랑자처럼 돌아다닌 적이 있다. 솔 벨로(캐나다 태생의 소설가)도 잠깐 그 동네에 살았는데 그의 집 잔디는 그의 앞마당을 넘어 다른 블록까지 뻗어나갔다. 그 동네에서는 항상 썩은 소시지와 콩 통조림, 맥주와 소변의 악취가 풍겼다.

나는 맥스웰 거리의 벼룩시장에서 산 온갖 것들로 사무실을 채웠다. 낡은 타자기, 알파벳 블록 장난감, 아스파라거스 화분, 책을 올려놓는 선반, 일본에서 온 도자기 인형, 갈고리 달린 바구니들, 새장, 벼룩시장 상인들이 직접 그린 그림 등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모았다. 나는 내가 수집한 것들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는 걸 즐겼다. 그 공간에서 그 물건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다. 글을 쓸 때 그것들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다. 가끔은 나를 슬프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따지곤 했다. “우리를 좀 깨끗하게 보관해줘.” “이 게으름뱅이야.” “넌 우리를 닦아줘야 해.”

내 방에 있던 물건들은 모두 신비로웠고, 가끔은 나를 그들만의 연극에 초대하기도 했다. 그 물건들은 나의 내면을 빛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그 덕분인지 그 사무실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으면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다. 나는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 마치 어린 소녀처럼 나의 꿈은 조용하고 아늑한 나만의 집을 갖는 것이었다. 나는 다른 여자들처럼 결혼을 꿈꾸고, 혼수¹⁹⁾를 준비하는 대신에 낡은 물건들을 수집했다. 밀워키 거리에 있는 골동품점을 애용했다. 해진 이불, 금이 간 꽃병, 약간 깨진 접시, 사랑으로 켜지는 전등 등 많은 것들을 거기에서 구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당시에 나는 시카고에 있는 아빠의 집으로 돌아갔다. 킬러 1754N번

19)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련하는 물품.

지였다. 내가 어린 시절에 쓰던 방에는 여전히 2인용 침대가 놓여있었고, 꽃무늬 벽지가 붙어 있었다.

그때 나는 23살이었다. 용기를 내서 아빠에게 학교에 다닐 때처럼 계속 혼자 살고 싶다고 말했다. 아빠는 그 말을 듣더니 나를 꾸짖기 전에 잠시 나이든 수탉 같은 눈으로 나를 지긋이 쳐다봤다. 아빠가 나를 혼냈지만 나는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 예전에도 아빠는 나를 자주 혼냈지만 그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아빠가 가장 아끼는 딸이었다. 아빠가 혼자 사는 것을 바로 허락해 주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시간문제였다.

나는 아빠의 집에 머무는 동안 내가 글을 쓸 때는 조용히 해주고, 사생활을 지켜주고, 혼자 내버려 뒀 달라고 부탁했다.

아빠는 대학교에 너무 오래 다니거나, 미국인 친구가 너무 많아지면 결국 나 자신을 망치는 일이 될 거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 것 같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뭔가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에는 항상 우리 아빠의 언어, 스페인어로 생각했다. 우리 부모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결혼을 해서 가족들과 헤어지기 전까지는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다. 하지만 나는 18살이 되고부터는 뭔가를 생각할 때에도 영어로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었다.

그렇게 아빠와 나는 티격태격하다가 한동안 휴전했다. 나는 일단 바로 혼자 사는 건 아니어도 나의 여섯 오빠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큰오빠와 그의 부인이 사는 호머의 4832W번지 건물 지하로 잠깐 거처를 옮기기로 했다. 하지만 몇 달 후 큰 오빠가 아빠의 명령을 받은 빅 브라더²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오빠의 집에서 스스로 나왔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타고 깨진 창문을 테이프로 매워 놓았으며, 외벽에 새 페인트를 칠한 내가 고교 시절을 지내던 아파트가 보일 때까지 거리를 가로질러 달렸다. 나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집주인 방에 노크하고 세입자로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아빠는 내가 왜 창문에서 찬바람이 뽕뽕 들어오고, 지어진 지 100년도 넘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내 방은 매우 깨끗하고 쾌적했지만, 아파트 현관은 더럽고, 벽에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위층에 살던 여자와 협력해서 정기적으로 아파트 현관에 대결레질을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새 페인트칠이 필요했고, 대결레질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한번은 아빠가 방문했었는데 지저분한 계단을 올라가면서 구시렁거리다가 결국 헛구역질을 했다. 아빠는 방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저것 살펴봤다. 우유 상자 안에 꽂아놓은 수많은 책과, 문 없는 침실에 일본식 이불... “마치 히피²¹⁾ 같군.” 아빠가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밖에서 놀고 있던 이웃집 남자애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다. “마약 중독자들 같군.” 집에서 유일하게 난방이 되는 장소인 부엌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체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을 놔두고 이런 데에 사는 거냐?”

집에 혼자 있을 때 나는 그 방에 높은 천장과 하늘을 담은 창문을 만끽했다. 바닥에는 흰색 카펫을 깔고, 벽에도 회반죽을 발랐다. 네모꼴 펜트리 안에 텅 빈 선반, 문 없는 침실과 타자기가 있는 나의 작업실, 그리고 맨 앞쪽 방의 커다란 창문... 그 창문은 거리의 풍경, 다른 집

20)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 ‘감시자’로 순화시킬 수 있다.

21) 1960년대 미국을 포함한 서양권에서 20~30대 위주로 발생한 하나의 문화풍조로 일반적으로 사회나 정부에 반항하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총칭이다. 대부분 장발차림으로 다녔으며 음악을 매우 좋아했고, 일부는 마약을 즐겼다고 한다.

의 지붕들, 수많은 나무, 혼잡한 케네디 고속도로까지 많은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아파트의 벽돌 담 너머에는 매우 깔끔한 정원이 있었다. 거긴 침상 정원²²⁾이었는데 지금껏 그 정원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정원의 주인인 기타 소리 같은 목소리를 내는 가족뿐이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남부역양이 배어있었다. 그들은 해질 무렵에 애완 원숭이를 우리에게 넣어 정원으로 데리고 나오곤 했다. 원숭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종종 초록색 벤치에 앉아서 웃고 떠들었다. 나는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원숭이를 구한 것인지 궁금해서 내 방 침실 커튼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도 했다.

아빠는 매주 내게 전화를 걸었다. “애야, 언제쯤 집에 돌아오는 거니?” 우리 엄마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고? 엄마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말했다. “난 그 애 편이에요.” 아빠와 한 방에 있을 때 엄마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하고 말할 뿐이었다. 내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 엄마는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딸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았다. 내가 학교에만 다닌다면 엄마는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었다.

엄마는 그 시카고의 집 외벽에 예쁘게 꽃을 그려 놓았다. 엄마는 그 집 텃밭에 토마토와 장미를 심고, 자기 아들의 드럼 세트 위에서 아리아(오페라의 한 방식이다)를 불렀다. 빠른 리듬의 ‘영혼의 기차’라는 곡에 맞춰서 춤도 추었다. 엄마는 여행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부엌의 시럽 선반 옆에 항상 여행 전단을 붙여 놓곤 했다. 엄마는 우리가 어릴 때 매주 도서관에 데리고 다녔다. 콘서트에도 데려가고, 박물관에도 데려갔었다. 옷깃에 단추를 채우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건 펜타곤²³⁾이 아니란다.” 엄마는 학교를 9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항상 나를 팔꿈치로 쿡쿡 찌르면서 “열심히 공부하렴. 행운을 빈다”하고 말했다.

아빠는 내가 TV에 나오는 기상 캐스터가 되거나,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기상 캐스터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기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그런 것보다 살면서 꼭 해봐야겠다고 다짐한 것들이 많았다.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싶었고, 탕고 춤도 배우고 싶었으며, 책도 출판하고 싶었고, 다른 도시에서 살아보고도 싶었다. 국가 예술 기금도 받아보고 싶었고, 오로라도 보고 싶었으며, 거대한 케이크 위에서 뛰어내려 보고 싶었다.

나는 매일 내 방에 천장과 벽을 가만히 응시했다. 어렸을 적에도 분명 내가 자랐던 집에서 그렇게 천장과 벽을 응시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가 회반죽이 발라져 있던 벽에 작은 균열 속에서 사진 몇 장을 발견한 적이 있다. 난 그 사진들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늦은 밤에 부엌에 싸구려 램프 빛 아래에서 종이와 펜을 가지고 호기롭게 글을 썼다. 나는 그 이후 작가처럼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작가처럼 살 수 있는 건지, 글을 잘 쓸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실마리조차 없었다. 그때까지 난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읽어 본 적이 없었고, 로사리오 카스텔라노스나 솔 후안나 이네스 데 라 크루즈, 글로리아 안살두아나 체리 모라가 같은 유명한 작가들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내 느낌이 가는 대로 글을 썼다.

그 후 글을 쓰며 성장한 나는 나 자신을 시인이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문법을 더 배우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아이오와주²⁴⁾에 있는 시인 워크숍에서 처음 시에 대한 흥

22) 주변보다 한단 내려간 낮은 자리에 꾸며 놓은 정원.

23) 미국의 국방부 건물로 거대한 5각형 형태이며 세계에서 가장 수용인원이 많은 건축물이다.

미가 생겼다. 시라는 것은 아이오와에서 배운 대로 카드의 집이자 영감의 탑이었다. 나는 그런 영감들을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소품문(짤막하고 간단한 글) 같은 종류를 쓰기도 했다. 조금씩, 조금씩 나는 시도 쓰고, 글도 썼다. 그때 이미 ‘망고 스트리트의 집’에 대해 구상하고 있었다. 5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건 소설이라기보다는 그저 유리병에 담긴 수많은 단추 같았다. 짤막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든 다음 그 이야기들을 모두 한편으로 이어질 수 있게 엮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그 많은 이야기를 연결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나는 엘레나 포냐스카의 ‘리루스키커스’도 읽어 본 적이 없었고, 어브류 고메스의 ‘캐넥’, 그웬돌린 브룩스의 ‘마우드마르타’, 넬리 캄포벨로의 ‘우리 엄마의 손’ 모두 읽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훨씬 나중에, 더욱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 그 작품들을 접했다.

‘망고 스트리트의 집’의 처음 세 가지 이야기는 주말에 아이오와에서 썼다. 하지만 소설 워크숍에는 가지 않았다. 워크숍에서 개인 활동을 아무리 해봤자 내 석사학위 논문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못마땅하기는 했지만 별로 격하게 항의하지는 않았다. 내 논문 고문은 아빠와 정말 닮은 사람이었다. 어쨌든 나는 그런 신용을 위해 쓰는 글을 쓰지 않을 때에는 꾸준히 짤막한 이야기를 썼다.

나는 내가 쓴 글들을 동료 하르호에게 보여주었다. 하르호는 시 워크숍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다. 데니스 마티스에게도 보여주었다. 데니스는 일리노이주의 어느 작은 도시 출신이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서재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내가 쓰던 것과 같은 짧은 단편 이야기 집이 문학계에서 유행했었다. 데니스는 나에게 그런 스타일의 70년대 일본 소설을 추천해 주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단편 ‘손바닥 소설’이었다. 우리는 오믈렛을 만들어서 저녁을 먹고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하인리히 뵐의 책을 함께 소리 내어 읽었다. 둘 다 괜찮은 작가들이었다. 우리는 그런 모험적인 작가들을 좋아했다. 모든 작가가 유행을 따라갈 때도 그레이스 페일리처럼 곳곳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작가도 있었다. 마음에 드는 작가였다.

데니스는 평생 한 편집자와 어울려 지냈다. 앨리라는 편집자였는데 그는 내가 자신감을 잃었을 때 전화를 걸어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꿈의 호랑이’를 읽고 영감을 받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 갔다. 나는 그 작가를 고등학교에서 처음 접했는데 짧은 이야기들이 엮여있는 방식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손이나 오비도와 비슷했다. 나는 국경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로운 장르의 글을 쓰고 싶었다. 말과 글의 사이, 어른들의 문학과 아이들의 동화 사이, 뉴욕과 상상의 도시 마콘도²⁴⁾ 사이,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존경받는 작가들처럼 되고 싶었다. 만약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매우 부끄러울 것 같았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 말이다. 하늘에 떠 있는 한 무리의 구름처럼... 바쁜 일상생활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틈틈이 위로해줄 수 있는 짤막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긴 이야기를 읽을 시간도 없고, 늘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독자가 책의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바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앞뒤 내용을 몰라도 이해가 가능한 그런 책을 만들고 싶었다. 나는 시처럼 간결하고 유연한 문장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묶어서 독자들이 간편하게 하나씩 읽을 수 있도록,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다른 생각이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결하고

24) 미국 중서부에 있는 주.

25)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100년 동안의 고독’에 나오는 가상의 도시 이름.

나뭇가지들처럼 어디로든 뻗을 수 있는 유연한 문장을 만들었다.

글을 쓰면서 주말에 다른 작가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친구들이나 워크숍 사람들을 내 아파트로 초대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모임을 조성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흑인, 백인, 라틴계 등 인종도 가지각색이었고, 성별도 적당히 섞여 있었다. 우리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예술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함께 '비상 걸린 타코들'이라는 시집을 출판해냈다. 그런 제목이 붙은 이유는 우리가 늘 모여서 24시간을 함께 작업하던 장소가 벨몬트 거리에 있는 타코 집이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밤새 작업했다.

우리 '비상 걸린 타코들'의 공동 작가들은 나의 오빠 키크의 '족제비 갤러리'에서 매월 월간 예술 행사를 열었다. 우리들의 의지와 귀중한 시간을 빼고는 아무런 자본 없이 진행했다. 그토록 열심히 활동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의 불타오르는 의지를 알아주었으면 해서였다.

그 당시 나는 글쓰기만으로는 무난한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일자리를 구했다. 필슨이라는 곳에 있는 학교에 교사로 취직해서 부지런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했다.

아빠가 시카고 시내에 새집을 구하기 전까지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살던 곳은 시카고 남쪽에 구석진 곳이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싼 값에 조그만 집을 하나 구해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가족 수가 많았지만 작은 집에서 비좁게 살았다. 그 동네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지만, 건물주들이나 시에서는 그런 끔찍한 곳을 전혀 개선해 나가지 않았다. 쓰레기 수거도 제때 안 해가고, 건물들의 현관은 무너져버리고, 심지어 건물마다 비상 탈출구도 없었다. 아마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는 일이라도 벌어져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었다. 시에서 그곳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동네인지 조사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딱히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쩌면 정말로 누군가 한 명 사고가 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양일지도 몰랐다. 다음 조사 때도, 그 다음 조사 때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내가 일하던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쫓겨났거나 낙제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었다. 나는 거기서 글을 쓰는 일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에 비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매우 쉽고 편한 일이었다.

나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아기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늘 걱정이었다. 거기에는 우리 아빠도 없었고, 남자친구(그는 전날 밤에 나와 싸우다가 나를 때리고 아침에 집을 나가버렸다)도 없었다. 복도에 득실거리는 불량배 녀석들에게서 아기를 안전하게 지켜낼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 그래도 부모님은 내가 돈을 벌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았다.

예술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이오와에서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곳은 사방에 위험이 깔린 학교였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곳에서 내가 학생들에게 시를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옳았을까? 말콤X의 회고록이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이 바람 앞의 등불 같은 그 애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그런 평균보다 학습 면에서 뒤떨어지는 아이들은 닥터 수스의 책 같은 것을 읽게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내가 그 애들에게 글을 쓰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한 번에 글쓰기를 깨우칠 수 있는 마법의 약이라도 주었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 아이들의 자유로운 영혼을 통제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학생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 나는 새로운 일을 알아보게 되었다. 새롭게 일하게 된 곳은 로저스 공원 북쪽에 있는 나의 모교 로올라 대학이었다. 나는 거기서 카운슬러²⁶⁾와 신입생을 모집하는 역할을 병행했다. 거긴 전에 일하던 학교보다는 정신 건강상 훨씬 나은 곳이었다. 더는 퇴근해서까지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일은 오후 5시에 무조건 끝나는 방식이었고, 자유 시간을 보장받았다. 그래서 나는 퇴근 후에 진짜 작가가 된 기분으로 글을 쓸 수 있었다.

나는 그 대학에서 지금은 없어져 버린 '교육의 기회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그건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기 힘든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나의 철학에도 맞아떨어지는 일 이었고, 나의 예전 일처럼 학생들을 상대하는 것이어서 익숙했다.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내가 가장 눈여겨보던 명석한 학생 한 명이 자퇴를 해버렸다. 나는 매우 충격을 받아서 슬픔과 아쉬움에 잠겨 내 책상 위에 폭 쓰러져서는 '나도 그만둘까...?'하고 고민하기도 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학생들의 이야기로 글을 썼다. 그 수많은 학생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냥 놓칠 수는 없었다. 원하는 만큼 글을 써야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일요일이면 아빠는 저녁을 함께 먹자고 시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연락을 했다. 죄책감을 무릅쓰고서라도 그걸 거절하면 나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집에서 글을 쓸 수 있었지만, 아빠의 말을 무시하는 못된 딸이 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애매하게도 아빠와 저녁을 함께 하더라도 글을 쓰지 못해서 더욱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날 나는 문예 창작회에서 초대장을 받았다. 잔뜩 들떠서 모임 장소로 가보았지만 도착하고 나니 실수한 것 같았다. 그곳에 모인 작가들은 모두 나이 많은 백인 남자들이었다. 나를 초대한 건 레온 포레스트라는 어두운 분위기의 소설을 쓰는 작가였다. 그는 좀 더 많은 여성 작가들을 초대하려고 했지만 다들 여기서 집이 너무 멀어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거기에서 유일한 여성이었고, 그 나이 많은 백인 남자들 사이에서 레온 포레스트와 나만이 유일하게 유색인종이었다.

내가 거기에 초대된 이유는 최근 '망고 인쇄소의 못된 녀석들'이라는 시집을 냈기 때문이었다. 내 시집은 4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었는데 그래 봐도 스테이플러와 손가락들이 올려져 있던 부엌 식탁에서 꽤 오랫동안 열심히 쓴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그곳에 초대된 다른 작가들이 만드는 '진짜 제대로 된 책'이라는 것은 적어도 뉴욕에 커다란 출판사에서 두꺼운 양장본으로 몇십만 부는 찍어내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 자신이 정말 제대로 된 작가인지, 가짜 작가인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온 손님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내가 아이오와 워크숍에 다니기 전에 그곳에 다니던 워크숍 선배였다. 그가 가장 최근에 출판한 책은 할리우드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었다. 그는 매사에 마치 자기가 세상 모든 것의 황제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그날 밤 행사가 끝나자마자 대중교통이 다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버스에 오르려는 순간 그 황제님이 차를 몰고 내 앞에 멈춰 서서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집에 가는 길이 아니었다. 딱 그날 한정으로 상영하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려고 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것은 조금 무서워서 결국 그의 차에 올라탔다. 그저 혼자 가기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 유명한 작가는 스포츠카를 몰았다. 의자에서는 고급가죽 냄새가 났고, 계기판은 비행기의 것을 그대로 축소해놓은 것 같았다. 나도 차가 있었지만 그건 시동도 잘 안 걸렸고, 심지어 악셀레이터 근처에 구멍이 땀 뚫려있어서 비든 눈이든 거침없이 들어쳤다. 그래서 나는 그 차

26) 연구·취직·신상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교사.

를 운전할 때는 꼭 긴 부츠를 신었다.

그 작가는 운전하면서 나한테 계속 귀찮게 뭐라 뭐라 지껄여댔지만 나는 별로 알아듣지도 못했다. 그는 아예 나의 관심 밖에 있었다.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굳이 할 필요도 없었다. 그가 나를 영화관 앞에 내려줄 때까지 무슨 말을 하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의 나는 그래도 상관없을 만큼 젊고 예뻐다.

영화관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나와 영화 볼 것을 기대하고 있던 그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영화를 혼자서 보고 싶어요.” 그가 짜증을 내며 가버려서 매표소까지 걸어가야 했지만 그 영화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곳곳하게 표를 사고 상영관 안으로 들어갔다. 상영관 문이 닫혔을 때 쪽 둘러보니 나만 빼고 모두 2명 이상 함께 온 사람들이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마릴린 먼로(미국의 여배우이자 가수)가 ‘다이아몬드는 여자들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영화의 색감은 정말 멋졌고, 재미난 농담들도 많았으며, 노래 가사도 기발했다. 그 영화의 모든 것은 구식이었지만 그야말로 순수하게 화려했다. 마릴린 먼로는 정말 눈부셨다. 그녀의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모두 그게 실시간 공연이라도 되는 듯 박수갈채를 보냈다. 하지만 그때 가엸은 마릴린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나는 거만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봤어? 혼자 영화 보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아파트의 내 방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한테는 다이아몬드가 없어...’ 나는 흐느껴 울었다. 영화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다이아몬드만을 떠올리며 울어댔다. 나는 그 후 몇 주 동안 계속 울기만 했다. 결국, 그 우울증은 나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버렸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일까? 한동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무엇이든 두려워했던 적이 있다. 어두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나의 차도 두려웠고, 벽에서 나는 으스스한 소리도 두려웠다. 사랑에 빠져서 평생 시카고에 묶여있게 될까 봐 두려웠고, 유명, 물에 빠지는 것, 설치류, 밤이 오는 것도 두려웠고,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와 비행기, 그리고 내 인생 자체도 두려웠고, 혼자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서 아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도 두려웠다.

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망고 스트리트의 집’을 써나갔다. 때로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 속에 등장시키기도 했고, 딱 한 번 만나본 사람들을 대충 기억나는 대로 집어넣기도 했으며, 사람 둘을 뒤섞어서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필슨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나의 수업에 들어온 푸릇푸릇한 학생들을 보면 10여 년 전에 나와 함께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이 생각나곤 했다.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초반에 나는 내 소설에 등장하는 원숭이 정원 같은 곳에서 고철을 주워 집으로 가져가곤 했다. 훔볼트 공원 근처에 캠프벨 거리 1525N번지였다.

나는 글을 쓸 때 종종 자세한 내용은 정해놓지 않고 제목만 정해둔 채 제목에 따라 글을 풀어나가곤 했다. 내 소설 ‘발이 작은 가족’이 바로 그런 예다. 제목을 미리 정해 놓으면 그 제목이 날 뒤에서 탄탄하게 지탱해주어서 이야기의 방향을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다. 또 어떨 때는 첫 문장만 정해놓고 시작하기도 했다. ‘누구나 저 넓은 하늘을 품을 수 있다.’ 같은 문장이 그런 경우였다. 필슨 학교에 다니며 글을 배우던 학생 중 한 명은 내가 해준 이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며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다. 나 역시 그런 좋은 것들은 두고두고

기억해 두었다가 써먹었다. ‘그녀들은 가느다란 거미줄처럼, 8월에 부는 미세한 바람처럼 조용히 망고 스트리트에 왔다’라는 이 문장은 꿈을 꿀 때 얻었다. 가끔은 꿈속에서도 좋은 영감들을 얻곤 했다. 하지만 나쁘고 쓸모없는 생각들도 꿈속에 찾아왔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했다.

영감과 기발한 생각들은 보거나 들었던 무엇에서든 파생되어 머릿속을 빙빙 돌다가 마침내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것들은 마치 자아가 있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가 글을 쓸 때 이야기를 마쳐야 할 부분을 알아서 짚어주었기 때문이다. 가끔 내가 급속도로 진행해서 이야기를 마쳐야 할 부분을 지나쳐버리면 깜짝 놀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그것들은 매우 완고했지만, 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것들이 말하길 문장에 끝부분은 마리아치²⁷⁾ 노래의 마지막 음표처럼 마음을 울리는 전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존 인물이었다.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여기저기서 만난 사람들을 토대로 했다. 각각 다른 여러 명의 사람을 하나로 묶기도 했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상상 속에서 창조하기도 했다. 그렇게 열심히 인물 창조를 위해 머리를 굴리다 보니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사람들도 다시 떠오르곤 했다.

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이어 붙였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이야기의 틀을 잡을 수 있었다. 게다가 실생활에서 겪었던 일들이니까 더욱 명확하고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노마 알라콘과 재회했다. 그녀는 지금도 나와 가장 가까운 출판계 사람이며, 나의 오랜 친구다. 그녀는 우연히 내 아파트 옆을 지나다가 조용한 방 하나를 발견했다. 낡은 타자기들과 수많은 책, 그리고 일본 인형들이 잔뜩 있으며 창문으로 바깥 거리와 하늘이 한눈에 보이는 나의 방이었다. 그녀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내 방을 훑어보았다. 뭔가를 찾는 듯이 네모꼴 펜트리와 옷장까지 훑어보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조용히 물었다. “여기에 사세요? 혼자서요?” 나는 그렇다고 했다. “그렇군요...” 그녀는 한번 끄었다가 말했다. “집을 나오셨나요? 어떻게 혼자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때 노마와 재회한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만나서 수다를 떨었다. 나는 노마에게 만날 때마다 나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두려웠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문제없어요. 나는 집을 나와 대학원에도 진학하고, 해외여행도 다녔어요. 스스로 돈을 벌며 생활하고 있죠.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글을 쓰며 버텼어요. 당신이 출판하는 ‘셋째 여성 언론’ 1호 표지에 제 사진이 들어갔던 게 기억나네요.

나는 최종적으로 작가가 될 준비가 되었을 때 몇 년 동안 전문 작가들과 함께 지내며 수습 생활을 했어요. 나의 에이전트와 함께 말이예요. 저의 아빠는 항상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제발 결혼하라고 하셨죠. 심지어 눈을 감으시기 직전까지 그 소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 보다는 에이전트 수잔 버그홀스가 훨씬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Ha llamado susan?**(수잔에게 전화 왔니?) 아빠는 매일 내게 물었죠. 수잔은 항상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내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나한테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에이전트는 여성 작가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친구죠.

노마, 나는 나의 목소리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할 때 마치 어린 여자아

27) 전통 복장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는 멕시코풍 악단이다.

이가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했죠. 나의 목소리는 불안전했고, 때문에 항상 그걸 신경 써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냈어요. 바로 에스페란사의 목소리였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나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어요. 확실히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불행한 캐릭터 셸리, 라파엘라, 루시처럼 살게 되는지 알고 있었고, 그녀들에 의해 생긴 길가의 하얀 십자가²⁸⁾의 일부가 되지 않았죠.

내가 아이오와에서 글을 쓸 때, 나와 동료들은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혼자만 간직하곤 했어요. 나는 심지어 본받을만한 전문작가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당신이 제게 수많은 멕시코 작가들을 소개해주기 전까지는 말이예요. 당신의 소개로 솔 후안나 데 라 크루즈, 엘레나 포냐토스카, 엘레나 가를로, 로사리오 카스텔라노스 같은 전문 작가들을 알게 된 후로 나는 새로운 글쓰기 방법들도 알게 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었죠. 당신은 우리에게 미국에서 활동하는 라틴계 작가들은 정말 많이 소개해 주었어요. 체리 모라가, 글로리아 안살두아, 마요리 알고신, 카를라 트릴로, 디아나 솔리스, 산드라 마리아 에스티베스, 다이엔 고메즈, 살리마 리베라, 마르가리타 로페즈, 베아트리스 베디키안, 카르멘 아브리고, 데니스 차베, 엘레나 비라몬테스까지... 우리는 그런 전문 작가들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우리 작품의 진가를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시카고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하지만 시카고는 나를 순순히 놓아주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나의 고향이고 싶은 모양이다. 그동안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들로는 아직 글을 쓰지 않았다. 그 많은 일을 글로 쓴다면 정말 길고 긴 이야기가 될 것이다.

결국, 나는 샌안토니오²⁹⁾에 새 일자리를 얻었을 때 시카고를 떠났다. 나는 예전에도 시카고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갔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떠나게 된 것이다. 내가 그때 시카고에 돌아갔던 이유는싼 집값에 이끌렸기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값싸고 낡은 집에서 사는 것을 예술가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시카고로 돌아갔을 때 나는 첫 번째 ‘나만의 집’을 품었다. 하지만 한번 대규모 공사를 거친 100년도 더 된 집이었다. 나는 그 집을 온통 자홍색으로 칠했다. 그리고 나는 2년 전에 샌안토니오의 내가 살던 집 뒤쪽에 커다란 빌딩을 세웠다. 그 빌딩은 나의 멕시코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설계하고 만들었다.

오늘도 이 빌딩 사무실에서 글을 쓴다. 바깥에는 멕시코 메리골드³⁰⁾를 심어 놓았고, 실내에는 보라색 나팔꽃 화분을 가져다 놓았다. 테라스에서는 항상 바람이 노크를 하며 지나가고, 저 너머 기차길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온다. 근처에 이웃집이 없는 이 외로운 빌딩에게는 기차 소리가 든든한 이웃이다.

샌안토니오 강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은 보통 내 빌딩 뒤쪽의 유명한 강변 산책로로 많이 들어온다. 관광객들에게 거의 필수코스나 다름없다. 아마 강물이 마르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빌딩의 테라스에서는 샌안토니오 강의 전경이 보이는데 아름답게 S자로 구불구불 흐른다. 강 위에는 새하얀 학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다니고, 수많은 생명이 그 강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28) 주로 미국 도로의 사고 다발지역에서 볼 수 있다. 사고가 잦으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쓰인다. 위에서 쓰인 의미는 작가 자신이 만들어낸 불행한 캐릭터 셸리, 라파엘라, 루시의 인생을 ‘사고’로 묘사하고, 자신은 그 캐릭터들처럼 사고, 즉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뜻이다.

29)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도시로 멕시코와 매우 가깝다.

30) 황금색을 띄는 풍성한 꽃이다.

있다. 오리, 라쿤, 주머니쥐, 스컹크, 나비, 매, 거북이, 뱀, 올빼미들까지... 나는 나의 정원 안에도 동물들을 키운다. 개들과 고양이들, 그리고 내가 특히 아끼는 사랑스러운 앵무새까지 말이다. 이것이 더없이 행복한 나만의 집이다.

엄마. 당신은 지난 2007년 10월 26일에 저를 만나러 시카고에서 내려오셨죠. 사실 당신은 오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엄마는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리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고집을 좀 부렸어요. 이 빌딩을 지은 건 저와 엄마 둘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엄마가 이 빌딩을 꼭 한 번이라도 봐주셨으면 했어요.

당신은 몇 년 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물으셨죠. “도대체 언제 빌딩과 사무실을 지을 거니? 방송에서 이사벨 아옌데³¹⁾의 사무실을 봤다. 커다란 책상도 있고 정말 넓었어.” 엄마는 속상해하셨죠. 제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줄곧 부엌에서 글을 썼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저의 빌딩 옥상에서 함께 샌안토니오 강을 바라보고 있네요. 제가 글을 쓰는 방에도 함께 가보았고, 제가 일을 하는 사무실에도 함께 들어가 보았죠. 그 서재를 지나 쪽 올라가면 있는 발코니가 딸린 사무실 말이에요. 한 번에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보여 드려서 당신은 조금 쉬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저는 지치지 않고 설명을 계속했어요. 테라스에 나와서 빌딩 반대편의 비에 녹슬고 햇빛에 표백되어버린 버려진 공업단지를 설명했죠. “비록 버려진 공업단지지만 묘한 매력이 있어요. 오래된 조각들처럼 말이에요.” 그리고는 당신이 숨을 좀 고르자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계속 즐겁게 설명했죠.

“전 이 빌딩 안에서도 특히 옥상에 있는 멕시코식 나선형 계단이 자랑스러워요. 전 언제나 멕시코풍의 집을 꿈꿔왔는데 이 빌딩은 저에게 정말 환상적인 집이죠.” 저는 끝없이 수다를 떨었어요. “스페인어는 정말 멋지고 느낌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달팽이라는 뜻의 **un caracol**은 정말이지 입에 착착 감기고 너무 마음에 든다니까요.” 엄마가 제 사무실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하시던 말이 기억나네요. “너의 사무실은 네가 사진으로 보여준 것보다 훨씬 크구나!” 저는 사실 엄마가 저의 사무실을 이사벨 아옌데의 것과 비교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죠. “이 도서관에나 있을 법한 커튼은 어디에서 났어? 돈을 꽤 많이 쓴 것 같은데? 이 방은 정말 훌륭해!!” 찌르레기 무리처럼 매끄러운 목소리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우리는 옥상에 요가 매트를 깔고 함께 요가도 했죠. 비스듬히 요가자세를 취하는 우리에게 태양이 매섭게 내리쬐던 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해 질 녘에 테라스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을 함께 마셨죠. 당신의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 저의 빌딩을 위해... 하늘은 점점 새빨간 매화의 색깔로 물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구름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하늘이 밤하늘로 바뀌고 별들이 하나하나 수줍게 나타나더군요. 우리는 다리를 쭉 뻗고 예전처럼 함께 누웠죠. 그리고 보니 우린 함께 있을 때는 항상 함께 잤었군요. 처음에는 침대가 하나뿐이어서 그랬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부터는 엄마가 저와 최대한 가까이 있고 싶어 하셨죠. 그때 저는 정말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내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가족들 모두 여기서 모이면 어떨까요?” 제가 잔뜩 들떠서 물었지만, 엄마는 그저 예전과는 달라진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죠. “어차피 맨날 보는 사람들이잖아.”

달이 메스키티나무 한가운데에 떠올랐어요. 테라스 창문 아래 선반에 올라와서 우리를 놀라

31) 칠레의 작가다. 잡지사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다가 베네수엘라에서 망명 생활을 한 뒤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게 하네요. 영롱한 후광과 함께 떠오른 보름달이에요. 이제는 보름달을 볼 때마다 당신이 생각날 것 같아요.

눈을 감은 당신은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저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은 가만히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렴. 행운을 빈다.” 엄마가 있었기에 제 사무실이 생길 수 있었고, 엄마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제 삶 그 자체세요.

저도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했죠. “엄마도 행운을 빌어요.”

나의 엄마 엘비라 콜데로 시스네로스(1929. 7. 11 ~ 2007. 11.1)에게
2008. 5. 26 텍사스주 카사 소치틀 샌안토니오 데 벅사르에서

망고 스트리트의 집

우리가 예전부터 망고 스트리트에 살았던 건 아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루미스의 아파트 3층에 살았고, 그전에는 킬러에, 또 그전에는 파울리나에 살았다. 그 이전으로는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전부터 줄곧 이사가 잦았다는 것이다. 이사를 한번 할 때마다 가족이 한 명씩 붙어났던 것 같다. 망고 스트리트에 올 때 우리 가족은 여섯 명이였다. 엄마, 아빠, 카를로스, 키키, 내 여동생 네니, 그리고 나.

망고 스트리트에 있는 우리 집은 온전히 우리 것이다. 누구에게도 월세를 낼 필요가 없고, 아래층 사람들과 마당을 공유할 필요도 없다. 너무 시끄럽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없고, 아래층에서 집주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천장을 두드릴 일도 없다. 하지만 이 집은 우리가 정말 원했던 집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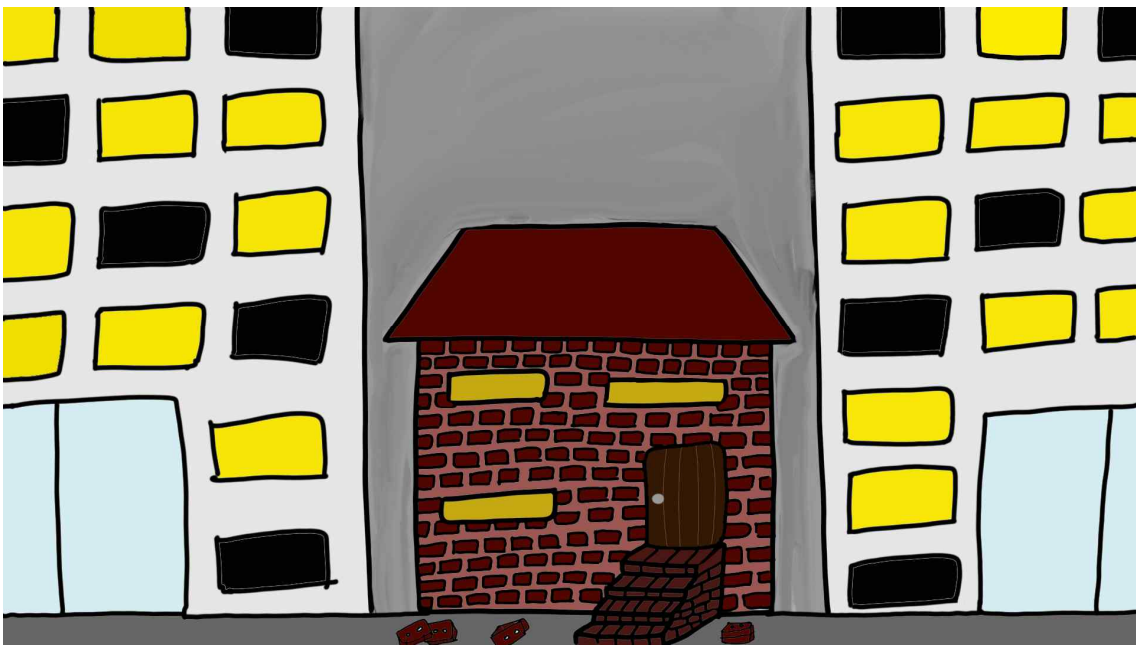
우리는 이전에 살던 루미스 아파트에서 재빨리 이사 왔다. 그곳은 배수관이 고장 났었는데 집주인은 집이 너무 오래됐다는 이유로 고치지 않았다. 우리는 옆집 욕실을 빌려 써야 했고, 물을 쓰려면 빈 우유 통으로 날라서 써야 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우리는 새집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곳이 시내의 반대편인 망고 스트리트일지라도 말이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엄마와 아빠가 항상 하던 말이 있다. 언젠간 우리는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 갈 거라고. 온전한 우리 소유의 진짜 우리 집으로. 거기 가면 더는 해마다 이사 할 필요도 없고 배수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였다. 집안에는 멋진 계단과 TV, 지하실이 있고 욕실이 3개나 있어서 씻기 전에 자기가 씻는다는 걸 알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했다. 깔끔하고 새하얀 집 주위에는 사방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커다란 정원에서는 울타리 없이 잔디가 마음껏 자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아빠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의 계획이었고, 엄마의 꿈이었다. 우리가 자러 가기 전에 엄마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지만 망고 스트리트의 집은 그 이야기 속 집과 전혀 달랐다. 현관 앞 조그만 계단은 볼품 없는 빨간 벽돌 계단이고, 창문들은 너무 작아서 웅크리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벽돌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으며 현관문은 항상 퐁퐁 부어있어서 세계 밀어야 열린다. 앞마당이랄 것도 없고, 집 앞에는 그저 시에서 마지못해 심어놓은 네 그루의 느릅나무만 있었다. 뒤뜰에는 조그만 차고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 차가 없다. 안 그래도 작은 우리 집은 양옆에 있는 큰 빌딩 때문에 더욱 작아 보였다. 안에 있는 계단도 우리가 원하던 멋진 것이 아닌 평범한 것이었고, 욕실도 하나이며 방이 모자라서 모두가 둘씩 짝지어서 함께 자야 했다. 엄마와 아빠, 카를로스와 키키, 나와 네니.

루미스에 살 때 한번은, 우리 학교의 수녀님이 우리 집 앞을 지나다가 집 앞에서 놀고 있던 나와 마주친 적이 있다. 그때 그 집 아래층의 빨래방은 이틀 전에 도둑한테 털려서 판자들을 여기저기에 대어 놓고는 애처롭게도 사업을 잃지 않기 위해 나무 팻말에 '영업 중' 이라고 써서 세워놓았었다. "어디에 사니?" 수녀님이 내게 물었다. "저기요." 나는 3층을 가리켰다. "저기에 산다고?" "네 저기요." 나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올려다보았다. 건물 외벽에 페인트는 지저분하게 벗겨지고, 창문에는 아빠가 못으로 박아놓은 나무 막대들이 있었다. 그건 우리가 창문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였다. "저기에 살아?" 그녀의 한마디는 내 마음을 더없이 공허하게 만들었다. "네 저기요. 저기 살아요." 나는 끄덕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집이 필요하다. 누군가 사는 곳을 물었을 때 자랑스럽게 가리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집. 하지만 여긴 아니다. 망고 스트리트의 집은 나를 창피하게 만들 뿐이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당분간

만이야.” 거기에 아빠가 덧붙였다. “일시적인 거지.” 하지만 우리 집안 사정을 고려해보면 그리 순조로워 보이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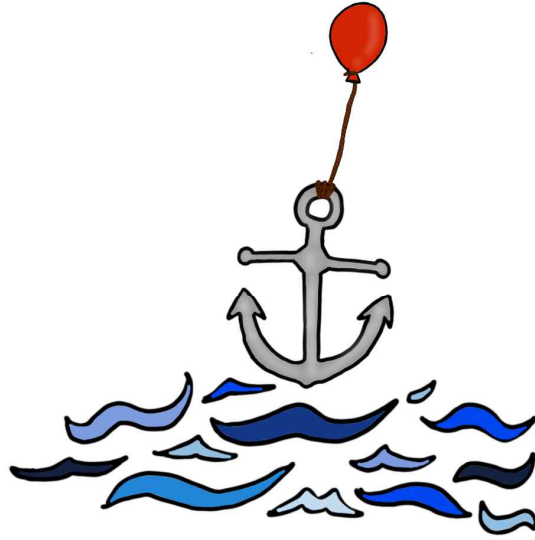
머리카락

우리 가족은 모두 각각 색다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먼저 아빠의 머리카락은 마치 빗자루같이 까칠하고 늘 붕 떠있다. 내 머리카락은 게으르고 말을 잘 안 듣는다. 항상 흐물거려서 편이나 머리띠를 할 수가 없다. 카를로스의 머리카락은 굵직하고 쪽 뺨은 생머리다. 빗질 할 필요도 없다. 네니의 머리는 매우 미끄러워서 손으로 잡으면 스르륵 빠져나가고, 막내 키키의 머리는 마치 다른 동물의 털 같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머리. 엄마의 머리는 마치 작은 장미꽃 같다. 작은 사탕과도 같고 곱슬곱슬하고 예쁘다. 매일매일 가지런히 편을 꼳고 다니기 때문이다. 엄마의 품에 안기면 달콤하고 따뜻한 빵 굽는 냄새와 함께 더없는 편안함이 느껴진다. 엄마는 내가 자기 전에 침대 한쪽에 내가 누울 곳을 만들어주는데 침대에 누우면 엄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엄마 곁에서 잘 때면 항상 밖에선 빗소리가 들리고, 안에선 아빠의 코고는 소리가 들린다. 빗소리와 코 고는 소리. 그리고 엄마의 머리에서 나는 빵 굽는 냄새까지 한데 어우러진다.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은 서로 확연히 다른 세상에 산다. 남자애들은 개들만의 우주가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내 남동생들로 예를 들어보자면 개들은 집에 있을 때는 나와 네니한테 지치지 않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집 밖에서는 여자애들에게 말은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카를로스 와 키키는 서로 좋은 친구지만 나와 네니는 아니다. 네니는 내 친구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다. 갠 그저 내 동생이고 그 애를 친구로 삼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애가 내 동생이니 어쩔 수 없이 함께 다니는 거고, 그래서 가끔 친구처럼 보일 뿐이다. 네니가 바르가스네 애들과 놀까 봐 걱정스럽다. 개네들과 놀면 아마 개네처럼 구제불능 사고뭉치로 변할 것이다. 귀찮지만 네니가 나보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난 항상 그 애를 책임져야만 한다.

언젠간 나는 내게 딱 맞는 최고의 맞춤형 친구를 만날 것이다. 내 비밀도 모두 털어놓을 수 있고, 뒤늦은 설명 없이도 내 농담을 모두 이해해주는 그런 친구... 그때까지 나는 그저 빨간 풍선이다. 닳아 매달린 빨간 풍선...



나의 이름

내 이름은 영어로 희망이라는 뜻이다. 슬픔, 기다림이라는 뜻도 있다. 어감이 뭔가 숫자 9와 느낌이 비슷하며 멍하고 흐리멍덩하게 들린다. 우리 아빠가 일요일 아침에 면도할 때 틀어놓는 흐느껴 우는 듯한 멕시코 음악과도 느낌이 비슷하다. 이 이름은 원래 내 할머니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 것이 되었다. 할머니도 나처럼 말의 해에 태어난 여자였다. 중국에서는 말의 해에 태어난 여자는 불길하다고 믿는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중국 사람들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멕시코 사람들처럼 여자들이 드세지고 강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나는 할머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다. 야생마 같은 여자. 드세고 용감했던 그녀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녀를 자루에 넣어 거꾸로 매달아 데려왔다고 한다. 마치 상들리에처럼 말이다. 그저 그것뿐이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 그 때문에 할머니는 평생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창가에 앉아 서글프게 턱을 괴고 창밖을 내다보며 보냈다. 다른 수많은 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아쉬웠을까? 슬펐을까? '에스페란사.' 나는 할머니의 이름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할머니의 그 창가 자리만큼은 물려받고 싶지 않다. 학교에 가면 애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놀려댄다. 텅텅 거리는 깡통소리 같다며, 입천장이 까졌을 때 내는 소리 같다며 놀려댄다. 하지만 스페인어 발음으로 부를 때 내 이름은 부드럽고 그나마 어감이 괜찮은 편이다. 내 동생의 이름 막달레나에 비하면 그렇다. 개는 집에 오면 네니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나는 항상 에스페란사다. 난 언젠간 새로운 이름을 만들 것이다. 더욱 나다운 이름으로.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게 할 것이다. 음... 리산드라나 마리차... 제제 더 X. 그래, 제제 더 X가 좋겠다.

고양이들의 여왕 캐시

저 건너편에 사는 캐시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프랑스 여왕의 아주 멀고 먼 사촌이야.” 그 애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옆 건물에 꼬마들 괴롭히기 좋아하는 조 알지? 그 사람 조심해.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야.”

“길모퉁이 가게의 베니와 블랑카 부부는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야. 사탕 카운터에 기대지 말라며 잔소리할 때 빼고는.”

“저 길 건너에 사는 지저분한 자매... 재들은 마치 생쥐 같아! 뭐... 개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지?”

“너희 집 옆에 있는 커다란 빌딩은 에드나 아줌마 것이었는데 그녀의 오빠가 팔아버렸어. 그들의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그러지 못했지. 거세게 반대하셨거든. ‘안 돼. 그러지 마라. 팔아선 안 돼.’ 아줌마의 오빠는 안 팔겠다고 대답해놓고 그들의 엄마가 눈을 감자마자 팔아버렸어.”

“나와 엘리시어는 예전에는 서로 꽤 친했지만 엘리시어가 대학에 간 뒤로는 서먹해졌어.”

캐시는 고양이들의 여왕이다. 엄청나게 많은 고양이를 집에서 기르고 있다. 새끼고양이, 덩치 큰 고양이, 비쩍 마른 고양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는 고양이, 도넛처럼 몸을 말고 낮잠 자는 고양이,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 캐시의 집은 마치 고양이들의 천국 같다.

“넌 친구가 필요해. 좋아.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만이야. 그때 이사를 가거든.” 그녀는 내가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 점점 이웃들 수준이 후져진다고 했다.

캐시는 자기 아빠가 어느 날 프랑스로 날아가서 멀고 먼 그들의 사촌을 찾아 커다란 집을 상속받을 거라고 했다. 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사 올 때마다 망고 스트리트 북쪽으로 밀려가야만 한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좋은날

어떤 여자애가 자기 언니와 함께 다가오더니 말했다. “나한테 5달러만 주면 친구가 되어줄게. 영원히!” 5달러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다. 캐시가 화요일에 이사를 가버리면 같이 놀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5달러 5달러라... 자매는 티토라는 애한테 자전거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 15달러가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10달러를 모았고, 이제 5달러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딱 5달러면 돼!” “개네들이랑 말 섞지 마.” 캐시가 어느샌가 다가와서는 내 앞을 가로막았다. “모르겠어? 재네한테서 나는 냄새는 마치 지저분한 빗자루 냄새 같아!” 캐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개들이 마음에 들었다. 개네들이 입은 옷은 구겨지고 낡았으며 양말도 없이 신발을 신어서 발목은 빨갛게 부어있었지만 난 개네가 좋았다. 특히 옷을 때 이빨을 모두 드러내고 웃는 큰애가 마음에 들었다. 비록 모든 걸 자기 동생에게 맡기고 뒤로 물러나 있었지만 말이다. 작은애가 말했다. “5달러야. 진짜 딱 5달러.” 캐시가 내 팔을 잡아끌었지만 나는 결국 캐시를 영원히 화나게 하고 말았다.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뛰어가 5달러를 챙겼다. 저금해놓은 내 3달러와 네니의 돈 2달러였다. 네니는 집에 없었지만, 개라면 자전거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할게 확실했고, 2달러 정도는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 예상대로 캐시는 가고 없었다. 하지만 나에겐 두 명의 새 친구와 자전거가 생겼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애들이 자기소개를 했다. “나는 루시야. 이쪽은 내 동생 레이첼이고.” “난 저 언니 동생 레이첼이야. 넌 누구야?” 그 순간 나는 내 이름이 카산드라나 알렉시스, 마리차 같은 폼나는 이름이었으면 했다. 하지만 개네는 내 이름 에스페란사를 듣고도 비웃지 않았다. 루시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텍사스에서 왔어. 애는 여기서 태어났고 나는 텍사스에서 태어났지.” “애가 아니고 애겠지.” “아냐. 난 텍사스에서 왔어.” 그 애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았다. 레이첼이 말했다. “이 자전거는 우리 셋 모두의 거야.” 레이첼은 자기가 제일 먼저 타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오늘은 내 거고, 내일은 언니 거,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네 거야.” 하지만 모두 새로 생긴 자전거를 당장 타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모두의 것으로 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돌아가면서 타기로 했다. 나는 그 애들에게 네니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일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았다. 레이첼은 루

시를 눈이 돌아갈 듯이 짜려봤다. 자기가 가장 먼저 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셋이 함께 올라타기로 했다. 딱히 안 될 것도 없지 않은가? 다리가 긴 루시가 페달을 밟고, 내가 의자 뒤쪽에 타고, 몸집이 작은 레이첼은 핸들 위에 올라타도 충분했다. 처음에는 자전거 바퀴가 스파게티 면 마냥 후들후들 흔들렸지만 조금만 지나니까 익숙해져서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었다.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렸다. 암울한 분위기가 감도는 내 집을 지나치고, 길모퉁이 베니 아저씨의 식료품점도 지나고, 살짝 위험하게 거리를 가로지르며 빨래방, 고물상, 약국을 지나고, 수많은 창문과 차를 가로지르며 여기저기를 달리다가 망고 스트리트로 돌아왔다. 수많은 버스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한 뚱뚱한 여자가 길을 건너다 우리에게 말했다. “너희들 정말 거슬리는구나. 그렇게 길을 다 차지하고 다니면 어떡하니?” 그러자 레이첼이 얄밉게 반아쳤다. “아줌마도 만만치 않게 차지하는데요?”

망고 스트리트에서 아래로, 아래로. 우리는 비틀거리며 계속 나아갔다.

웃음소리

네니와 나는 한 번에 딱 봤을 때 자매로 보이지 않는다. 루시와 레이첼은 둘 다 커다란 막대사탕 같은 입술을 하고 있어서 딱 봐도 둘이 자매인 걸 알 수 있다. 나와 네니도 공통점이 있긴 있는데 바로 웃음소리다. 아이스크림 벨처럼 징징 울리는 루시와 레이첼의 가족과는 달리 우리의 웃음소리는 갑작스럽고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마치 접시 더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 같다. 하지만 웃음소리 외에는 닮은 점을 전혀 모르겠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집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집을 보다 보니 왠지 옛날에 멕시코에서 본 적 있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집은 틀림없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전에 봤던 집인 것 같았다. 내가 말했다. “저기 봐. 저 집은 멕시코풍의 집이야.” 루시와 레이첼은 미친 거 아니냐는 듯이 쳐다봤다. 그러나 개들이 비웃기 전에 네니가 덧붙였다. “맞아. 나도 정확히 그 생각하고 있었어. 저건 멕시코풍의 집이야.”

길 아저씨의 가게

그 가게는 나이 많은 아저씨가 운영하는 가구점이다. 우리는 거기서 한번 냉장고를 산 적이 있다. 그리고 카를로스³²⁾가 잡지 한 상자를 고작 1달러에 팔아버린 적도 있다. 가게 안은 더럽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으며 지저분한 창문으로 한줄기 햇빛이 들어왔다. 돈을 가지고 뭔가를 사러 오지 않는 이상 그 아저씨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래서 가게 안은 늘 어두웠고, 나와 네니는 어둠 속에서 온갖 것들을 구경했다. 책상들은 다리를 거꾸로 들고 뒤집혀있고, 각 벽면의 구석에는 냉장고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으며 더러워진 소파를 때리면 상당한 양의 먼지가 피어올랐다. 어쩌면 작동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TV도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 모든 물건이 높은 곳에 진열되어 있고 통로가 매우 좁아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었다. 주인아저씨는 말수가 적고, 금테 안경을 쓴 흑인인데 가끔 너무 오랫동안 구경하고 있으면 어둠 속에서 금테 안경 하나가 스르륵 나타나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곤 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네니는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그 애는 그 아저씨한테 뭐든 사사건건 물어보았다. 나는 거기서 10센트짜리 자유의 여신상 모형을 샀을 때 빼고는 그 아저씨와 대화를 해 본 적이 없다.

네니가 뭔가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뭐예요?” “그건 음악상자란다.” 아저씨가 대답했다. 나는 바로 돌아봤다. 음악상자라기에 뭔가 예쁜 꽃이 그려져 있고, 안에서 발레리나가 나와서 춤추는 그런 건 줄 알았다. 그러나 아저씨가 가리키는 곳에는 있는 것은 큰 놋쇠 음반이 들어가 있는 낡은 나무상자였다. 하지만 아저씨가 그것을 작동시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마치 그가 갑자기 백만 마리의 나방을 가게에 풀어놓은 것 같은 소리가 나며 수많은 백조의 그림자들이 벽에 비쳤다. 뿔속에서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듯한 소리도 났다. 그리고 마림바³²⁾의 재미있는 소리와 금속 머리빗을 손가락으로 튕길 때 나는 소리도 났다.

나는 속으로는 매우 흥미로웠지만, 겉으로는 별 관심도 없다는 듯이 돌아섰다. 네니가 나를 유치하게 볼까 봐 그랬다. 하지만 네니는 나보다 훨씬 유치한 녀석이었다. 그새 얼마냐고 물으며 손가락 네 개를 주머니에 넣고 돈을 꺼내고 있었다. 하지만 주인아저씨는 상자의 뚜껑을

32) 실로폰의 일종으로 나무 건반들이 피아노처럼 배열되어 있으며 울림이 좋은 타악기다.

답으며 말했다. “이건 파는 물건이 아니란다.”

메메 올티스

캐시네가 이사를 가서 비어있던 집에 메메 올티스라는 남자애가 새로 이사 왔다. 그 애의 진짜 이름은 메메가 아니고 후안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애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그 애는 메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애의 엄마만 빼면 모두가 그 애를 메메라고 부른다. 메메는 갈색 눈을 가진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 양치기 개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영어, 하나는 스페인어다. 상당히 덩치 큰 녀석이어서 마치 성인 남자가 개 가족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 같았다. 뛰는 모습은 자기 주인하고 똑같았다. 마치 끈이 풀린 신발 같은 꼴로 사방을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메메가 이사 온 집은 캐시의 아빠가 지은 것인데 집 전체가 나무로 되어 있고, 각 층이 모두 불규칙하게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다. 어떤 층은 위로 기울어 있고 어떤 층은 아래로... 옷장은 어디에도 없고, 현관문 앞에 있는 12단의 계단 역시 불규칙하게 솟아있어 마치 빠드렁니 같았다(캐시는 빗물이 잘 빠지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라고 우겼다). 메메의 엄마가 현관에서 메메를 부르면 메메는 그 12단의 나무 계단을 두 칸씩 또는 세 칸씩 불규칙하게 뛰어 올라갔다. 그럴 때마다 그 이름이 두 개인 개도 똑같이 따라갔다.

그 집 뒤편에는 지저분한 마당이 있는데 차고의 잔해인 판자들이 더럽게 기름때에 찌들어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 뒷마당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대한 나무였다. 굵은 가지들을 잔뜩 달고 있으며 높은 곳에서는 다람쥐 가족도 살고 있었다. 사방에 있는 이웃집들의 지붕은 모두 A자로 생겼으며 검은 타르³³⁾가 칠해져 있고, 흙통³⁴⁾이 달려있었는데 공놀이를 하다가 거기 공이 들어가면 절대 다시 꺼내올 수가 없었다. 나무 밑에서는 그 이름이 두 개인 개가 허구한 날 허공에 대고 포효하곤 했다. 거기는 거의 마을의 끝자락인데 거기서 우리 집을 바라보면 아주 조그맣게 보였으며 마치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 같았다.

우리는 그 커다란 나무에서 타잔 점핑 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결국 메메가 우승했다. 두 팔이 부러져가면서 말이다.

33) 유기물을 분해 증류시켜 만드는 검은 액체다. 대부분 석탄으로 만들어진다.

34) 지붕에 빗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용도로 쓰는 장치다.

루이와 그 사촌들

메메의 집 지하에는 사람들이 살만한 괜찮은 지하실이 있었는데 메메의 엄마가 거기를 조금 손봐서 푸에르토리코³⁵⁾에서 온 루이네 가족에게 방을 내주었다. 루이는 그 집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나머지는 다 꼬맹이 수준의 여자애들이었다. 루이는 내 남동생들의 절친한 친구이고, 사촌이 두 명 있으며, 옷을 절대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법이 없는 남자애다.

루이의 여자 사촌은 우리보다 나이가 좀 많다. 그녀는 루이의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왔는데 가족은 푸에르토리코에 있다고 한다. 이름은 마린인지 마리스인지 뭐 그런 비슷한 거였다. 그녀는 매일 검은 나일론 양말을 신고, 진하게 화장을 하고는 화장품점에 가서 일한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루이의 여동생들을 돌보느라 마음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일 현관문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춰가며 똑같은 노래를 부른다. ‘사과야. 복숭아야. 호박 파~이야. 너도 사랑에 빠졌구나. 나도 그렇단다.’

루이의 또 다른 사촌은 우리에게 딱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한 번이지만 매우 강렬한 사건이었다. 우리가 저번에 루이네 집 앞 골목에서 배구를 하고 있을 때 그가 하얀색 혈을 달고 있는 커다란 노란색 캐딜락³⁶⁾을 몰고 노란색 스카프를 정신없이 휘날리며 요란하게 골목으로 들어왔다. 그가 창밖으로 한쪽 팔을 내밀고 경적을 두 차례 울리자 집 안에 있던 가족들이 창문으로 그걸 보더니 한꺼번에 우르르 뛰쳐나왔다. 마린과 여동생들도 모두 다 함께 뛰쳐나왔다. 모두 차 안을 들여다보면서 어디서 난 거냐고 물었다. 하얀 깔개에, 하얀 가죽 의자... 차 안쪽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우리는 타 봐도 되냐고, 대체 어디서 난 거냐고 계속 물었다. 루이의 사촌은 모두 타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한 명씩 루이의 여동생들을 무릎에 앉혀야 했지만, 의자가 워낙 크고 폭신해서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차가 멈추거나 방향을 틀 때마다 뒷창문에 조그만 하얀색 고양이 인형의 눈이 깜박거렸다. 그 차의 창문은 평범한 차처럼 손잡이를 돌려서 열고 닫는 게 아니었다.³⁷⁾ 그 창문은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열리고 닫혔다. 우리는 골목을

35) 서인도 제도(카리브해)에 있는 섬으로 미국의 자치령이다.

36) 미국의 자동차 회사

37) 그 시절 자동차들은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버튼 형식의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었다. 손잡이 같은걸 열

여섯 바퀴나 돌았다. 그러던 중 우리가 하도 성가시게 이것저것 만져대자 루이의 사촌은 한번만 더 창문이나 FM 라디오를 만지면 당장 집으로 보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일곱 번째 바퀴를 돌 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작게 들리다가 점점 커졌다. 루이의 사촌은 당장 그 자리에 차를 세우고는 말했다. “모두 내려.” 우리가 모두 내리자마자 그는 재빨리 차를 몰아 우리 눈에서 희미해질 때까지 달렸다.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골목으로 경찰차가 빠르게 들이닥쳤다. 노란 캐딜락이 마지막 블록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려고 꺾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동네 골목은 너무나 좁았다. 안타깝게도 그대로 가로등 기둥과 충돌하고 말았다. 마린은 비명을 질렀고 우리는 사이렌 때문에 주위가 어지러워진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 노란 캐딜락의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져서 마치 악어 주둥이 같았다.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과 이마에 멍이 든 것 빼고는 루이의 사촌은 무사했다. 경찰들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서 가버렸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경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주었다.

마린

마린의 남자친구는 푸에르토리코에 있다. 그녀는 그가 보낸 편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푸에르토리코로 돌아가면 그때 그와 결혼할 거라는 걸 알려주며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만들었다. 마린이 말하길 그 남자친구는 아직 직업이 없지만, 결혼하게 되면 그녀가 화장품을 팔고 사촌들을 돌보며 벌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 할 거라고 했다. 마린은 자기가 만약 내년까지 여기에 머물게 된다면 시내로 나가 새 일자리를 찾을 거라고 하면서 좋은 일자리들은 다 시내에 나가야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언제나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다닌다. 그건 어느 날 지하철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결혼을 신청하고 먼 곳에 있는 멋진 집으로 데려가 줄 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루이의 엄마는 마린이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킨다는 이유로 내년에는 그녀를 푸에르토리코로 돌려보내겠다는 편지를 마린의 엄마에게 보냈다. 그건 내게 매우 좋지 않은 소식이다. 난 마린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성숙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 자기가 아는 것을 많이 이야기 해주었다. 주로 데이비 더 베이비의 언니가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코에 콧수염 같은 게 나면 어떤 크림을 발라야 좋은지, 내 손톱에 있는 하얀 반점에 개수를 세면 얼마나 많은 남자애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 등 많아서 다 기억 못 하겠다.

우리는 루이의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마린을 볼 수 없다. 그리고 루이의 엄마가 돌아오더라도 마린은 현관문 앞까지밖에 나오지 못한다. 마린은 매일 밤을 라디오 소리와 함께 보낸다. 루이의 엄마 방에 불이 꺼지면 마린은 담배에 불을 붙인다. “바깥이 춥다거나, 라디오가 작동을 안 하거나, 우리끼리 할 얘깃거리가 없어지거나 하는 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남자애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과, 우리도 개네를 바라본다는 것이지.” 이렇게 말한 마린은 그 후 치마도 더 짧아지고, 눈도 더 예뻐지고, 여러모로 우리보다 성숙해졌다. 그러자 많은 남자애들이 지나가다가 그녀에게 바보 같은 농담을 던지곤 했다. “너의 그 영롱한 초록색 사과 같은 두 눈에 반했어.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그러나 마린은 그럴 때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

마린은 가로등 밑에서 혼자 춤을 추며 그³⁸⁾ 노래를 부른다. 마린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누

심히 돌려야 했다.

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춤을 추는 그녀 앞에 떨어지는 별뿔뿔처럼 차 한 대가 멈춰서기를 기다리고 있다.

낮선 사람들

낮선 사람들이 망고 스트리트에 오면, 그들은 다짜고짜 우리 동네 사람들을 무서워한다.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번쩍이는 칼을 들고 자기들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길을 잃어 실수로 이곳에 오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끼리는 절대 서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 동네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 비록 덩치 큰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라도 다 아는 사람들이라서 괜찮다. 우리 동네에는 눈을 찡그리고 다니는 건장한 데이비 더 베이비의 오빠도 있고, 키가 크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로사네 집의 에디 5세도 있으며, 무식하고 덩치가 어마어마한 일명 ‘큰 아이’도 있다. 크긴 하지만 더 이상 아이는 아니다...

주위 사람들의 피부가 갈색을 띠면³⁹⁾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차를 타고 다른 동네를 지날 때면 갈색이 아닌 다른 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온다. 그럴 때면 우리는 무릎이 덜덜 떨린다. 우린 차의 창문을 끝까지 올리고 오직 정면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하긴 세상일이라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38) ‘루이와 그 사촌들’에서 마린이 부르던 노래.

39) 멕시코 인종은 피부색이 갈색이다. 망고 스트리트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아이가 너무 많은 바르가스 아줌마

로사 바르가스 아줌마는 아이가 너무 많다. 그게 그녀의 잘못은 아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 애들의 엄마이고, 그래서 항상 그 애들을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엔 아이가 너무 많아 보이긴 한다.

바르가스네 아이들은 모두 심각한 골칫덩어리들이다. 그 애들은 항상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 때문에 바르가스 아줌마는 그 애들을 돌보고, 돌보고, 또 돌보느라 늘 피곤에 젖어서 산다. 게다가 그녀는 매일 매일 서럽게 우는데 그건 그녀의 남편이 볼로냐소시지를 살만한 돈조차 남겨놓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자기가 집을 나간 이유를 변명하는 쪽지 한 장과 함께 말이다.

바르가스네 애들은 가로수의 가지를 굽혀대고, 자동차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아무 데나 거꾸로 매달린다. 심지어 박물관 꽃병을 깨부순다거나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짓도 한다. 개네들은 그런 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도 없고, 자기 자신들한테마저 그렇다. 그 애들은 걱정해봐야 소용없다. 피곤해질 뿐이다. ‘내 아이들도 아니니까’라는 태도가 가장 무난하다. 예를 들어 한번은, 그 애들이 베니 아저씨네 지붕에서 닭싸움을 한 적이 있다. 그걸 본 베니 아저씨가 말했다. “거기 너희들, 거긴 어떻게 올라갔니?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내려와, 당장 내려와!” 그러나 그 애들은 그저 침을 튼 뺨고 말뿐이었다. 이제는 아무도 그 애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모두가 포기했다. 에프런 바르가스가 주차장 미터기에 부딪혀서 이빨이 부러지고 난리 났을 때도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리퓨지아 바르가스가 뒷문에 머리가 찍혀 크게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높은 곳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엔젤 바르가스가 하늘을 날아보겠다며 지붕에서 뛰어내릴 때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엔젤 바르가스는 마치 설탕 도넛처럼 몸을 말고 별똥벌처럼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옥!” 소리도 없이 그저 땅에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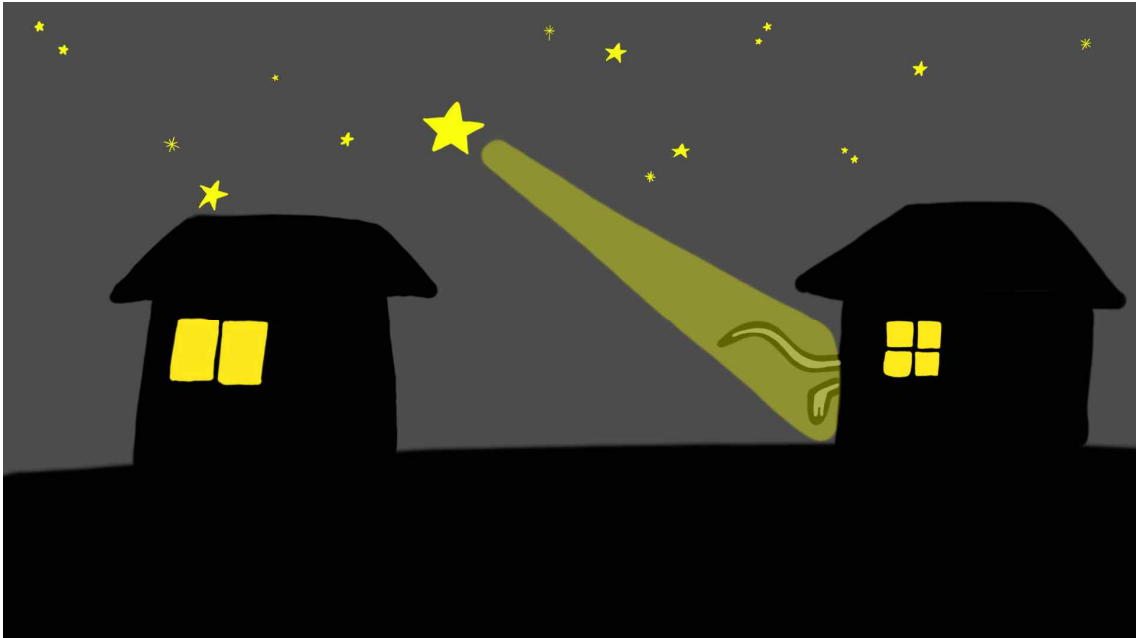
앨리시어, 쥐를 보다

“눈을 감아라. 그러면 모두 가버릴 거다. 내가 말한 건 모두 거짓이야. 그저 너의 상상일 뿐이다.”

앨리시어는 혼자만의 방이 있으므로 편히 잠자고, 포르티야 별과 함께 일찍 일어날 수 있다. 포르티야 별이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은 싱크대 밑으로 도망치는 쥐를 비추는 것이다. 쥐들은 재빠르다.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옥조 밑으로도 들어가고, 아무도 손보지 않아서 들떠있는 장판 밑으로도 들어가며, 어디든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친다.

앨리시어. 그녀는 엄마를 여의었다. 안타깝게도 이제 그녀에게는 학교에 갈 때 점심 도시락을 싸줄 사람이 없다. 앨리시어는 엄마에게서 밀가루 반죽 밀대와 졸음을 물려받았다.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앨리시어는 대학에 한 번에 붙었다. 지하철을 한 번 갈아탄 뒤 버스를 타고 대학에 간다. 왜냐하면, 그녀는 평생을 공장에서 보내거나 밀대와 함께 보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앨리시어는 좋은 사람이고, 내 친구다. 밤새도록 공부하고, 숨은 쥐를 잘 찾아낸다.

그녀의 아빠가 말했던 건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무서울 건 없다. 다리가 네 개 달리고 털이 있는 짐승과 모든 아빠들을 빼고는 말이다.



다리우스와 구름들

누구나 저 넓은 하늘을 품을 수 있다. 누구나 저 하늘에서 편안하게 잠들고, 기분 좋게 깨어 날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은 우리가 슬플 때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준다.

하지만 이곳은 그 넓은 하늘이 부족할 만큼 너무나 많은 슬픔이 있다. 여긴 나비가 적어서 예쁜 꽃들도 별로 없지만 우리는 이 동네에 있는 것들로 재미있게 노는 법을 많이 알고 있다. 다리우스는 학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평소에 멍청하고 바보 같던 그 녀석이 오늘은 제법 지혜로운 말을 했다. 다리우스는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다. 그 애는 폭죽이나, 쥐를 찌르던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여자애들을 쫓아다닌다. 그런 게 터프한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오늘은 다리우스가 하늘을 가리켰다. 하늘은 솜 베개 같은 구름으로 꽉 차 있었다. 다리우스가 말했다. “저 구름들을 봐. 오! 저기 똥똥한 구름 보여?” 그 똥똥한 구름 옆에 있는 구름은 마치 팝콘 같았다. 다리우스가 그걸 가리키며 말했다. “저걸 봐. 저건 하느님이야.” “하느님?” 어떤 조그만 애가 물었다. “그래. 하느님.” 다리우스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조금씩 커지는 장난

“에스키모들이 눈을 부르는 단어는 30가지나 있대. 책에서 읽었어.” 내가 말했다.

“우리 사촌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3개야.” 레이첼이 끼어들었다.

“눈은 30종류나 되지 않아. 딱 2가지지. 깨끗한 눈과 더러운 눈. 딱 2가지야.” 루시가 말했다.

그러자 네니가 반박했다. “눈에는 수백만, 수억 가지의 종류가 있어. 절대 2가지는 아니야. 만약 종류가 2가지라면 뭐가 어떤 건지 어떻게 구별하는데?”

“그녀는 3개의 성이 있고 어디보자... 2개의 이름이 있어.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스페인어...” 레이첼이 다시 사촌 얘기를 꺼내자 내가 말을 잘랐다.

“구름은 최소 10개의 이름이 있어.”

“구름에도 우리 같은 이름이 있어?” 네니가 물었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뭉게구름이 떠있었다.

“뭉게구름은 귀여워.” 레이첼이 말했다. 개는 항상 그런 걸 귀엽다고 했다. “저기 저건 뭐야?” 네니가 물었다.

“그것도 뭉게구름이야. 오늘 하늘에 있는 건 몽땅 뭉게구름이야. 뭉게구름, 뭉게구름, 뭉게구름.”

“아니야.” 네니가 말했다. “저기 있는 건 넨시야. 돼지 눈 넨시라고 부르기도 하지.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건 넨시의 사촌 밀드리드야. 그리고 작은 조, 마르코, 네레이다와 슈.”

“구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얼마나 많은 종류를 알고 있어?”

“글쎄... 저기 면도 크림처럼 생긴 거랑 저기 빗질한 머리처럼 생긴 것도 한 종류인가?”

“그래 맞아.”

“필리스, 테드, 알프레도와 줄리...” 네니는 계속 망고 스트리트 사람들의 이름들을 읊었다.

레이첼이 말했다. “저기 있는 커다란 양떼 목장 같은 구름. 마음에 들어.”

“그리고 저기 저 비구름도 잊지 마. 저것도 또 한 종류지.”

“호세와 다고베르토, 앨리시어, 라울, 에드나, 알마와 리키...”

“저기 널찍하고 잔뜩 부풀어 있는 구름을 봐. 옷이란 옷은 다 꺼입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난 너의 얼굴 같아.”

“레이날두, 안젤로, 알버트, 아르만도, 마리오...”

“내 얼굴이 아니야. 저건 똥똥한 네 얼굴이야.”

“리타, 마지, 에르니에...”

“누구의 똥똥한 얼굴?”

“에스페란사의 똥똥한 얼굴. 바로 너. 네가 매일 아침 학교에 올 때의 그 못생긴 얼굴.”

“애니타, 스텔라, 데니스와 롤로...”

“너 누구보고 못생겼다고 한 거야!? 못생겼다고?”

“리치, 요란다, 엑토르, 스티비, 빈센트...”

“네가 아니야. 내가 말한 건 너희 엄마야.”

“우리 엄마? 당장 그 말 취소해 루시 게레로. 당장 취소해. 그러지 않으면 너와 영원히 절교 해버릴 거야.”

“너희 엄마의 얼굴은... 음... 마치 9월의 맨발처럼 건조해 보여!”

“그래 됐어. 너희 둘 다 당장 우리 집 마당에서 나가. 내 남동생들을 부르기 전에.”

“오... 왜 그래? 그냥 장난친 거야.”

“레이첼. 방금 너를 설명할 30개의 에스키모 단어가 생각났어. 네가 어떤 애인지를 설명할 30개의 에스키모 단어.”

“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더 생각해 놓은 게 많은데?”

“후... 네니. 빗자루 좀 갖고 와라. 오늘은 우리 마당에 쓰레기가 좀 많구나.”

“프랑키, 리차, 마리아, 피위...”

레이첼이 말했다. “네니. 너희 언니한테 정말로 미친 거 아니냐고 좀 물어봐라. 언니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오지 않을 거거든.”

“레지, 엘리자베스, 리사, 루이...”

“네 마음대로 해, 네니. 하지만 루시와 레이첼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네가 계속 내 동생이고 싶다면 말이야.”

“에스페란사. 지금 니 얼굴이 어떤지 알아? 질척한 밀 시리얼 같아. 마치 진흙 덩어리 같다고.”

“그래. 그리고 네 발에는 벼룩이 살지.”

“넌 닭 입술이야!”

“로즈마리, 달리아, 릴리...”

“넌 바퀴벌레 젤리야!”

“진, 제라늄과 조...”

“차가운 프리홀레스⁴⁰⁾ 같은 녀석!”

“미미, 미카엘, 모에...”

“너희 엄마의 맛있는 프리홀레스.”

“너희 엄마의 못생긴 발가락.”

“멍청한 녀석.”

“베베, 블랑카, 베니...”

40) 중앙아메리카의 많은 나라가 프리홀레스를 전통 음식으로 먹는다. 일반적인 형태는 강낭콩과 비슷한 콩을 양념과 함께 푹 찌는 것이다. 다른 요리에 곁들여서 먹기도 한다.

“멍청하긴 누가 멍청해?”

“레이첼, 루시, 에스페란사와 네니.”

발이 작은 가족

한 가족이 있었다. 그 가족은 모두 정말 작았다, 팔도 짧고, 손도 작고, 키도 작으며 발도 매우 작았다.

그 가족의 할아버지는 거실의 긴 의자에 누워서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발은 오동통하고 마치 목직 한 타말⁴¹⁾ 반죽 같았다. 할아버지는 발에 밀가루를 바르고, 흰 양말을 신은 뒤 가족구두를 신는다.

할머니의 발은 마치 예쁜 분홍빛 진주와도 같고, 곱고 부드러운 하이힐을 신는다. 그걸 신으면 할머니는 뒤통거리며 걸어야 하지만 너무나 예쁜 하이힐이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그걸 신는다.

아기의 발에 있는 열 개의 발가락은 뽀얗고 마치 매끈한 도마뱀 같았다. 하지만 그 발가락들은 가엾게도 아기가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뜯어 먹혔다.

엄마의 발은 살짝 통통하면서 단정하다. 발이 작은 가족의 엄마는 베개들의 바다에서 마치 흰 비둘기처럼 우아하게 내려왔다. 장판 위 장미들을 지나 나무 계단을 내려와서 분필로 그려진 사방치기 판을 완벽하게 통과했다. 5, 6, 7, 하늘.

“너희들 이걸 원하니?” 하고는 우리에게 종이 가방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한 쌍의 레몬 빛 하이힐과 빨간색 하이힐, 그리고 댄스용 굽 높은 하이힐이 있었다. 그 댄스용 하이힐은 희미한 파란색이었는데 아마 예전에는 흰색이었다가 변색한 것 같았다. “네 주세요!” “자, 여기.” 그녀는 흔쾌히 우리에게 종이 가방을 건네주었다. “만세! 오늘 우리는 신데렐라야. 우리의 신발은 정말 완벽해!” 우리는 레이첼이 조그만 회색 양말 위에 우아한 숙녀의 하이힐을 신은 걸 보고 한바탕 웃었다.

막상 신고 보니 현실은 끔찍했다. 우리의 다리가 그 하이힐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짧았기 때문이다. 그때는 정말이지 긴 다리를 좀 갖다 붙이고 싶었다.

모두 1쌍씩 신발을 골라가며 신어보았지만 다들 다른 신발로 바꾸고 싶어 했다. 그래서 서로

41) 멕시코의 전통 음식이다. 사탕옥수수로 만든 반죽을 옥수수 껍질이나 바나나 잎에 싸서 찌낸다. 고기, 치즈, 과일, 채소 등의 소를 넣기도 한다.

서로 바꿨다. 레몬 빛은 빨간색으로, 빨간색은 희미한 파란색으로, 희미한 파란색은 레몬 빛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탄소리 않고 하루 동안 그걸 신기로 했다.

루시는 우리가 양말을 벗은 걸 보고 비명을 질렀다. 그럴 만도 했다. 우리의 다리는 가늘고 온통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게 우리의 다리였고, 어쩔 수 없었기에 그래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레이첼이 그 훌륭한 하이힐을 최대한 두드러지고, 멋들어진 보이도록 걷는 법을 잘 알았다. 개는 우리에게 다리를 꼬면서 걷는 법을 가르쳤다. 우리는 모두 네덜란드 밧줄처럼 비비 꼬며 걸어갔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길모퉁이로 나왔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신발이 땅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신발이 우리에게 한마디씩 건네는 것 같았다. 길모퉁이에 있던 사람들은 매우 민망해하며 차마 우리를 쳐다보지 못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처럼 신나있었다. 길모퉁이 식료품점의 베니 아저씨가 우릴 보더니 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물건인 담배를 툭 떨어뜨리며 말했다. “애들아, 너희 엄마가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걸 알고 있니? 그건 대체 누가 준 거니?” “아무도요.” “그런 신발은 위험해. 너희같이 어린애들이 신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빨리 그걸 벗어라. 경찰을 부르기 전에.” 그러나 우리는 그냥 도망쳤다.

거리에서 자기가 직접 만든 듯한 자전거를 탄 남자가 말을 걸었다. “아가씨들, 나랑 같이 천국에 가지 않을래?” 그 남자의 신발이 마음에 드냐는 질문에 레이첼과 루시는 “응”이라고 대답했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최고의 신발이야. 우리는 이제 다른 신발은 안 신을 거야.” 세탁소 안쪽 골목에 갔을 때는 서로 엇비슷한 뚱뚱한 얼굴을 가진 여섯 명의 여자애들이 우리를 보고도 못 본 척을 했다. 루시가 말했다. “재들 내 사촌이야. 재들은 항상 뭐든 질투하기 바쁘더라고.” 우린 그냥 깨끗하게 지나갔다.

길 건너 주점 앞에는 부랑자가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레이첼이 그에게 물었다. “이 신발 어때요?” 부랑자가 말했다. “오, 그래 꼬마 아가씨. 그 레몬 빛 신발은 정말 예쁘구나. 이리 가까이 와 보거라. 멀어서 잘 안 보여. 이리 가까이 와주렴.” 레이첼이 가까이 가자 부랑자가 말했다. “이름이 뭐니 예쁜 꼬마 아가씨?” 레이첼은 자기 이름을 말했다. 술에 취하고 정신이 이상한 부랑자에게 이름을 말해주는 것만큼 안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레이첼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 애는 어리고, 오늘 하루에만 달콤한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 그 달콤함에 취해서 더욱 많이 원했다. 비록 부랑자의 술주정 일지라도 말이다. “레이첼, 너는 저 노란 택시보다도 더 예쁘구나. 무슨 소린지 알겠니?” 루시와 나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제 가자.” 루시가 말했다. “내가 돈을 주면 나에게 키스해주겠니? 얼마면 되니?” 부랑자가 주머니 속 꾸깃꾸깃한 돈을 꺼내려고 했다. “지금 당장 가야 해!” 루시는 레이첼의 손을 잡아끌었다. 레이첼이 그 돈에 넘어갈까 봐 걱정되었던 모양이다. 부랑자는 우리에게 뭔가를 열심히 외쳤지만 우리는 이미 그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우리는 그 하이힐을 신고 왔던 길을 되돌아 왔다. 수많은 블록을 지나고, 못생긴 루시의 여섯 사촌을 지나고, 베니 아저씨의 가게도 지나서 망고 스트리트로 돌아왔다.

우리는 그날 ‘아름답다’라는 것에 지쳤다. 루시는 레몬 빛과 빨간색, 연한 파란색 하이힐을 자기 집 현관 구석에 있는 바구니에 던져 넣었다. 어느 화요일에 깔끔한 걸 매우 좋아하는 루시의 엄마가 그것들을 모두 내다 버렸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쌀 샌드위치

특별한 아이들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구내식당! 그 이름도 특별하지 않은가. 점심시간에 집에 가도 엄마가 집에 없거나 집이 너무 먼 아이들이 그곳에서 점심을 먹는다. 우리 집은 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깝다고 할 수도 없다. 나도 거기에서 밥을 먹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엄마한테 가서 내가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고, 교장 수녀님한테 나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오... 그건 안 돼.” 엄마는 버터 칼로 나를 겨누며 말했다. “안돼요, 아가씨. 나는 골치 아픈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너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기 시작하면 다른 애들도 모두 샌드위치를 싸가고 싶어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매일 밤 식빵을 썰어야 하겠지. 삼각형으로 말이야. 너희들은 설 새 없이 나를 힘들게 할 거야. 이건 마요네즈를 넣어주세요. 이건 머스터드요. 제 거에는 피클 넣지 마세요. 머스터드를 한쪽 면만 발라주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일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지만 네니는 학교에서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 개는 친구 글로리아의 집에 가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다. 글로리아의 집은 학교 근처에 있었고, 커다란 컬러 TV가 있어서 개네들은 맨날 거기서 만화영화를 봤다. 키키와 카를로스도 다른 몇몇 애들과 함께 이 근처를 순찰한답시고 돌아다닌다. 개네들도 역시 학교에서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개네들은 매일 점심시간에 그냥 추운 바깥에서 있는데 비 오는 날이면 더더욱 그러는 것 같다. 그 애들은 ‘300 스파르탄’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고행을 겪는 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스파르타인⁴²⁾도 아니고 빈혈을 앓고 있다. 내 얇은 손목이 모든 걸 증명해 준다. 심지어 현기증 없이는 풍선도 불지 못한다. 게다가 나는 나 혼자 점심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내가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다면 집에서 설거지할 식기도 줄어들 것이다. 엄마는 나를 볼 일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매일 점심마다 밥상 앞의 내 의자는 비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엄마는 내 사랑하는 딸이 어디 갔냐며 슬퍼할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돌

42)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했던 도시 국가.

아오면 훨씬 반갑게 맞아 주겠지.

“오... 알았다, 알았어.” 내 하소연을 듣던 엄마는 결국 3일 후에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에 나는 엄마가 써준 편지와 속에 쌀을 넣은 샌드위치(집에 샌드위치에 넣을 고기가 없었다)를 들고 학교에 갔다.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상관없이 아침 시간은 늘 느리게 지나갔다. 그날은 특히 더 그랬던 것 같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구내식당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줄에 함께 끼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구내식당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확인하던 수녀님이 나를 보고는 말했다. “누가 너를 여기로 보냈니?” 나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내밀었다. 수녀님이 말했다. “음... 좋지 않아. 그럼 교장 수녀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 오거라.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거라.”

나는 결국 위층으로 올라갔다. 교장실에는 이미 두 명의 아이가 들어가 있어서 나는 좀 기다려야 했다. 교장 수녀님은 그 애들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는데 한 명은 교실에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었고 한 명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곧 내 차례가 되어 교장실로 들어갔다. 나는 커다란 책상 앞에 섰다. 책상 맨 윗부분은 유리였는데 밑에 신성한 상본⁴³⁾들이 꽂혀 있었다. 교장 수녀님은 내가 가져온 편지를 읽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교장 수녀님께

에스페란사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는 학교와 집이 너무 멀고, 그 거리를 왕복하는 걸 매우 힘들어합니다.

보시다시피 그 아이는 매우 가냘프답니다. 저는 매일 그 아이가 등하굣길에 실신하지 않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콜데로 부인 드림

편지를 읽은 수녀님이 말했다. “너는 그렇게 멀리 살지 않잖아? 바로 저 도로 건너에 살지 않니? 한 네 블록? 아니지. 아마 세 블록쯤 되겠군. 여기서 세 블록 거리야. 이 창문으로도 너희 집이 보이겠구나. 내기해도 좋다. 어느 집이니? 이리와 보렴. 어느 게 너희 집이니?” 수녀님은 창문 앞 종이상자 위에 나를 세워 놓고 창밖을 가리켰다. “저 집이니?” 그녀가 가리킨 곳은 끔찍할 정도로 낡고 불품없는 건물 세 채가 모여 있는 곳이었다. 저런 곳은 부랑자들도 가기 꺼릴 것 같았다. 나는 그게 내 집이 아닌 걸 알면서도 맞다고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그저 울었다. 나는 수녀님이 고함을 칠 것 같을 때마다 항상 울었다.

하지만 수녀님은 고함을 치지는커녕 안타까워하며 오늘날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수녀님이 강조한 것은 ‘오늘만’이었다. 나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물티슈를 부탁했다. 그리고 그걸로 코를 한번 풀었다.

구내식당은 특별할 게 없는 곳이었다. 구내식당에 있던 수많은 애들이 빵은 녹녹해지고 쌀은 차가워진 샌드위치를 울면서 먹고 있는 나를 구경했다.

43)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 혹은 성인들의 화상이나 성서 구절, 또는 명언을 담은 작은 그림이나 카드.

새들 슈즈

“나야~” 엄마가 현관문 너머에서 말했다. 나는 바로 문을 열어주었다. 엄마는 가방과 커다란 상자들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새 옷과, 작은 장미가 그려진 양말, 분홍색과 하얀색 줄무늬 드레스가 들어있었다. “신발은요?” 내가 물었다. “깜박 잊어버렸구나. 오늘은 피곤하니 다음번에 사 올게. 후우!”

저녁 6시 30분이었다. 슬슬 내 사촌의 세례식이 끝났을 터였다. 나는 그날 온종일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옷가지들을 사러 간 엄마를 기다렸다. 기다린 보람은 있었다. 엄마는 내가 원하던 옷가지들을 하나만 빼고 모두 사 왔다.

조금 후 나초 아저씨가 차를 몰고 우리를 데리러 왔다. 우리는 서둘러 사촌의 세례식이 있었을 프레스위스 블러드 교회로 가야 했다. 곧바로 세례 기념 파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우리 사촌들은 그 교회 지하실을 통째로 빌려서 함께 춤도 추고 타말도 먹었다. 꼬맹이들이 사방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엄마는 춤추고, 신나게 웃고, 또 춤췄다. 하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듯했다. 나는 종이 접시로 엄마의 얼굴을 부채질 해주었다. 모두 타말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 거라고 했지만 나초 아저씨는 이걸 너무 많이 했다면 엄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모두가 웃고 즐겼다. 나만 빼고 말이다. 나는 분홍과 하얀 줄무늬의 새 드레스와 새 바지를 입고 새 양말까지 신었지만 새 신발이 없어서 학교에 갈 때 신던 낡은 새들 슈즈⁴⁴⁾를 신고 있었다. 그건 하얀색과 갈색이 섞여 있는 볼품없는 새들 슈즈였는데 나는 매년 그걸 신었다. 하도 질겨서 망가지지도 않았다. 그걸 신은 내 발은 둥그스름하고 너털너털 해 보였다. 뒤통치 굽은 약간 비뚤어지기까지 했다. 확실히 그 신발은 드레스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애가 다가와서 같이 춤추지 않겠냐고 했다. 나는 그저 못한다고 거절했다. 너털너털한 내 발 밑에 있던 ‘프레스위스 블러드’라고

44) 새들(saddle)은 말의 안장이라는 뜻인데 그와 비슷한 가죽 재질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굽이 조금 높고 캐주얼한 구시대적 신발이다.

적힌 접이식 의자에 붙은 갈색 껌딱지나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내 발은 점점 커지기만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나초 아저씨가 다가와서 갑자기 내 팔을 잡아끌었다. 나는 새 드레스는 문제없지만 신발이 못생겨서 춤을 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나의 허풍쟁이 아저씨가 말했다. “너는 여기 있는 애들 중 제일 예뻐. 나랑 춤추지 않을래?” 나는 아저씨를 믿었고,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나와 나초 아저씨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는 일단 뚫어뻥 같이 생긴 내 발이 도드라져 보일까 봐 겁났다. 우리는 점점 더 파티장 한가운데로 향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우리가 저번에 새로 배운 춤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아저씨가 내 몸을 힘차게 돌렸고, 나는 아저씨가 가르쳐 준대로 팔을 스윙 굽혔다. 그런 내 모습을 엄마와 내 어린 사촌들이 보고 있었고, 나에게 춤을 신청했던 그 남자애도 보고 있었다. 모두가 감탄했다. “와우! 저 두 사람의 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나는 그때 신발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음악이 끝나자 사람들은 모두 박수갈채를 보냈다. 우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걸어 나왔다. 엄마는 내가 자기 딸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했다. 나한테 춤을 신청했던 남자애는 그날 밤 내내 춤추는 나를 바라봤다.

영덩이들

나는 커피가 좋아. 나는 차도 좋아.

남자애들이 좋아. 개네들도 나를 좋아해.

맞아, 아니야, 아마도. 맞아, 아니야, 아마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건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시동을 걸고 기다리는 자동차처럼 말이야. 그건 도대체 너를 어디로 데려갈까? “그건 아기를 안고 요리를 할 때 좋아.” 레이첼이 줄넘기 줄을 점점 빠르게 돌리면서 말했다. 그 애는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건 춤을 출 때 꼭 필요할 거야.” 루시가 말했다. “만약 그게 없으면 남자가 되고 말걸.” 네니가 말했다. 네니는 자기 말이 다 옳은 줄 안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항상 그런 식이다. “맞아, 그렇겠지.” 나는 루시와 레이첼이 네니를 비웃기 전에 얼른 덧붙였다. 아무리 멍청한 녀석이어도 내 동생이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건 영덩이는 과학적이라는 거야.” 나는 엘리시어가 내게 했던 말을 그대로 읊었다. “영덩이는 뻘만 봐도 뭐가 남자건지 여자건지 알 수 있거든. 언젠간 마치 장미처럼 확 피어날 거야.” 나는 계속 얘기했다. 그 애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었다. “영덩이씨는 언젠간 눈에 띄게 커질 거야. 어느 날 너희들이 아기를 가지고 싶어지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아이를 가지고, 낳을 거야? 그럴 때 영덩이가 필요해.” 그때 레이첼이 말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낳으면 안 되지. 그러면 영덩이가 우리 엄마처럼 평퍼짐해질 거야.” 우리는 모두 한바탕 웃었다.

내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내가 하려던 말은 우리 중 누가 준비 되었느냐 이거야. 영덩이가 커지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알아야 한다는 거지. 내가 먼저 해 볼 테니 따라 해봐. 영덩이를 이렇게 하고 걷는 거야. 자 연습해봐. 한쪽은 이쪽으로 가려는 것처럼, 다른 한쪽은 저쪽으로...” 갑자기 네니가 튼금없는 소리를 했다. “영덩이는 자장가를 부르려고 있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아기를 흔들흔들 흔들어서 재우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구리 종이 에~비 아이~비 넘어간다~” 나는 네니에게 지금까지 들어 본 노래 중에

가장 바보 같은 노래라고 말하려다가 말았다. “리듬을 타야 해.” 루시는 이렇게 말하고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비록 루시가 돌리고 있던 줄넘기 줄을 일정하게 돌리는 데에는 문제가 생겼지만 괜찮은 춤이었다. 내가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래, 그거야.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나와 루시는 줄넘기를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도록 일정하게 돌렸다. 그러자 레이첼은 줄넘기 안으로 들어와서는 엉덩이를 흔들며 야무지게 폴짝 폴짝 잘 뛰었다. 루시가 말했다. “나는 후치쿠치⁴⁵를 추겠어.” 루시가 미쳐버린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보다 보니 나도 하고 싶어졌다. 내가 소리쳤다. “난 타히티 춤을 추겠어. 메렝게⁴⁶도 좋지. 템블레케⁴⁷처럼 격렬하게 흔들자!” “그래. 흔들자!” 레이첼이 노래를 시작했다.

“폴짝 폴짝 뛰어. 뱀이 네 엉덩이에 들어갔어. 정신없이 흔들다가 입술이 깨질 듯이 소리 질러!”

루시는 자기 차례가 되자 조금 생각을 하다가 노래를 시작했다.

“커다란 엉덩이를 가진 웨이트리스가 한 명 있네. 그녀는 택시에서 받은 팁으로 월세를 내지.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의 입술에는 키스하지 않네. 왜냐하면... 그녀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처럼 생겼기 때문이지! 맞아, 아니야, 아마도. 맞아, 아니야, 아마도.”

루시는 ‘아마도’ 부분에서 박자를 놓친 것 같았다. 난 준비하는 시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숨을 고르고 바로 뛰어들어갔다.

“몇 사람은 닭 주둥아리처럼 늘씬하고 또 몇 사람은 욕조에 들어갔다 나온 퉁퉁 불은 밴드처럼 뚱뚱하지. 나는 엉덩이를 얻기 전까지는 나한테 뭐가 오든 상관하지 않을 거야.”

네니만 빼고 모두가 이 놀이에 빠져 있었다. 네니는 아직도 그 벌새가 왕왕거리는 소리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여자애도 아니고, 남자애도 아니고, 그냥 어린 아기야~” 개는 늘 그래왔다.

줄넘기가 입을 짹 벌리듯 원을 그리며 커다랗게 열렸을 때 네니가 나를 가로질러 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줄이 톱 톱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치자 네니가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도 흔들리며 짹짹 소리를 냈다. 그건 엄마가 네니의 첫 세례식 때 선물한 것이었다. 네니는 마치 빨래하다 남은 갈색 비누 조각 같았다. 저 고집불통 꼬맹이. 그게 내 동생이다. 이윽고 입을 열더니 노래를 시작했다.

“우리 엄마와 너희 엄마가 함께 빨래를 하고 있었어.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의 코를 정통으로 때렸지. 어떤 색 피가 나왔을까?”

45) 성적 도발을 표현하는 배꼽춤.

46) 카리브해의 도미니카 공화국 스타일의 춤이며 빠른 음악에 비해 느린 춤동작이 특징이다.

47) 원래 푸에르토리코의 코코넛 푸딩 이름인데, 출렁거림이 매우 심해서 스페인 언어권에서 흔들다, 출렁거리다의 의미로 쓰인다.

내가 말했다. “그런 구식 노래는 부르지 마. 너도 너만의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봐. 알겠어?” 그러나 네니는 반응조차 없었다. 저럴 땐 정말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줄은 돌고, 돌고, 또 돌았다. 네니는 계속 불러댔다.

“엔진, 기차의 9번 엔진. 시카고 방향으로 달립니다. 만약 기차가 선로에서 벗어난다면 환불 받으실 건가요? 환불받으실 건가요? 맞아, 아니야, 아마도. 맞아, 아니야, 아마도.”

루시와 레이첼은 역겹다는 듯이 쳐다봤다. 그러나 단지 네니가 내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맞아, 아니야, 아마도. 맞아, 아니야, 아마도.”

“네니.” 내가 불러도 네니는 전혀 듣지 않았다. 그 애는 마치 수백, 수천 광년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 버린 것 같았다. 이미 이 세계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점점 더 먼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Y-E-S가 모이면 YES가 되고 이제 어서 밖으로 나와!”

첫 번째 일자리

내가 일을 하기 싫었던 건 아니다. 오히려 일하고 싶었다. 한 달 전에 사회보장 센터에 가서 내 사회보장 번호를 받기도 했다. 가톨릭 고등학교에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다.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일반 고등학교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한심한 불량배가 되고 싶지 않은 이상 말이지.” 나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쉬운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또래의 다른 애들도 많이 하는 쉬운 일... 가게 카운터를 본다거나, 핫도그를 굽는 일 같은 거 말이다.

그날 오후에 집에 들어올 때 나는 흠뻑 젖은 상태였다. 왜냐하면, 바보 같은 티토 녀석이 물이 흐르고 있는 소화전으로 나를 밀어 넘어뜨렸기 때문이다. 내가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엄마가 부엌에서 나를 불렀다. 부엌에서는 라라 이모가 손가락으로 커피를 떠먹고 있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라라 이모는 나한테 적당한 일자리가 있다고 했다. 바로 이모가 일하고 있는 노스브로드웨이의 피터팬 사진 인화소였다. 이모에게 내 나이로도 거기서 일할 수 있냐고 묻자 이모는 다음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나이를 한 살만 속이면 가능할 거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그곳에 가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첫 출근길에 푸른 드레스를 입었다. 그 드레스는 나를 조금이나마 성숙하게 보이게 해 주었다. 이모는 내게 버스비와 점심값을 빌려주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첫 월급을 받을 거라고 했다. 우리는 피터팬 사진 인화소의 사장을 만났다. 이모가 내 나이를 한 살 높게 얘기해서 나는 바로 거기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일은 흰 장갑을 끼고 필름을 프린트와 일치하도록 맞추는 것이었다. 그냥 프린트된 사진을 한번 보고, 거기에 맞는 필름을 가져다 맞춘 다음 그걸 봉지에 담는 것이었다. 그게 끝이었다. 나는 그 봉지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냥 그 작업만 했다. 그 일은 정말 쉬웠다.

아무생각 없이 일하다가 다리가 아파져서 앉으려고 하다가 앉아도 되는지 몰라서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가 내 옆에 있던 두 명의 여자가 앉길래 나도 그냥 따라 앉았다. 그 여자들은 한

바탕 웃고는 내게 다가와서 앉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앉아도 괜찮다고 했다. 나는 조금 건방지게 “나도 알아요”하고 대답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혼자 밥 먹기가 애매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혼자 욕실에 밥을 가져가서 허겁지겁 먹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좀 이르게 일을 하러 갔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어서 문이 닫혀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탈의실에 가서 앉아 있었다. 아마 그때는 밤이었던 모양이다. 인원 교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그러다 한 나이 든 동양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었다. “안녕?” 우리는 쉬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며 다음부터는 점심 먹을 때 같이 먹자고 했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다. 그는 눈도 멋있게 생겼고, 편하게 대할 수 있어서 그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긴장이 되지 않았다. 그가 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오늘이 자기 생일이라며 생일 축하 키스를 부탁했다. 딱히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나이도 많았고, 그냥 뺨에 입만 맞추는 거라면 딱히 상관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뺨에 입술을 갖다 대자 그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끌었다. 그리고는 내 입에 강하게 키스하더니 놓아주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힘겹게 일어나는 아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아빠가 아침 일찍 내 방에 와서 말했다. “*Está muerto*(가버리셨어).” 아빠는 마치 방금 그 소식을 들은 사람처럼 코트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울었다. 나의 용감한 아빠가 울고 있었다. 아빠가 우는 것을 처음 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는 아마 장례를 치르러 멕시코에 갈 것이다. 모든 삼촌과 이모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때는 무덤 앞에 흑백 사진을 올려놓고, 그 옆에는 창같이 생긴 꽃병을 놓을 것이다. 그게 죽은 사람을 보내는 우리의 문화다. 내가 장녀이기 때문에 아빠는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나한테 말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동생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왜 오늘은 산만하게 놀아서는 안 되는지, 왜 오늘은 우리 모두 조용히 지내야 하는지.

나의 아빠... 아빠는 큼직한 손을 가지고 있고, 큼직한 구두를 신는다. 아빠는 매일 어둠 속에서 힘겹게 일어난다. 일어나서는 손에 물을 묻혀 가볍게 빗질을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신 후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한다. 그러나 오늘은 내 침대 위에 앉아있다.

만약 아빠가 죽는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나는 두 팔을 뻗어 아빠를 안아 주었다. 안고, 안고 또 안아주었다.

태생부터 나쁘다

나는 아마 나중에 지옥에 갈 것이다. 그래야 마땅하다. 우리 엄마가 말하길 내가 악마의 날에 태어났다고 한다. 엄마는 늘 나를 위해 기도한다. 루시와 레이첼도 우리와 몇몇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건 바로 우리가 루페 이모에게 한 짓 때문이다.

이모의 이름은 과달루페였다. 우리 엄마와 똑 닮았으며 예쁘장하게 생겼었던 이모는 보기 좋게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조앤 크로포드⁴⁸⁾가 입는 드레스를 입고 다녔으며 수영선수의 탄탄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봤던 사진 속 루페 이모는 그랬다.

하지만 루페 이모는 불행히도 끔찍한 병에 걸리고 말았고 그 병은 절대 낫지 않았다. 수영선수의 생명이었던 탄탄하던 다리는 매일 노란색 이불을 덮은 채 무기력하게 쉬고 있었다. 그녀의 뼈는 애벌레처럼 흐물흐물하고 약해졌으며 그녀의 방에 있던 노란색 베개에서는 그에 맞는 노란색 냄새가 났다. 그 방에는 수많은 빈 병들과 끈적한 손가락들이 있었다. 이모는 항상 침대 위에 있었는데 목마른 사람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었다. 수영선수였던 우리 이모...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녀의 두 다리는 한때 상당히 강인했었다. 그걸로 힘차게 물살을 갈랐다. 병에 걸리고 나서 그녀의 피부는 갓난아기처럼 주름지고 축 처졌으며 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고 말았지만, 그때는 깔끔하고 날카롭게 물살을 갈랐었다고 한다. 이모가 누워있던 곳은 거리 뒤쪽 후미진 곳의 아파트 2층이었다. 이모의 방에는 높은 천장에 달린 덮개도 없는 전구가 항상 켜져 있었다.

대체 왜 이모가 그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녀는 악마의 날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끔찍한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어느 날 이모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모가 병을 얻은 건 내가 이모의 건강했던 시절의 흑백사진을 처음 본 날이었을지도 모르고, 그녀가 사촌인 토치와 아기 프랭크를 안고 있었던 날인지도 모르며, 그녀가 아이들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에게 이쪽을 좀 봐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48) 미국의 배우.

이모가 병을 얻은 그날, 하느님은 이모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다. 하느님이 너무 바빴는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그날 이모는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다가 척추 같은 델 다쳤거나 토치가 말한 대로 높은 계단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것 같다.

나쁜 병한테는 눈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아무나 잡히는 대로 해친다. 우리 이모처럼 조앤 크로포드의 드레스를 입고, 재밌게 생긴 검은 깃이 꽃힌 모자를 쓰고, 한 손에는 사촌 토치의 손을, 한 손에는 아기 프랭크의 손을 잡고 기분 좋게 갈 길을 가던 사람을 말이다.

우리도 가끔은 병에 걸린다. 물론 어떨 때는 심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오래 동안 지속된다면 평범해 보일 것이고 당연해 보일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병자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놓일 것이다. 그게 우리가 이모와 함께하게 된 이유이고, 우리가 이모를 책임지고 돌봐주기로 한 이유다.

그건 그냥 일종의 놀이였다. 우리는 매일 오후에 다 함께 모여서 노는데, 그날 우리 중 누군가가 그 놀이를 생각해냈다. 그게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나였던 것 같다. 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군가 한 명을 마음속으로 지목하고 그 사람을 흉내 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누군지 맞추는 거였다. 처음에는 유명한 사람들로 시작했다. 윈더우먼이나, 비틀즈, 마릴린 먼로 같은... 그런데 누군가가 놀이 규칙을 조금 바꾸자고 했다. 베니 아저씨나 그의 아내 블랑카, 루시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로만 하자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모를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우리가 그날 내내 너무 따분했던 모양이다. 아니면 피곤해서 정신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이모를 좋아했다. 이모는 항상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우리가 돌아갈 때마다 또 오라고 해주었다.

사실 우린 이모의 방에 혼자 가는 것은 꺼렸다. 그곳은 어두운 아파트 단지를 여섯 블록이나 지나서 후미진 곳에 있는 한 건물의 2층이었는데,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모는 언젠가부터는 앞도 볼 수 없게 되어버려서 싱크대에 쌓여 있는 더러운 접시들을 보지 못했고, 천장에 붙은 더러운 먼지와 파리들도 보지 못했다. 고동색으로 변해버린 끔찍한 벽도 보지 못했고, 수많은 빈 병들과 끈적한 손가락들도 보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그 끈적한 캡슐 속에 썩은 젤리를 가득 채워놓은 듯한 냄새를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이모는 마치 활짝 열린 굴 껍질 속 조그마한 살점 같았다. “안녕.” 이모의 목소리는 항상 마치 우물 밑에서 내는 소리처럼 울림이 있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이모의 집에 가지고 가서 이모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나는 ‘물의 아기들’이라는 책이 마음에 들었고, 이모도 그 책이 좋다고 했다. 나는 책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이모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물의 아기가 바닷속을 헤엄치는 그림이었다. 나는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책을 내밀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단다. 나는 장님이야.” 그 사실을 깨달자 나는 부끄러워졌다.

이모는 내가 읽어주는 모든 책과 시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지은 시를 이모한테 읽어주었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베개를 뒤집어쓰고 속삭였다.

내가 되고 싶은 건

바다 위 파도 같은 것, 바람 속 구름 같은 것,

하지만 나는 나일 뿐이다. 언젠가는 나의 육체로부터 뛰어오를 것이다.

100개의 바이올린처럼 하늘을 뒤흔들 것이다.

“잘 썼구나. 아주 잘 썼어.” 그녀는 특유의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글을 쓰는 방법을 기억 하거라, 에스페란사. 너는 글을 써야 해. 그게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다.” 나는 알았다고 대답 했다. 사실 나는 그때 이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다.

우리가 그 놀이를 하던 날 우리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이모를 따라 했다. 팔을 흐느적흐느적 늘어뜨리고 죽은 사람처럼 옆 사람한테 달라붙으며 매달렸다. 우리는 그녀를 흉내 내며 즐거 워했고 그녀가 하던 말을 따라 했다.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는 것도 따라 했고, 그녀 가 물을 마실 때처럼 고개를 끝까지 젖혔다. 이모는 물을 마실 때 고개를 젖히고 초록색 깡통 에 물을 담아 거의 빨아 먹다시피 했다. 아마 미지근하고 텅텅한 철 맛이 났을 것이다. 모두 킬킬거리며 웃었다. 우리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녀를 따라 했다. 앵무새 같은 목소리로 토치에게 접시를 닦으라고 소리치는 흉내도 냈다. 굉장히 쉽고, 재밌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다. 이모가 오랫동안 자기를 따라 하며 웃는 것을 들으며 죽어가고 있었 던 것을. 우리는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그저 놀기 바빴다. 아마 그녀는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 녀는 매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다. 그녀의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어린 애처럼 굴지 않고, 쌓여있는 접시들을 설거지하고 옷을 다림질했다면, 그녀의 남편이 다시 돌아왔다면 어땠을까? 결국, 이모는 죽었다. 나의 시에 귀 기울여주던 이모는 죽었다.

그 이후 우리는 잠잘 때 이모가 나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엘레니타와 카드, 손바닥, 물

엘레니타는 점쟁이 마녀다. 내가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형겅으로 자기 책상을 닦고 있었다. 그 집에 함께 사는 에르니에가 아기한테 음료수를 먹이다가 그만 흘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엘레니타가 말했다. “그 미친 아기를 당장 여기서 내보내!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니? 그놈 의 음료수를 먹일 거면 거실에 가서 먹여.” 에르니에는 TV에서 ‘정신 나간 버니’가 나오고 있는 거실로 아기를 데려갔다.

나는 엘레니타가 책상을 다 닦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말했다. “오... 운 좋 게도 어제 안 오고 오늘 왔구나. 어제는 우주의 행성들이 마구 뒤섞여서 매우 혼란스러웠거든.”

그녀의 집에 있는 TV는 커다란 컬러 TV였다. 그녀의 예쁜 가구들은 모두 카니발⁴⁹⁾에 가면 볼 수 있는 곰 인형처럼 빨간색 모피로 덮여있었다. 가구에는 모두 플라스틱 덮개가 씌워져 있었는데 아마 아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 같았다. “네 잘된 일이네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부엌으로 갔다. 그녀가 점을 보는 곳이 부엌이었다. 냉장고 위에는 신성한 촛불들이 올려져 있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꺼져있는 것도 있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등 초의 색상도 다양했다. 벽에는 석고로 만든 성자상과, 먼지가 쌓인 십자가와, 부두교⁵⁰⁾의 상징적인 사진이 붙어있었다. “물을 가져오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싱크대로 가서 깨끗한 유리잔에 물을 채웠다. 머그잔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밀워키(미국 동북부의 도시)를 유명하게 만든 맥주 상표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따뜻한 수돗물을 채운 유리잔을 그녀가 시키는 대로 책상 가운데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말했다. “저 안을 들여다보렴. 뭐가 보이니?” 하지만 보이는 건 거품뿐이었다. “누군가의 얼굴이 보이니?” “아니요. 그냥 거품만 보여요.” 그녀는 괜찮다고

49) 사육제라고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에서 행하는 40일간의 예수 수난을 기리는 축제다. 국가마다 축제 문화가 다르지만 멕시코는 가면을 쓰고 치르는 의식, 놀이동산 개방 등 다양하게 즐긴다.

50) 서아프리카에서 탄생한 종교다. 지금은 카리브 연안, 미국 남부 등에 신자들이 밀집되어 있다.

말하고는 십자가를 유리잔 위로 세 번 오가게 했다. 그리고 카드를 섞기 시작했다. 그건 평범한 타로카드가 아니었다. 그 카드들은 좀 특이했다. 말을 타고 있는 금발의 남자나, 가시가 달린 정신 나간 야구 방망이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었다. 황금색 커다란 잔이 그려진 카드나, 우울해 보이는 여자가 구시대적인 드레스를 입고 있는 카드도 있었으며, 장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카드도 있었다. 엘레니타가 카드를 섞을 때 나는 거실 TV에서 나오고 있는 '정신 나간 버니'가 신경 쓰였다. 예전에 좀 본 적이 있는데 무척 재밌었다. 노래도 괜찮고 말이다. 솔직히 에르니에와 아기 옆에 가서 같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엘레니타가 점을 치기 시작했다.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이 모두 거기에 달려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손을 오므리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느껴지니? 한기가 느껴져?" "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좋아. los espíritus(영혼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 이 카드. 흑인과 검은 말이 그려져 있지. 이건 질투를 뜻해. 그리고 이 카드. 이건 별들의 대들보이고, 사치를 뜻해. 너는 조만간 결혼을 하겠구나. 그리고 너는 너의 팔에 있던 닳을 잃었다."

"팔의 닳이요?"

"다 끝났다. 그게 다야."

"집에 대해서는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사실 그걸 물어보려고 여기에 온 것이었다.

"오, 그래. 집은 마음속에 있어. 네 마음속에서 집이 보이는구나."

"그게 다예요?"

"나에게 보이는 건 그게 다구나."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고 일어섰다. 다른 방에 있던 그녀의 아이들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레니타는 개네들한테 가서 꿀밤을 각각 한 대씩 때리는 꼭 안아 주었다. 엘레니타는 그 아이들이 무례하게 굴 때만 빼면 그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매우 크게 실망했다. 그녀는 내가 실망한 것을 눈치챘는지 자기가 아는 것을 많이 얘기해주었다. 그녀는 점쟁이 마녀라서 아는 것은 많았다. "머리가 아플 때는 차가운 계란으로 얼굴을 문질러보렴. 지나간 사랑을 잊고 싶어? 그러면 닭발을 하나 구해서 빨간 끈으로 칭칭 묶으렴. 그리고 그걸 머리 위에서 3번 돌린 다음 태워버려. 나쁜 영혼들이 잠을 못 자게 방해한다고? 그럴 때는 자기 전에 성스러운 촛불을 피워 놓고 그 곁에서 7일 동안 잠을 청해보렴. 그리고 여덟 번째 날에 침을 튜 뱉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자 나는 그저 실망스럽고 슬펐다.

내가 계속 슬퍼하자 그녀가 말했다. "오... 얘야, 원한다면 한 번 더 봐주마." 그녀는 다시 카드, 손바닥, 물을 써서 점을 보고는 후후 웃었다. "내가 옳았단다. 집은 너의 마음속에 있어."

"제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집이야. 너의 마음이 만들어낸 집이지. 너를 위해 촛불을 밝혀주마." 나는 고작 그 몇 마디를 듣기 위해 5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내가 돌아갈 때 문 앞에서 그녀가 나를 배웅했다. "고맙다. 잘 가렴. 악마의 눈을 조심하고 목요일에 다시 오렴. 그날은 별들의 기운이 강해진다. 성모마리아의 축복이 함께하길!" 엘레니타는 할 말을 마치고 문을 광 닫았다.



제랄도

마린은 춤을 추다가 그를 만났다. 젊고 잘 생긴 그는 레스토랑에서 일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가 기억하는 건 그의 이름 제랄도와 초록색 바지, 편하게 입은 셔츠뿐이었다. 제랄도. 그 이름 세 글자가 그가 그녀한테 말해준 전부였다. 하지만 마린에게는 그때가 그를 본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이 되어버렸다. 이제 더는 그를 볼 수 없다. 제랄도는 그날 밤 뽕소니 사고를 당했다.

마린은 매일 밤 춤을 추러 간다. 시 외곽으로 로건, 엠바시, 파머, 아라곤, 폰타나 등 내키는 곳으로 간다. 마린을 춤을 참 좋아한다. 그녀는 쿠비아나 살사는 물론 랑케라⁵¹⁾도 출 수 있다.

제랄도는 그저 그날 밤 그녀와 함께 춤을 춘 누군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뿐이다. 사고 직후 병원 사람들과 경찰들은 그의 신분을 밝혀낼 수가 없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신분증 같은 것도 안 들어 있어서 이름도, 주소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증인으로 불러 간 마린은 제랄도에 대한 것들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몇 시간 동안 취조가 이루어졌지만 소용없었다. 그가 사고 직후 응급실로 실려 갔을 때는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의사들이 퇴근하고 없었고, 인턴 의사가 딱 한 명 남아있을 뿐이었다. 제대로 된 외과 의사가 거기 있기만 했어도, 그가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지만 앓았어도 그들은 그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게 마린과 무슨 상관이었겠는가? 그는 마린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남자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날 처음 만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영어도 못하는 멕시코 이민자였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잔뜩 주눅 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마린은 새벽 3시에 그녀의 코트와 아스피린 조금과 함께 집으로 보내졌다. 그녀가 그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춤을 추다가 그를 만났고, 이름이 제랄도이고, 편한 셔츠와 초록색 바지를 입었으며, 그와 함께 춤을 추었다는 것뿐이었다. 경찰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51) 모두 스페인풍의 춤이다.

결국 그들은 제랄도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가 세 들어 살던 부엌 딸린 비좁은 방 두 개짜리 숙소도 보지 못했고, 그가 매주 환전해서 고향 집으로 보내던 돈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

그의 이름은 제랄도였다. 그리고 그의 고향 집은 다른 나라에 있었다. 그는 그곳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여기 온 것이었다. 제랄도의 가족은 그의 행방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궁금해 할 것이다.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와의 추억을 떠올려 볼 것이다. “제랄도는 북쪽으로 갔단다... 그 애는 혼자 먼 곳으로 떠났고, 언젠가부터 그 애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

에드나 아줌마의 딸 루시

루시⁵²⁾는 호리호리하고 키가 큰 숙녀다.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파란색 러시아풍 스카프를 하고 다닌다. 그리고 한 짝씩 잃어버렸는지 파란색, 초록색의 짝짝이 양말을 신고 다닌다. 그녀는 다 큰 어른이지만 놀기를 정말 좋아한다. 자기가 키우는 개 보보를 산책시키며 혼자 미소를 짓곤 한다. 루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녀는 함께 웃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혼자서도 잘 웃고, 즐거워한다.

루시는 에드나 아줌마의 딸이다. 에드나 아줌마는 우리 집 옆에 있는 큰 빌딩과 그 앞뒤 3개 아파트의 소유주다. 아줌마는 자기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 중 월세가 밀린 사람들에게 매주 고함을 지른다. 그래서인지 매주 몇 명은 그곳을 떠난다. 한번은 아줌마가 오리를 키운다는 이유로 임산부를 내쫓은 적도 있다. 매우 잘생긴 오리였는데도 말이다. 루시는 에드나 아줌마와 같은 집에서 산다. 루시가 암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딸이니 차마 내쫓지는 못한다.

루시는 어느 날 갑자기 망고 스트리트에 나타났다. 엔젤 바르가스가 우리에게 휘파람 부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우리 뒤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마치 황제와 나이팅게일⁵³⁾에 나오는 새의 소리처럼 아름다운 소리였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루시가 휘파람을 불며 걸어오고 있었다.

우리가 쇼핑을 갈 때면 그녀는 가끔 우리를 따라온다. 하지만 절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간혹 들어오게 되더라도 마치 사람 사는 집에 처음 들어가 본 야생동물처럼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루시는 사탕을 좋아한다. 우리가 베니 아저씨의 가게에 갈 때면 돈을 쥐어주며 뭔가 달콤한

52) 레이첼의 언니 루시와는 다른 사람이다. 레이첼의 언니는 Lucy이고 이 루시는 Ruthie이다.

53)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소설이다. 작중 나이팅게일이라는 새의 울음소리가 매우 아름답게 묘사된다.

것을 부탁한다. 이빨이 상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걸로 부탁한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는다. 가끔씩 루시는 “다음 주에는 치과에 가야겠어”하고 다짐했지만 정작 다음 주가 되어도 한번도 간 적이 없다.

루시는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낸다. 내가 그녀에게 농담을 건네면 그녀는 멈춰 서서 영동한 소리를 한다. “저 달은 마치 풍선처럼 아름다워” 또는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또는 하늘에 구름을 가리키며 “저기 봐. 말론 브란도⁵⁴⁾야”, “스핑크스가 잉크를 하고 있어”, “오... 내 왼쪽 신발이군” 등등 예측할 수가 없다.

한번은 에드나 아줌마의 친구들이 놀러 와서 빙고 게임을 하러 갈 건데 루시에게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들은 밖에서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루시는 계단에 서서 망설이다가 결국 2층 커튼 뒤 그림자로 비추어 보이는 에드나 아줌마한테 물었다. “엄마, 가는 게 좋을까요?” “난 상관없다. 네가 가고 싶으면 가.” 그림자가 답했다. 루시는 2층에서 차가 기다리는 곳을 한 번 내려다보고는 다시 물었다. “가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네가 가고 싶으면 가라니까?” 루시는 차를 조금 더 쳐다보았다. 결국, 차는 시동을 켜고 15분이나 기다리다가 그냥 가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루시네 집에 카드를 가져가서 함께 놀았다.

루시는 하려는 의지만 있었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이 많았다고 했다. 그녀는 휘파람만 잘 부는 게 아니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잘 춘다. 그녀가 조금 더 젊을 때는 많은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왔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중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결혼을 했다. 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예쁜 집을 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루시는 망고 스트리트에서 사는 걸까? 자기 집이 있으면서 왜 자기 엄마 집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걸까? 루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여기에는 잠깐 놀러 온 것이며 다음 주 주말에 남편이 와서 자기를 집으로 데려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수많은 주말이 지나가도 그녀는 여기에 계속 남아있었다. 사실 우리로서는 기뻐다. 그녀는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나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루시에게 보여 주곤 했다. 그녀가 마치 점자책을 읽는 것처럼 손으로 책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책은 정말 멋진 거야. 정말 멋져. 하지만 나는 더는 읽을 수 없어. 두통이 있거든. 다음 주에는 안과를 좀 찾아가야겠어. 난 예전에 아이들을 위한 책을 썼어. 내가 전에 얘기했었나?”

어느 날 나는 ‘해마와 목수’라는 책을 모두 외워버렸다. 루시에게 들려주고 싶어서였다. “해가 바다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빛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책의 내용을 읊어주는 동안 그녀의 눈에는 이따금 눈물이 맺혔다. 마침내 나는 마지막 문단을 읽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척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걸 먹어...” 루시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이빨이 예쁜 것 같아.” 그러고는 그냥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54) 미국의 영화 배우.

남쪽에서 온 얼

얼은 옆집 에드나 아줌마네 건물 지하에 산다. 에드나 아줌마가 매년 초록색 페인트를 칠하는 제라늄⁵⁵⁾ 화단 뒤에 산다. 우리는 항상 그 화단 위에 앉아서 놀았다. 어느 날 티토가 거기서 바퀴벌레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 얼의 지하실로 가는 계단에 앉아서 논다. 얼은 밤늦게 일을 하러 간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온종일 창문에 블라인드 커튼을 쳐놓는다.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고 놀 때면 가끔씩 그는 문밖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 썩기가 괴어져 있는 작은 나무문이 열리면 한숨을 내쉬는 듯한 문소리가 나면서 어두운 기운이 슬며시 새어나온다. 마치 비 맞은 책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 같은 곰팡내와, 습기도 새어 나온다. 얼이 일하러 가거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를 빼고는 그때가 우리가 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얼은 두 마리의 검은 개를 키우는데 항상 그를 졸졸 따라다닌다. 그 개들은 보통 개들처럼 견지 않는다. 마치 ‘(따옴표)나 ,(침표)처럼 유연하게 재주를 넘으며 다닌다. 매일 밤 나와 네니는 얼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리를 듣는다. 먼저 끼익 하고 자동차 타이어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 차 문이 열리는 소리, 신발이 무겁게 콘크리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난다. 그리고 흥분한 개들의 금속 이름표가 째랑째랑 소리를 내면서 째렁째렁 무거운 소리를 내는 얼의 열쇠뭉치 소리를 따라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문이 한숨 소리를 내며 열리고 은은한 습기가 문밖으로 흘러나온다.

얼은 주크박스⁵⁶⁾ 수리공이다. 그는 남쪽에서 무역을 배웠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목소리에는 남부 억양이 조금 섞여 있다. 그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굵은 담배를 피우고, 펠트⁵⁷⁾ 모자를 쓴다. 덥든 춥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무조건 펠트 모자다. 그의 집 안에는 레코드판들을 모아 놓은 상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가 문을 열 때 나는 것과 똑같은 곰팡내

55) 남아프리카 원산의 꽃으로 대개 붉은 색을 띤다.

56) 동전을 넣고 단추를 눌러 곡을 지정하면 음악이 나오는 장치.

57) 양털이나 그 밖의 짐승의 털에 습기, 열, 압력을 가하여 만든 천.

가 났다. 그는 컨트리와 웨스턴을 제외한 모든 레코드판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소문에 의하면 얼은 결혼을 했으며, 부인이 있다고 한다. 에드나 아줌마는 얼이 자기 집에 부인을 데려온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엄마도 그녀를 보았다고 했는데 엄마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굉장히 날씬하고, 금발 머리에 얼굴은 마치 햇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도롱뇽처럼 창백했다고 한다. 나 역시도 그녀를 한 번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거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다. 길 건너편에 사는 남자애들은 그녀가 키가 컸고 머리카락은 빨갛으며 짝 달라 붙는 분홍색 바지에 초록색 안경을 끼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모습에 대한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다. 매번 그녀가 망고 스트리트에 도착하면 얼은 기다란 팔로 그녀를 꼭 안아주고, 서둘러 방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이곳에 오래 머문 적이 없었다.

사이어

사이어가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언제 처음 눈치챘는지 모르겠다. 그 애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내가 그 애의 집 앞을 지나갈 때면 그 애는 자기 집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위에 앉아서 동전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애들은 나를 겁주거나 하지 않았다. 만약 그 애들이 그랬다 해도, 나는 겁먹은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난 길거리를 걸을 때 다른 여자애들과는 다르게 걸었다.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앞만 보며 나아갔다. 그 애가 날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내가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설령 그 애의 시선이라도 말이다. 그러려면 한 번은 그 애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그 애가 자전거를 타고 내 옆을 지나갈 때 딱 한 번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래야만 나 자신이 용기 있게 느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너무 오래 쳐다보고 말았다. 그 애는 자전거 위에서 휘청거리더니 주차되어있던 차와 광 부딪쳤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도망쳐 나왔다. 맙소사... 그런 눈으로 쳐다본다면 누구든 피가 얼어 버릴 것이다. 누군가 그런 눈으로 나를 본다면... 아빠는 그 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 애는 그냥 불량 청소년이야.” 엄마가 덧붙였다. “그 애와는 말도 섞지 마렴.”

얼마 후 사이어의 여자 친구가 나타났다. 사이어는 그 애를 로이스라고 불렀다. 그 애는 아담하고, 예뻐서, 기분 좋은 아기 냄새가 났다. 가끔 그 애가 사이어에게 먹을 걸 사주기 위해 가게로 달려가는 것도 보았다. 한번은 베니 아저씨의 가게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애를 보았다. 그 애는 맨발이었고, 조그만 발톱은 아주 연한 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어서 마치 조그만 조개 같았다. 그 애에게서는 향기로운 아기 냄새가 났다. 손은 다 큰 숙녀의 것처럼 커다랗고, 몸도 어른처럼 성숙했으며, 화장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애는 신발 끈을 묶을 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는데 말이다.

가끔 나는 그 애들이 웃고 떠드는 걸 엿듣곤 했다. 그럴 때면 버려진 맥주 캔들과 고양이들, 가로수들도 자기들끼리 떠드는 것 같았다.

사이어는 로이스를 자전거에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니거나, 함께 걷기도 했다. 나는 그 애들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로이스는 사이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으며, 사이어는 가끔씩 로이스의 신발 끈을 묶어주기 위해 멈춰서곤 했다. 엄마는 그런 부류의 여자애들은 결국 뒷골목으로 가게 되는 법이라고 했다. 신발 끈도 묶지 못하는 로이스. 그런 로이스를 사이어는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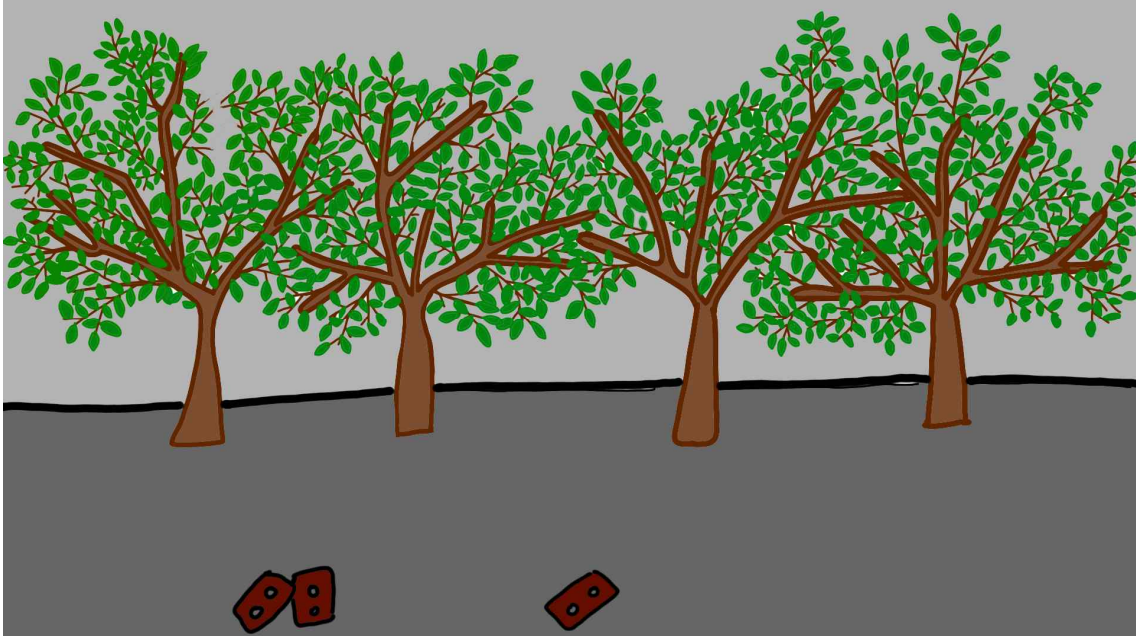
내 안의 모든 것이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있다.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단번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새롭고, 예쁘장한 걸 원한다. 요즘 따라 야밤에 불량스럽게 집 밖에 앉아있고 싶다. 그러면 남자애가 하나 다가와서는 내 목에 팔을 두르겠지. 그리고 바람은 기분 좋게 내 치마 밑을 스쳐 지나갈 것이다. 그래, 확실히 이건 아니다. 매일 밤마다 창문에 기대서 가로수들에게 말을 걸고 이뤄지지도 않을 상상을 하는... 이런 건 좋지 않다.

한번은 남자애가 나를 세게 안은 적이 있다. 확실히 그 팔의 감촉과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건 꿈이었다. 사이어, 너는 어떻게 그 애를 안아주니? 안아 보긴 했어? 이렇게? 언제 처음 그 애한테 키스했어? 이렇게? 이렇게 했어?

가느다란 네 그루의 나무

그 나무들이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다. 나 역시 그 나무들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다. 가느다란 목과, 나처럼 뽀족한 팔꿈치를 가진 네 그루의 나무. 불행히도 이곳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곳에 심어져 있는 네 그루의 나무. 시에서 마치못해 심어놓은 네 그루의 느릅나무.

네니는 그저 잠만 잔다. 바로 앞에 그들이 있는데도 그들의 고마움을 실감하지 못한다. 그들의 힘은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다. 힘차게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 위로도 자라고, 밑으로도 자라며, 덤수룩한 발가락으로 땅을 움켜잡고 격렬하게 하늘을 물어뜯으며 절대 자신의 분노를 거두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네 그루 중 한 그루라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의미를 잊게 된다면 그들은 모두 꽃병 속 튤립처럼 서로서로 팔로 부둥켜안고 시들어 버릴 것이다. ‘견뎌. 견디자. 견뎌야 해.’ 나무들은 내가 잘 때도 그렇게 되뇌며 열심히 견뎌낸다. 그들은 항상 나를 가르친다. 너무 슬픈 일이 있거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견뎌내기에 나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게 느껴질 때,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나 자신이 너무 외소하게 느껴질 때. 나는 그럴 때마다 그 나무들을 바라본다. 이 거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곳곳하게 자란 나무 네 그루. 항상 더 높은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나무 네 그루. 자신들의 존재만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얻는 나무 네 그루.



영어 못해요

마마시타⁵⁸⁾는 우리 집에서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3층 건물에 사는 남자의 아내다. 그녀는 매우 비대하다. 레이첼은 그녀가 마마소타⁵⁹⁾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하는 것 같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여기 데려오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다. 아기와 단들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그녀를 위해 돈을 모으고, 또 모았다. 그는 지금도 일을 두 개나 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온다.

어느 날 마마시타와 아기가 노란 택시를 타고 망고 스트리트에 도착했다. 택시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작은 분홍색 신발이 땅을 밟았다. 그 신발은 토끼의 귀처럼 부드러워 보였다. 그다음 굵직한 발목이 보이고 커다랗고 출렁이는 엉덩이가 나오면서 푸크시아⁶⁰⁾와 장미의 향이 났다. 하지만 그녀의 몸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기 위해 남편이 밖에서 그녀를 끌어당기고, 택시 기사는 안에서 그녀를 밀어야 했다.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마침내 푹! 육중한 소리를 내며 빠져나왔다.

거대하고 또 거대한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연어 살 같은 주황색 깃털을 꽃은 모자부터, 장미 꽃봉오리 같은 발끝까지... 그녀는 파란색 담요에 아기를 싸안고 그의 집 계단을 올라갔다. 남편은 그녀의 옷 가방을 들고 뒤따랐다. 그 후에도 남편은 그녀의 라벤더 향 모자 상자와, 번쩍번쩍한 하이힐이 담긴 10여 개의 상자도 열심히 날라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간 후 그녀는 더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누군가는 너무 뚱뚱해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계단 때문에 위에서 내려 올 수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녀가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영어를 전혀 못 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인 것 같다. 아마 그녀가 아는 영어 표현은 이 3개뿐일 것이다. “He not here(그는 여기 없어요).” 이걸 집주인이 찾아갔을 때 썼

58) 스페인어로 ‘매력적인 여자’라는 뜻으로 쓰인다.

59) 뚱뚱한 마마시타라는 뜻.

60) 대개 보랏빛을 띄는 꽃으로 방울꽃과 닮았다.

다. “No speak English(영어 못해요.)” 이걸 누구라도 낯선 사람이 찾아가면 썼다. 그리고 “Holy smokes(맙소사!)” 대체 그녀가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그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아빠의 말에 의하면 그녀의 남편이 여기에 처음 왔을 때는 3달 동안 꼬박꼬박 햄과 계란만 먹었다고 한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 햄과 계란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가 아는 유일한 영어 단어가 햄과 계란이었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그는 이제 더 이상 햄과 계란을 먹지 않는다.

똥똥하기 때문이든, 계단을 내려올 수 없기 때문이든, 아니면 영어를 할 수 없어서든 아무튼 그녀는 내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창가에 앉아서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라디오 방송을 듣거나 갈매기 같은 목소리로 모국과 고향 집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불렀다. 고향집... 그녀는 고향 집을 사진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다. 온통 분홍빛으로 칠해져 있으며, 햇빛을 잘 받는 접시꽃처럼 보이는 그녀의 고향집... 남편이 집 외벽을 분홍색으로 칠해 보았지만 그런다고 고향집과 같아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고향집을 잊지 못해서 늘 한숨을 내쉬고 흐느껴 울었을 것이다.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남편은 그런 태도를 불쾌해하다가 가끔 참다못해 고함을 치곤 했다. 그럴 때면 온 동네에 그 소리가 울렸다. “네 알겠어요...” 그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항상 슬퍼했다. “제발 그만 좀 해!” “cuándo? cuándo? cuándo?(언제쯤? 언제쯤? 대체 언제쯤 돌아갈 수 있죠?)” “Ay caray!(제기랄!) 여기가 집이야.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영어를 써! 영어로 말해보라고! 오... 예수님!”

이곳에 스며들지 못한 마마시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마치 자신의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막혀버린 것처럼 소리 높여 울었다. 그때, 비극적이게도 마침 그녀의 심장을 영원히 찢어버릴 일이 일어났다. 그들의 어린 아기가 TV에서 나오고 있는 펩시콜라 광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영어는 안 돼!” 아기가 따라 부르는 노래는 그녀에게는 강통 소리 같이 들리는 이 나라의 말이였다. “영어는 안돼... 영어는...” 그녀는 눈물을 방울방울 쏟았다. “안돼... 안돼...” 자기가 들은 걸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흐느꼈다.

라파엘라의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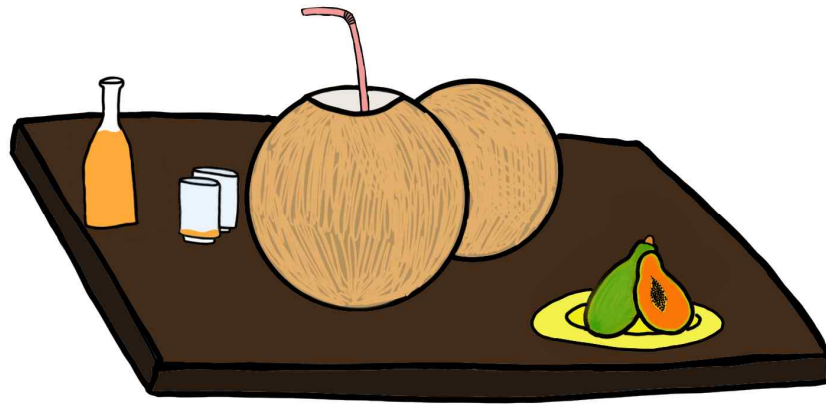
라파엘라의 남편은 매주 화요일마다 도미노 게임을 하다가 늦게 들어온다. 라파엘라는 아직 젊지만 하루 종일 창문에 몸을 기대 채 조금씩 늙어가고 있다. 그녀의 남편이 아름다운 라파엘라가 도망칠까 두려워 문을 잠궈 놓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도 없다.

라파엘라는 창밖으로 몸을 내민 뒤 턱을 괴고 자기 머리카락이 라푼젤 같으면 어떨까 상상한다. 자기가 더 늙기 전에 음악이 흘러나오는 길모퉁이 술집에 가서 신나게 춤을 춰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녀와 만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는 온종일 갇혀있는 그녀의 존재를 잊는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다시 그 집 2층에서 우리를 부른다. “애들아, 1달러를 줄 테니 가게에 가서 뭔가 좀 사다 줄래?” 그리고는 꾸깃한 1달러를 밑으로 던진다. 그녀가 부탁하는 건 대부분 코코넛 주스인데, 가끔씩 파파야 주스일 때도 있다. 우리가 주스를 사오면 그녀는 빨랫줄에 종이 가방을 매달아서 내려보낸 다음 우리가 가방에 주스를 담아주면 위에서 끌어 올린다.

라파엘라는 화요일마다 코코넛이든 파파야든 항상 주스를 마셨지만 뭔가 더 달콤한 걸 마시고 싶어 했다. 텅 빈 그녀의 방처럼 공허하고 쓰디쓴 것이 아닌, 아늑한 외딴 섬처럼, 길모퉁이 술집에 있는 여자들의 삶처럼 달콤한 것을 원했다. 길모퉁이 술집의 여자들은 라파엘라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주사위를 던지듯 쉽게 질투 섞인 눈빛을 던진다.

라파엘라는 잠겨있는 문을 열고 싶어 한다. 문밖에는 항상 달콤한 주스를 사주겠다는 사람들과, 비밀의 은줄처럼 은밀한 만남을 지속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샬리

샬리는 이집트 사람처럼 날카롭고 예쁜 눈을 가진 여자애다. 회색 나일론 스타킹을 신고 다닌다. 학교에 가면 그 애는 모든 남자애들에게 예쁘다는 소릴 듣는다. 아마 샬리가 웃을 때 그 애의 매력적인 새까만 머리카락이 한순간 까마귀 깃털처럼 빛나기 때문인 것 같다. 그 애는 웃을 때 고운 솔을 넘기듯 머리를 우아하게 어깨 뒤로 넘긴다.

하지만 샬리의 아빠는 지나친 아름다움은 오히려 문제를 불러온다고 했다. 샬리의 가족은 아빠의 종교를 매우 엄격하게 따른다. 심지어 춤도 출 수 없고, 마음대로 외출할 수도 없다. 샬리의 아빠는 혼자 외출했다가 봉변을 당한 누이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샬리는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생각인 모양이다.

샬리, 누가 너에게 클레오파트라⁶¹⁾처럼 눈 화장 하는 법을 가르쳐 준거니? 그 솔에 침을 살짝 묻혀서 질척한 화장품을 뜨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니?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을래? 나는 너의 그 검은 코트와 검은 신발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건 어디서 산 거니? 우리 엄마는 우리 같은 어린애들이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했어. 그치만 나도 니거랑 똑같은 신발을 사고 싶어. 그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검은 신발. 어느 날 엄마가 기분이 좋아 보이면... 내 다음 생일쯤 해서 나일론 스타킹도 함께 부탁해야겠어.

세릴은 더 이상 네 친구가 아니지. 부활절 전 마지막 화요일부터 말이야. 네가 실수로 그 애의 귀에 피를 나게 했더니 한동안 그 애가 네 험담을 하고 다녔잖아. 그러다가 마침내 그 애가 걱정하고 네 팔을 물어뜯었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서 겨우 진정되었어. 모두 네가 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는 끝내 울지 않더라. 그 후로 너는 학교 담장에 기대서 함께 수다를 떨 친구가 없어졌고, 남자 애들이 무슨 말을 떠벌리든 함께 웃어 넘겨줄 친구가 없어졌지. 이제 네가 깜빡하고 빗을 안 가져왔을 때 너한테 빗을 빌려줄 친구도 없어졌어. 남자애들이 탈

61)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최후의 여왕으로 위험한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의실에서 하던 얘기는 사실이 아니야.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는 학교 담장에 눈을 감고 혼자 기대 서 있었지.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너를 보지 못 할 거라는 듯이. 네가 거기에 서 있다는 걸 아무도 보지 않고 지나쳐 갈 거라는 듯이... 그때 눈을 감고 무슨 생각을 했니? 그리고 도대체 왜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버리는 거니? 넌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 것 같아. 이제는 치마도 길게 내려 입고, 푸른색 눈 화장도 문질러 지워버렸구나. 통 웃지도 않고, 발끝만 쳐다보며 걷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는 나오지도 않는구나.

샬리, 가끔씩은 집에 가기 싫을 때도 있지 않니?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던 너의 발끝을 집에서 멈추지 않고 걷고, 또 걸어서 망고 스트리트에서 벗어나 보고 싶지 않니? 계속 걷다 보면 너는 어느 낮은 집 앞에 멈춰 서게 될 거야. 그 집은 정원에 꽃들이 잔뜩 피어있고, 커다란 창문이 달려 있을 거야. 멋진 계단을 두 칸씩 뛰어 올라가면 아늑한 방 하나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창문의 걸쇠를 풀면 아담한 창문이 활짝 열리겠지. 그러면 넓은 하늘이 한눈에 들어올 거야. 거기에는 참견쟁이 이웃들도 없고, 시끄러운 오토바이나 차들도 없어. 이불이나 수건 같은 빨랫감도 없으며, 거기에 있는 건 오직 수많은 나무들과 넓고 넓은 푸른 하늘뿐이야. 거기 가면 너도 실컷 웃을 수 있겠지. 거기서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어. 너를 좋다거나 싫다거나 판단할 사람들도 없어. 그냥 눈을 감고 편히 있어도 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할 필요 없어. 넌 이미 이곳 사람이 아닐 테니까. 아무도 너를 슬프게 하지 않을 거고, 너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넌 그저 꿈을 쫓는 소녀일 뿐이니까. 불량하게 어둠 속에서 자동차에 기대고 서 있는 너를 보더라도 아무도 고함치지 않을 거야. 니가 어떠한 것에 기대고 서 있더라도 마찬가지지. 너를 나쁘게 볼 사람은 없어. 아무도 너를 질책하지 않을 거야. 니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질 나쁜 사람들도 없어. 샬리야. 니가 원하는 건 그저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잖아. 아무도 그걸 미쳤다고 할 수 없어.

미네르바는 시를 쓴다

미네르바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을 뿐인데 벌써 아이가 둘이다. 하지만 가엾게도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다. 미네르바의 엄마도 아이들을 혼자 키워냈는데 그 딸들마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 미네르바는 매일 밤낮을 자신의 불운한 처지를 슬퍼하며 보낸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녀가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아이들이 잠들면 그녀는 여러 번 접어서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동전 냄새가 나는 종잇조각에 시를 쓴다.

그녀는 자기가 쓴 시들을 내게 보여주었다. 나도 내 시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미네르바는 불길에 휩싸인 집처럼 언제나 슬프고, 언제나 불안해하며, 항상 뭔가가 잘못되어있다. 그녀는 늘 넘쳐나는 문제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일 것이다. 어느 날 그녀는 사랑이 식었던지 남편에게 이제 충분하다고 끝내자고 했다. 그러자 그는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 그녀는 그의 옷가지와 레코드들, 신발들을 모두 창밖으로 던져버리고는 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날 밤에 돌아왔고, 커다란 돌을 창문으로 집어 던졌다. 그녀가 그를 만나주자 용서를 빌었고, 그녀는 결국 다시 그를 받아주었다. 뻔한 이야기인 것이다. 지금 그녀의 남편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계속 그녀의 속을 썩이며 살고 있다.

얼마 후 그녀는 군데군데 시퍼렇게 멍든 얼굴로 내게 찾아와서는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미네르바... 나도 그녀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락방의 부랑자들

언덕 위에 집을 한 채 갖고 싶다. 아빠가 정원사 일을 해줄 멋진 정원도 딸려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빠가 일을 쉬는 일요일마다 그 집에 구경을 갔다. 정확히 나의 상상 속 집과 맞아떨어졌다. 언덕 위에 지어져 있고, 정원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는 함께 가지 않는다. “이제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나?” 아빠가 말했다. “거만해진 거죠.” 네니가 건방지게 끼어들었다. 나는 거기 구경 가는 것이 부끄러워졌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집 앞에 서서 굶주린 사람들처럼 그 집을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얻을 수 없는 걸 바라보는 것에는 질렸다. “복권에 당첨만 된다면...” 엄마가 말했다. 나는 예전부터 이미 그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데 익숙했다.

언덕 위에 있는 집. 별들과 가까운 곳에서 자는 사람들은 언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 언덕 위에 올라간 순간부터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삶, 언덕 위의 풍요로운 삶에 그저 만족할뿐 아래는 전혀 내려다보지 않는다.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못해서 저번 주 쓰레기가 쌓여있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생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밤이 오면 아무도 그들의 잠을 방해하지 못한다. 굳이 따지자면 바람 정도가 그들의 코를 간지럽힐 수 있겠다.

언젠간 나는 나만의 집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원래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잊지 않을 것이다. 지나가던 부랑자가 내 집 앞에 멈춰 서서 “안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물으면 나는 오히려 다락방을 내줄 테니 머물러 주지 않겠냐고 부탁할 것이다. 집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날 집에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벽난로 앞에 앉아 있으면 다락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날 것이다. 그러면 손님들이 묻겠지. “생쥐인가요?” “부랑자들이예요.” 나는 이렇게 대답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낄 것이다.

아름다움과 잔인함

나는 못생긴 딸이다. 아무도 내게 먼저 다가와 주지 않는다.

네니는 평생을 자기 신랑감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허비하지 않겠다고 한다. 미네르바의 여동생은 아기를 갖더니 친정집을 나가 버렸다. 네니는 그렇게도 되지 않겠다고 한다. 네니는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 거라고 한다.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골라가면서 말이다. 네니의 눈은 척 보기에도 예쁘다. 그런 예쁜 애들은 손쉽게 자신의 꿈을 술술 얘기한다. 엄마는 늘 내가 조금 더 자라면 보기 지저분한 머리카락도 얌전하게 정돈될 거고, 그러면 깔끔하게 블라우스를 입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커서 절대로 다른 여자들처럼 길들여지고, 속박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을 속박할 쇠사슬을 문지방에 서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은 항상 입술을 새빨갳게 칠하고, 매우 아름답지만 그만큼 매우 잔인하다. 그녀들은 남자들을 미치도록 홀려놓고 그저 웃으며 떠나버린다. 그건 그녀들의 힘이다. 예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언젠가부터 나 혼자만의 조용한 전쟁을 시작했다. 간단하다. 식탁에서 일어날 때 남자들처럼 힘차고, 자신 있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의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거나, 접시를 치우는 잡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똑똑한 쿠키

“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알겠니?”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는 평생 이 도시에서 살아왔다. 두 개의 언어를 할 줄 알고, 오페라도 부를 수 있으며, TV도 고칠 줄 안다. 하지만 엄마는 시내로 나가려면 어떤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모른다. 지하철을 기다릴 때 나는 불안해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아준다.

시간이 생기면 엄마는 뭐든 손재주를 부린다. 요즘은 장미꽃 봉오리를 바느질해서 수놓고, 비단실로 튜립도 수놓는다. 언젠가는 발레공연도 보러 가고 싶다고 하고, 연극도 보러 가고 싶다고 한다. 엄마는 공공 도서관에서 레코드판을 빌려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나팔꽃 같은 입을 하고 힘차면서도 부드럽게 노래를 부른다. 엄마는 오늘 오트밀⁶²⁾을 만드는 동안 나비부인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한숨을 크게 한번 쉬더니 나무 주걱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알겠니? 에스페란사,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렴.” 엄마가 오트밀을 휘저으며 말했다. “내 친구들을 봐라.” 엄마의 친구들... 이사우라 아줌마는 남편이 집을 나갔고, 올란다 아줌마는 남편이 죽었다. “그냥 너의 학업에만 집중하렴.”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 “부끄러움이란 건 좋은 게 아니란다. 알겠니? 그건 사람을 축 처지게 만들고, 주눅 들게 만들거든.” “왜 내가 학교를 그만뒀는지 알고 싶니? 예쁜 옷이 없었기 때문이야. 옷이 없었어... 하지만 머리는 꽤나 좋았지. 그랬고말고.” 엄마는 헛구역질을 한번 하고 다시 오트밀을 저으며 말했다. “그때 나는 똑똑한 쿠키⁶³⁾였거든.”

62) 귀리로 만든 죽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아침밥으로 먹는다.

63) (Smart cookie)영어 문화권에서 똑똑하고, 어려운 상황을 재치 있게 잘 극복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샬리의 이야기

“절대로 나를 세계 때리지는 않아.” 그 애는 상처 난 곳을 돼지기름으로 문질러 주고 있던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다. 만약 샬리가 그날 학교에 갔다면 그냥 학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을 것이다. 학교는 항상 우리에게 온갖 명이 들게 하고, 다치게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런다고 누가 샬리의 말을 믿겠는가. 샬리 같이 다 큰 여자애가 그 예쁜 얼굴이 온통 명으로 가득 차도록 계단에서 넘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절대로 나를 세계 때리지는 않아.”

하지만 샬리는 돼지기름을 발라주던 엄마에게 아빠가 개를 두들겨 패듯 주먹을 휘둘러 자기를 때린 일은 얘기하지 않았다. 그땐 마치 동물이 된 기분이었다고 한다. “아빠는 우리 가족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고모처럼 나도 도망가 버릴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저 내가 딸이기 때문일까...” 샬리는 거기까지만 말했다.

어느 날 샬리는 잠시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싶어 했다. 나는 당연히 허락했고, 어느 목요일에 샬리는 마침내 옷을 넣은 커다란 자루와 그 애의 엄마가 싸준 달콤한 빵이 담긴 종이봉투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왔다. 그러나 그날 밤 한참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샬리의 아빠가 찾아와서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제발 돌아와 주렴. 다신 안 그럴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샬리는 바로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집으로 가버렸다.

그 후로 한동안 우리는 샬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샬리가 어떤 남자애랑 이야기하고 있는 걸 그 애 아빠가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 다음 날부터 샬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샬리가 해준 얘기에 따르면 샬리의 아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벨트에 붙은 쇠붙이로 샬리를 가차 없이 때렸다고 한다. “넌 내 딸이 아니야! 넌 내 딸이 아니라고!” 한참을 때리다가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내어 울었다고 한다.

원숭이 정원

이제 그 정원에는 더 이상 원숭이가 살지 않는다. 자기 주인들과 함께 켄터키주로 가버렸다. 원숭이가 사라졌을 때 나는 매우 기뻐했다. 그 후로는 밤중에 그 시끄러운 원숭이 울음소리와 '트웬지 야키티약'하고 괴상하게 들리는 원숭이 주인들의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초록색 원숭이 우리와 도자기 책상, 원숭이 주인들의 기타 소리 같던 목소리. 모두 한꺼번에 사라졌다. 그 후 우리는 원숭이가 누런 이빨을 드러낸 채 끔찍한 소리를 내며 달려들까 봐 무서워서 멀리하던 그 정원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화성이나 있을 법한 커다란 해바라기들이 있었다. 새빨간 맨드라미들은 극장 커튼 끝자락에 달린 장식만큼이나 풍성하게 주렁주렁 꽃술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꿀벌들과 나비넥타이를 맨 것 같은 과일 파리들이 어지럽게 빙빙 돌며 재주를 넘고 있었다. 달콤한 향을 풍기는 복숭아나무, 가시 장미들, 엉겅퀴, 배나무들, 사팔뜨기벌처럼 생긴 잡초, 발목에 살짝만 스쳐도 비누로 씻어내기 전까지 엄청나게 가려운 풀도 있었고, 무릎뼈 마냥 단단한 초록색 사과도 있었다. 그리고 사방에서 나무가 썩으며 사람을 졸리게 만드는 냄새가 났다. 푸른빛이 살짝 도는 죽은 사람의 금발 머리 같이 보이는 접시꽃들이 매우 습한 땅에서 자라면서 향을 뿜어댔다.

우리가 바위 같은데 올라가면 거기 앉아있던 노란 거미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햇빛을 무서워하는 조그만 벌레들은 몸을 말고 각자 집으로 숨어 들어갔다. 습한 모래땅을 막대기 같은 거로 들쭉해보면 땅속에 숨어있던 늘씬한 푸른색 딱정벌레들이 나타났다. 개미들이 줄지어 다니고, 무당벌레들도 많았다. 그 정원은 봄에 가장 아름다웠다. 하지만 원숭이가 떠난 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꽃들은 가로막는 벽돌들에 굴하지 않고 벽돌을 넘어서 자란다. 그리고 밤이 되면 무성한 잡초 속에서 마치 한 무리의 버섯처럼 고장 난 차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고장 난 차는 처음에는 고작 한 대가 있을 뿐이었는데, 점점 버려진 차의 수가 많아지더니 이윽고 앞 유리창이 없는 연한 파란색 픽업트럭도 나타나고 결국 원숭이 정원은 자동차들의 무덤

이 됐다. 그러나 그 정원 안에 버려져 있던 것들은 종종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 마치 정원이 그걸 먹어 치워버린 것처럼. 노인들의 기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듯 말이다. 네니는 나팔꽃이 자라는 돌담 사이에서 1달러를 주웠다. 어린 예전에 거기서 죽은 쥐도 발견했다. 그리고 한번은 숨바꼭질을 할 때 에디 바르가스가 히비스커스 나무⁶⁴) 밑에 머리를 두고 곱아떨어져 있다가 우리가 깨우자 립 벤 윙클⁶⁵)처럼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한참을 정신없이 놀다가 누군가 그 애가 보이지 않는 걸 눈치채서 모두가 찾아다니다가 운 좋게 발견했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놀았던 이유는 아마 그렇게 하면 엄마들이 우리를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한번은 늙은 개 몇 마리와 함께 버려진 차 안에서 아예 눌러살기도 했다. 그 앞 우리가 없는 픽업트럭 짐칸에 클럽 하우스까지 만든 적도 있다. 우리는 버려진 차의 지붕 위를 버섯 점프대라도 되는 듯이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언젠가 누군가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원숭이 정원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먼저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 정원에 뭔가를 숨기면 한 천 년 동안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슬을 잔뜩 머금은 꽃들의 뿌리 밑에는 살해당한 해적의 유골과 공룡들의 뼈, 이제는 석탄처럼 변해버렸을 유니콘의 눈이 묻혀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나는 원숭이 정원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한번은 시도도 해봤지만, 정원이 그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날은 내가 원숭이 정원에 간 마지막 날이었다. 누군가 “난 이제 여기서 놀 나이가 지났어” 하고는 짹째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확실한 건 남자애들이 원숭이 정원을 힘껏 달리기 시작할 때 나도 함께 달리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달렸다. 남자애들을 따라 원숭이 정원의 사방을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하지만 셸리는 아무리 불러도 따라오지 않았다. 자기 스타킹에 흙탕물이라도 튄 듯 짜증을 냈다. 셸리는 “그 애들이랑 놀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난 여기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티토와 그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애들과 수다를 떨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애를 거기 놔두고 다시 달렸다. 그건 전적으로 모두 셸리의 잘못이었다.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 셸리는 화를 내는 시늉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남자애들이 셸리의 열쇠뭉치를 빼앗아 버린 것이었다. “제발 돌려줘.” 셸리는 주먹을 쥐고 가까운 남자애를 부드럽게 툭 때렸다. 그러자 모두 웃었다. 셸리도 웃었다.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난이었다. 나는 같이 뛰어놀던 남자애들과 함께 그냥 집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셸리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러다가 티토네 친구들 중 한 명이 규칙을 만들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자기들에게 키스를 해주지 않으면 열쇠뭉치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셸리는 계속 화난 시늉을 하다가 이윽고 알았다고 대답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옆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나는 실실 웃으며 셸리를 정원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는 티토와 친구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냥 키스일 뿐이야. 한 명씩 키스해주면 끝나는 거라구.” 셸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 애들을 따라갔다. 셸리는 태연해 보였지만 나는 속이 타들어 갔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다. 셸리는 연한 파란색 픽업트럭 뒤로 사라졌다. 나는 서둘러 원숭이 정원 옆에 있던 티토네 집으로 달려가서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티토의 엄마는 담배를 피우면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며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아줌마 아들이랑 그 친구들이 셸리의 열쇠뭉치를 빼앗고는 키스를 해주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기들한테 키스하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계단

64) 무궁화의 일종인 꽃이다.

65) 윈스턴 어빙의 소설 속 주인공으로 세상의 변화에 놀라는 사람을 말한다. 작중에서는 세상모르고 잠들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걸 알고 깜짝 놀랐다는 뜻으로 쓰였다.

을 뛰어 올라오면서 차 있던 숨을 겨우 골라가며 말했다. “그 애들이?” 그녀는 다리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다. “그게 다냐?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니? 경찰이라도 부를까?” 그리고는 다림질을 계속했다. 나는 멍하니 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생각해보니 할 말이 없었다. 결국 나는 다시 계단을 뛰어 내려와서 샬리가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정원으로 달려갔다. 나는 굵직한 막대기 세 개와 벽돌 하나로 무장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열심히 달려서 그곳에 도착했더니 샬리는 나보고 그냥 집에 가라고 했고, 남자애들은 제발 자기들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 난 벽돌을 쥐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 바보처럼 느껴졌다. 모두 나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다.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곳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왔다. 그리고는 정원의 한쪽 구석에 몸을 숨겼다. 오랫동안 서럽게 울더라도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나무 아래 수풀이 우거진 곳에 숨었다. 눈을 질끈 감고 울음을 참으려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내 안에 모든 것이 서러움의 딸꾹질을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았다. 책에서 인도 어딘가에 심장 박동을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 있는 수도승이 있다는 걸 읽은 적이 있다. 난 온몸에 도는 피를 멈추게 하고 싶었다. 그 수도승처럼 내 심장 박동도 멈추게 하고 싶었다. 차라리 죽고 싶었다. 하늘에서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다. 나는 차라리 두 눈이 그냥 눈물을 흘리며 땅속으로 녹아 들어가길 바랐다. 두 마리의 검은 달팽이처럼... 그렇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내가 몸을 일으켰을 때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옷은 풀물이 들어 군데군데 초록색 얼룩이 배어 있었다. 나는 내 발을 내려다보았다. 더러워진 흰 양말과 헤지고 볼품없는 구두가 마치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 발이 아닌 것 같았다. 그토록 멋진 놀이터였던 원숭이 정원도 실망스럽게 보일 뿐이었다.

빨간 왕관

샬리, 넌 거짓말을 했어. 내가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르잖아. 그놈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어딜 만졌는지 아냐고. 난 절대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 그들의 태도를 좀 봐. 저런 뻔뻔한 태도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봤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니?

나는 그 빨간 왕관 앞에서 기다렸어. 내가 말한 대로 그 놀이기구 앞에서 기다렸단 말이야. 사실 난 그런 카니발에 있는 놀이동산 같은 데 좋아하지도 않아. 그동안 너와 함께 갔던 건 그냥 내가 너무 환하게 웃길래, 너무 즐거워하길래 그랬던 거야. 놀이기구를 탈 때 너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정말 신나 했었지.

난 네가 계속 서성이는 걸 봤어. 내 앞을 몇 번이나 지나쳐 갔는지 세어보기도 했지. 그 남자애들이 너한테 짹짹했던 건 아마 네가 예쁘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었어. 샬리, 너는 내 친구잖아. 그 덩치 큰 녀석들이 대체 널 어디로 데려갔던 거야? 나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 내가 말한 그 빨간 왕관 앞에서 기다렸다고. 하지만 넌 끝내 오지 않았잖아. 넌 오지 않았어. “샬리! 샬리!” 한 백번은 부른 것 같아. 그렇게나 불렀는데 왜 오지 않은 거야? 듣지 못한 거야? 왜 그들에게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 안 했어? 갑자기 덩치 큰 사람이 다가오더니 내 팔을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았어. 그놈이 뭐랬는줄 알아? “사랑해, 스페니쉬 아가씨. 사랑해...” 그러면서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입을 짓눌렀단 말이야! 샬리, 왜 그놈들을 막아주지 않은 거야? 난 혼자 힘으로 그놈들을 떼어낼 수 없었어. 눈물을 흘리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지금 난 그들의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 너무 어두웠어. 얼굴조차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제발 그 얘기를 자세히 듣고 싶어 하지 마. 대체 왜 날 혼자 놔둔 거니? 진짜 한평생 너만 기다린 것 같아. 넌 거짓말쟁이야. 그놈들도 계속 거짓말만 했어. 모든 책과 잡지에서 하는 소리도 다 거짓말이야. 그놈의 더러운 손톱이 내 피부에 닿았을 때 느낌과 그 끔찍한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 하늘에 뜬 달과 빨간 왕관이 함께 혀를 내밀고 깔

깔 웃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세상의 모든 색깔이 소용돌이처럼 빙빙 돌기 시작했어. 하늘이 획 하고 뒤집히더라고. 그러자 그놈들이 앞 다 튀 도망치더라.

샬리, 넌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했다고! 그들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 그리곤 이렇게 말 하더라. “사랑해, 스페니쉬 아가씨. 사랑해...”

장미 장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결국 샬리는 결혼을 했다. 샬리는 아직 어리고 결혼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냥 무작정 해버렸다. 샬리가 만난 남자는 학교 바자⁶⁶⁾에서 마시멜로를 팔던 사람이었다. 그들은 8학년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게 합법인 다른 주에 가서 결혼했다.⁶⁷⁾ 샬리는 이제 남편과 집을 얻었다. 그리고 자신의 베갯잇과 접시들도 생겼다. 자기 말로는 사랑에 빠졌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자신의 암울했던 일상에서 탈출하기 위해 결혼한 것 같다. 샬리는 결혼 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한다. 특히 남편이 주는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한다.

샬리의 결혼생활은 행복하다. 가끔씩 남편이 화를 낼 때 빼고는 말이다. 한번은 화가 나서 발로 문을 걸어차다가 문을 뚫어버렸다고 한다. 그는 그래도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하지만 샬리가 전화기에 매달려서 온종일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참지 못하고, 샬리가 창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샬리의 친구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일하러 나갔을 때 샬리를 만나러 간다.

그가 일하러 가면 샬리는 온종일 마냥 집에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샬리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하나씩 살펴본다. 수건들과 토스터, 자명종과 커튼 같은 것 말이다. 그리고 가만히 벽을 바라보며 벽지가 구석구석 얼마나 정확하게 붙어있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 장미가 그려진 장판을 쳐다보고, 마지막으로 결혼식 케이크처럼 매끄럽고 고운 천장을 바라본다.

66) 공공 또는 사회사업의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벌이는 시장.

67) 미국에서는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세 자매

그녀들은 가느다란 거미줄처럼, 8월에 부는 미세한 바람처럼 조용히 망고 스트리트에 왔다. 그 세 명의 자매는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 같은 달을 바라본다는 것 외에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다. 한 명은 웃음소리가 깡통 소리와 닮았고, 한 명은 눈이 고양이를 닮았으며, 한 명은 도자기처럼 탁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들은 내 이모들이었는데 자기들을 **las comadres**(여성 친구들)이라고 불렀다.

아기가 한 명 죽었다. 루시와 레이첼의 여동생이었다. “어느 날 밤 개가 시끄럽게 짖더니, 그 다음 날은 노란 새 한 마리가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지. 주말이 되자 아기의 열은 점점 높아져 갔고, 끝내 예수님이 오셔서 아기를 멀리 데려가셨구나.” 루시와 레이첼의 엄마가 슬픔에 잠긴 채 말했다. 아기의 장례를 치를 때가 되자 루시네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작은 집에 설새 없이 손님들이 들락날락해서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 집 벽지가 무슨 색이었는데도 기억 못 할 정도로 다녀간 지 오래 된 사람들도 사탕처럼 생긴 상자 안에 누워있는 아기의 작은 엄지손가락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나는 그전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이에게 가볍게 키스를 하고 축복을 빌어준 다음 촛불을 밝히는 그런 광경이 낯설었다.

그 자매들은 세상만사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든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었다. “이리로 와 보거라.” 갑자기 그녀들이 나를 불렀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들은 길쭉한 껌을 하나 주었다. 그녀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물티슈나 고급 핸드백의 냄새와 비슷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그녀들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이름이 뭐니?” 고양이 눈을 가진 사람이 물었다.

“에스페란사예요.”

“에스페란사!”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푸른 핏줄이 드러난 사람이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에스페란사. 아주아주 좋은 이름이구나.”

“무릎이 아프군.” 괴상한 웃음소리를 내는 사람이 구시렁거렸다.

“내일은 비가 올 거야.”

“그래. 내일은 비가 오겠지.”

“그걸 어떻게 아시죠?” 내가 신기해서 물었지만, 그녀들은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우리는 안단다.”

“그 애의 손을 한번 봐.” 고양이 눈이 말했다. 그녀들은 내 손에서 뭔가를 찾기라도 하려는 듯 내 손을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살펴보았다.

“이 아이는 특별하군.”

“그래. 이 아이는 먼 곳으로 떠날 거야.”

“맞아 맞아... 흠... ”

“소원을 하나 빌어보렴.”

“소원이요?” 내가 살짝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래. 소원을 빌어봐.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니?”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래. 안될 게 뭐 있겠니?”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다했니?”

“네.”

“그래. 그러면 다 됐다. 이제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거야.”

“그걸 어떻게 아시죠?”

“우린 안단다. 우린 알아...”

“에스페란사.” 두 손이 대리석 같은 사람이 나를 자기 곁으로 불렀다. 그녀는 푸른 핏줄이 드러난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고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언젠간 여길 떠나더라도 꼭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걸 명심하렴.”

“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곳에 남겨질 사람들을 꼭 기억하라는 소리야. 인생은 둥근 원과 같아서 늘 돌고 도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는 언제나 에스페란사일 거고, 언제나 망고 스트리트의 일부분일 거거든. 그걸 지워버릴 수는 없을 거야. 너 자신이 누구인지만은 잊을 수 없을 거야.”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마치 내 마음을 모두 읽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빌었던 소원을 그녀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너무나 이기적인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돌아와야 한다는 걸 부디 명심해라. 지금의 너처럼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이다. 그렇게 할 거지?” 그녀는 내 다짐을 들으려는 듯 물었다.

“네... 네.” 나는 약간 혼란스러워 하며 대답했다.

“좋아.” 그녀가 내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좋아. 그것뿐이란다. 이제 가도 된다.”

난 아까부터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루시와 레이첼에게로 돌아갔다. 그 애들은 내가 계피 향을 풍기는 3명의 나이든 여자들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척 궁금해 했다. 사실 나도 그녀들의 말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그녀들이 서 있던 곳을 돌아보니 그녀들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피어오른 건지 의문스러운 자욱한 연기에 휩싸여서 미소

를 지으며 손을 흔들며 주고 있었다. 나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녀들을 만나지 못했다.

앨리시어와 나

나는 앨리시어를 좋아한다. 언젠가 그녀는 나를 위해 ‘과달라하라⁶⁸⁾’ 라는 글자를 직접 수놓은 지갑을 만들어 주었다. 과달라하라는 앨리시어의 고향이다. 그녀는 언젠간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 앨리시어는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집이 없는 설움에 대한 것이었다.

“너는 지금 저기에 살고 있잖아. 망고 스트리트 4006번지.” 앨리시어는 그렇게 말하고 늘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집을 가리켰다.

“아니야. 저건 내 집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마치 그렇게 고개를 저으면 이곳에서 지내왔던 시간이 모두 사라져버리기라도 할 거라는 듯 말이다.

“여기에 살기는 하지만 난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이곳 출신인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앨리시어는 고향이 있잖아. 언젠간 거기로 돌아갈 거잖아? 기억 속 멋진 고향집으로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런 게 없어. 하다못해 사진 한 장도 없어. 꿈의 집은 있지.”

“그건 아니지. 네가 좋은 싫든 망고 스트리트는 너의 고향이야. 너도 언젠간 여기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아니야. 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누군가 여기를 훨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돌아오지 않아.”

“누가 그런 일을 해? 시장?” 나는 그 말을 듣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망고 스트리트를 방문하는 장면을 떠올렸다가 그만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니? 시장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68) 멕시코 중서부 할리스코주의 주도로, 멕시코 제2의 도시이자 문화의 중심지다. 농업, 관광업, 첨단 정보 산업이 고루 발달했다.

나만의 집

평범한 곳은 안 된다. 아파트 뒷골목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동 주택도 안 되고, 아빠의 집도 안 된다.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집. 나만의 현관과 베개, 나만의 예쁜 보라색 피튜니아⁶⁹⁾와, 나만의 책들과, 나만의 이야기들이 있는... 침대 밑에 신발이 가지런히 정돈돼 있고, 아무도 나의 평화를 뒤흔들지 않는 곳.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없어서 늘 깨끗한 집.

마치 눈이 올 때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집. 나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 시를 쓰기 전 새하얀 종잇장 같은 말끔한 집...

69) 남아프리카 원산의 꽃이다. 색은 종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망고 스트리트의 작별인사

나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늘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구상한다. 예를 들어 우체부가 집 앞에서 “편지 왔습니다”하고 외치면 ‘편지 왔습니다’로 새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나는 내 인생을 다룬 이야기도 만들었다. 나의 갈색 구두가 이끄는 대로 만든 이야기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녀는 나무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갑니다. 그녀의 우울한 갈색 구두는 그녀가 부끄러워하는 그 집으로 그녀를 데려갑니다.”

“저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곳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불쌍한 소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전부터 망고 스트리트에 살았던 건 아닙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루미스의 3층에 살았고, 그전에는 킬러에, 또 그전에는 파울리나에 살았죠. 하지만 제 기억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망고 스트리트입니다. 우울한 기운이 감도는 빨간색 벽돌집. 나는 그 집에 살았지만 절대 그러길 원했던 건 아닙니다.”

나는 종이에다가 그렇게 적었다. 그 내용으로 글을 쓸 때, 나의 불쌍한 영혼이 생각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그런 글을 적어놓고 지내다 보니까 가끔씩 망고 스트리트가 내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준 것이다.

언젠가 나는 내 책들과 종이들을 모두 챙겨서 집을 쌀 것이다. 언젠간 망고 스트리트에 작별을 고할 것이다. 망고 스트리트가 나를 영원히 이곳에 잡아두기에 나는 너무 강인하다. 언젠간 나는 반드시 이곳을 떠날 것이다. 내가 사라진 것을 알면, 친구들과 이웃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에스페란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그 많은 책과 종이들을 싸매고 어디로 가버린 거야?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린 걸까?”

아무도 내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역자의 말

안녕하세요? 정말 수많은 고난과 절망을 넘어 결국 3학년 논문으로 이 번역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미 문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드라 시스네로스라는 멕시코계 미국 이민자 작가의 첫 작품입니다. 44개의 짙막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투리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죠. 작가와 같은 멕시코계 미국 이민자들을 치카나라고 부르는데요. 작품의 주인공도 에스페란사라는 이름의 치카나 소녀입니다. 에스페란사는 망고 스트리트라는 미국에 있는 치카나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며 성장해나가는 이야기지요. 일단 작가와 주인공이 스페인어 사용자이다 보니 원서에도 스페인어로 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번역할 때 고민을 좀 해야 했죠. 결국 저는 스페인어 문장 중 비중이 큰 부분은 스페인어로 먼저 적어놓고 괄호 안에 한국어 뜻을 적어놓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작중에서 스페인 원어로 된 문장을 몇 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큰 틀은 ‘나만의 집’입니다. 에스페란사의 꿈은 자신이 위치한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집을 갖는 것입니다.

“평범한 곳은 안 된다. 아파트 뒷골목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동 주택도 안 되고, 아빠의 집도 안 된다.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집...”

‘나만의 집’이라는 에피소드의 첫 문장입니다. 이외에도 작중에서 ‘나만의 집’이 수없이 언급됩니다. 에스페란사의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이사 온 망고 스트리트의 집은 자신이 꿈꿔왔던 집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에스페란사는 누군가 집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자랑스럽게 가리킬 수 있는 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망고 스트리트 자체가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의 빈민가이고, 에스페란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에스페란사는 자신의 신분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망고 스트리트

트에 소속되지 않고 다른 도시로 떠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어느 날 신비로운 세 명의 나이 든 여성들이 찾아와서는 말합니다.

“언젠간 여길 떠나더라도 꼭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걸 명심하렴.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곳에 남겨질, 지금의 너처럼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소리야. 인생은 둥근 원과 같아서 늘 돌고 도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는 언제나 에스페란사일 거고, 언제나 망고스트리트의 일부분일 거거든. 그걸 지워버릴 수는 없을 거야. 너 자신이 누구인지만은 잊을 수 없을 거야.”

에스페란사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깨달게 됩니다. 그 말을 가슴 속에 새기고 훗날 망고 스트리트를 떠나더라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리라 결심합니다. 결국 이 책의 진짜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표면적 행복인 ‘나만의 집’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암묵적 행복인 ‘소중한 고향’이 아닐까요?

-황석연